

『민주 · 인권 · 평화 관련
특성화 콘텐츠 개발 사업』
최종보고서

2013. 11.



문화체육관광부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연구 내용을 「민주·인권·평화 관련 특성화
콘텐츠 개발 사업」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11.

아시아문화개발원

들어가는 말

침묵만큼 슬픈 것은 없다.

—레오 베크, 독일 유대인협회 회장

폴란드 태생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자신의 저서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에서 홀로코스트를 가리켜 현대성 그 자체라고 말한다. 홀로코스트를 유대인에게 일어난 비극으로 축소하거나, 원초적이고 타고난 인류의 성향으로 간주하는 양극단의 행위는 모두 홀로코스트를 역사의 흐름 속에 편입시켜 오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홀로코스트는 국가권력에 의해 대량살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폭력적인 구조(현대성)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 기회만 주어지면 재현될 수 있는 현재진행형의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홀로코스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성이 지배하는 현재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일이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재발할지 모르는 비극을 대비하기 위해 후손에게 경고와 교훈을 물려주는 일이기도 하다.

5·18 광주민주화항쟁은 지그문트 바우만이 홀로코스트의 성격을 지적한 것처럼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극명한 사례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에서는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공식적으로 총 165명이 목숨을 잃었고 76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3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결코 수치로 해명될 수 없는 물리적·심리적 트라우마가 광주 시민들에게 새겨졌고, 그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5.18 광주민주화 항쟁을 계기로 국내외의 수많은 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이후 광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 속에서 민주주의의 성지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광주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방식은 침묵과 무관심 외에도 왜곡과 조롱마저 끼어드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항쟁은 국가가 폭력 수단을 독점하고 국민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려 할 때 어떠한 참극이 빚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비극의 배후에는 현대성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도덕적 불감증과 부당한 사회적 생산 관계 그리고 집단적 파괴에 봉사하는 개인과 특정 집단들의 개별적 합리성이 존재했다. 2차 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에 가담했던 독일군 관료들은 미치광이거나

사이코패스가 아니었다. 개인적 삶속에서 그들은 대개 따뜻한 아버지이자 건실한 직장인이었다. 다만 그들이 속한 조직이 운영하는 공장이 아우슈비츠였고, 그들은 그 공장에서 인간을 원료로 하여 죽음이라는 최종상품을 생산해냈을 뿐이다.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을 진압한 공수부대원들 역시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조직의 목적과 명령에 복종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했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도시를 덮쳤다. 그때 광주에는 보이지 않는 호모 사케르들이 현존했다. 죽일 수는 있으나 희생 제물로는 바쳐질 수 없는 별거벗은 생명들이. 그 연약한 생명들은 죽음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웅변했고, 잊혀짐으로써 기억되는 쪽을 택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광주를 되돌아보는 것은 단순한 기억의 차원이 아니다. 사회학자 최정운의 말대로 5월 광주는 우리 역사에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 사건”이며, “구조주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구조를 만든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비정한 현대성에 눈뜨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절대공동체로 상징되는 ‘재난의 유토피아’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 땅에서 오랜 세월 부당하게 억눌려온 민주·인권·평화라는 가치를 소생시킬 수 있게 되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도청 창가에 서 있던 익명의 영혼들은 자신들의 죽음이 역사 속에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보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 우리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이 새겨진 공간, 그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 시작된 본 연구는 존재의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서 있던 생명들을 현재로 소환해내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작업은 광주 5월 정신의 핵심인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문화예술로 승화시켜 아시아와 소통하는 작업이며 동시에 그곳으로부터 새롭게 펼쳐질 미래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차 례>

I. 과업개요	8
1. 연구배경 및 목적	8
가. 연구배경	8
나. 연구 목적	10
2. 연구 범위 및 방법	11
가. 연구 범위	11
나. 연구 방법	14
II. 현황분석	16
1. 사전조사	16
가. 기초자료	16
나. 자문회의	28
다. 전시조건 검토 - 현장조사	34
2. SWOT 분석	42
3. 콘텐츠안 도출 과정 (분석 이후)	47
가. 영감소스	47
나. 내부회의 과정	49
다. 공간 관련 업무 추진 내용	51
III. 기본방향	54
1. 광주 오월 정신의 본질	54
2. 전시 주제의 초점	55
3. 전시방향과 목표	56
가. 전시원칙	56

나. 차별화	57
4. 전략	59
가. 콘텐츠 내적: 전시, 스토리	59
나. 콘텐츠 외적: 공간, 디자인	59
IV. 전시 콘텐츠	61
1. 전시 개념	61
2. 명칭 문제	63
3. 전시 콘텐츠안	64
가. 민주관 : 제1전시관 [경찰청본관]	64
나. 평화관 : 제2전시관 [경찰청민원실]	99
다. 러닝센터 [도청회의실]	105
라. 인권관 : 제3전시관 [도청본관]	110
마. 메모리얼 홀 : 추모타워 [상무관]	132
V. 공간 계획	145
1. 기본 컨셉	145
2. 5·18 민주광장 조성(안)	153
VI. 서비스 콘텐츠 - 자원수집 및 활용 : 러닝센터	160
1. 개요	160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60
나. 목적	161
다. 기능	162
라. 주요내용	162
2. 사업 내용	163
가. 사업추진방식	163
나. 사업구성	164

다. 사업 개념도	168
라. 시스템 구축 개념도	168
3. 실행 계획	169
가.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169
나. 네트워크 구축	197
다. 교육프로그램	204
4. 기대효과	207
VII. 시민여론수렴	209
1. 개요	209
2. 추진과정	212
가. 1차 설명회	212
나. 2차 설명회	214
다. 3차 설명회	219
라. 4차 설명회	222
마. 5차 설명회	224
바. 6차 설명회	225
사. 7차 설명회	226
아. 8차 설명회	228
자. 9차 설명회	229
VIII. 향후 추진 계획	235
1. 중장기 로드맵	235

<부록>

1. 민주인권평화기념관 관련 자원수집을 위한 조사연구
2. 국내외 유사기관사례 조사·분석
3. 일정표 및 회의록
4. 참고문헌

I. 과업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I. 과업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본 연구는 2015년 7월 개관 예정인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① 공간을 “민주인권평화기념관”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연구이다.



| 그림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도청과 주변 건물은 5·18 광주민주화항쟁의 역사적 특수성이 담겨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전당 내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이다. 따라서 본 기념관 구축계획은 대

①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 구)전남도청을 중심으로 건립 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등 5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 공간의 특수한 장소성을 유지하면서 차별화된 예술적 전시콘텐츠를 통해 이를 민주, 인권,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로 확장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지향하는 전당의 정체성을 공유해야 하는 과제를 지닌다. 이를 토대로 한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문화예술로 승화시켜 국내는 물론 아시아와 연대·공유·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둘째, 민주·인권·평화 정신의 미래 가치 발굴을 통해 아시아와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시를 준비한다.

셋째, 전문가 및 시민 및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와의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개관준비 과정 자체를 공유하고 민주·인권·평화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



| 그림 2. 민주인권평화기념관 및 5·18민주광장 일원 개념삽화

- 아시아문화전당 설명.
- 전당 내에서 기념관의 역할 기능. 발주처의 기준에서.
- 보고서에 서술이 가능하다면 기존 연구 진행과 기존 안들이 반려되고 본 연구가 발주된 상황
-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연구내용. 포괄적으로.

나. 연구 목적

본 과업은 5·18민주화운동에 내재된 민주·인권·평화 정신의 미래 가치 발굴을 통해 국내 및 아시아와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특성화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차별화 된 개관 전시를 준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전시 컨셉 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 등 본 과업 수행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개관준비 과정 자체를 민주·인권·평화의 가치 실현이 가능한 구도로 설계하여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새로운 의미 창출을 시도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된 세 가지 과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차별화된 콘텐츠 및 제반 시설을 제안한다. 첫째,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재현하여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예술적으로 승화하여 경험케하는 극적 체험의 공간을 구축하고, 둘째, 이러한 가치들을 시민, 아시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형 러닝센터 설립 계획을 제시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 공간범위

- 과업지시서 상 공간 범위: ‘전남도청 본관 및 상무관, 5·18민주광장을 비롯한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전체 외관’ (시민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제기된 도청 별관, 도청 수위실 등 포함)
- 경찰청 본관, 경찰청 민원실, 도청회의실로 확대 (기존 과 최종의 before after 그림)

■ 전시 콘텐츠

- 환경 분석 및 차별화 전략 수립
- 기념관 상설 전시 콘텐츠 기획개발
 - 5·18의 서사구조를 표현한 22개의 전시콘텐츠 기본계획안
 - 기본안의 구성 : 전시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컨셉 이미지, 전시에 사용할 캡션, 작가섭외 계획
 - 전시콘텐츠와 연계되는 야외 전시콘텐츠 계획
 - 전시콘텐츠를 위해 필요한 전시 공간 구축안

■ 서비스 콘텐츠 - 러닝센터 (자료 조사·수집·연구·링크·활용, 교육, 교류 콘텐츠)

- 5·18을 예술로 승화시킨 기념관 전시콘텐츠와 연계하여 교육과 교류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서 러닝센터 기본기획안
 - 국내외 민주인권평화 관련 콘텐츠 네트워크 기본 콘셉트 도출
 - 시민교육
-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조사연구 및 자원수집의 매체(vehicle) 계획
 - 자료 조사, 연구, 수집, 활용 방안 기본 콘셉트 도출
 - 멘토링 프로그램(전문가 자문회의 및 여론수렴회의)을 통한 조사연구 및 자원수집

■ 전문가 자문회의②

- FGI 형식의 전문가 자문회의 : 기념관 기본 콘셉트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여론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확대 운영
 - 5·18 구속부상자의 자문위 및 협의체 구성 요청을 반영하여 5·18관련 단체,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전문가 자문단을 선정한 다각적 자문회의 개최
- 시민설명회

② 과업지시서 내 '지명초청공모를 통한 전시 컨셉 디자인 도출' 과업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여론수렴회의 개최'로 대체됨에 따라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전시 컨셉 디자인 및 기본계획 연구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 확대 운영된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단체 및 시민 설명회 개최

■ 실행계획

- 중장기 로드맵
- 하반기 후속사업 연계 방안

나. 연구 방법



| 그림 3. 연구 추진도

본 연구는 이미 결정된 사항들과 여러 제약조건 속에서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안을 제시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시작되었다. 콘텐츠 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팀은 먼저 기존의 자료와 현재의 상황을 종합하고, 수차례의 자문회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과 기념관의 SWOT을 분석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추가 조사, 내부 회의 등을 거쳐 기념관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콘텐츠와 전시 경험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공간 설계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의 일부인 5·18 관련 자료와 자원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였는데, 이는 본 기념관의 목표가 콘텐츠의 일방적인 전달을 넘어 시민과 소통하고 아시아 및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콘텐츠 계획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을 기록하고, 개관을 위해 필요한 예산안과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Ⅱ. 현황 분석

1. 사전조사
2. SWOT분석
3. 콘셉트 도출 과정

II. 현황분석

1. 사전조사

가. 기초자료

1) 선행연구

과업명	책임기관 및 책임연구원	내 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5·18보존건물 활용방안 연구	- 5·18 기념재단 - 김경주 (동신대 문화기획학과 교수)	- 비전: 5·18의 가치를 시민, 일상, 문화로 확장 - 5·18 기념전시관, 민주시민센터, NGO 교류센터 - 시민참여와 교육, 교류에 중점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관 : 3기관이 공동 연구함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 한신대학교 평화와 공공성 센터 - 전남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 -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조성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 조정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5.18의 경험과 기억을 민주 인권 평화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켜 아시아적 기억을 형성 - 전시관(도청본관) 소통 교류(회의실) 상무관(추모) - 기억을 중심으로 의미체계구축-주체형성-공동체형성-문화향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획

표 1. 선행연구 개요

■ 시사점

- 5·18을 단일 사건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보편적 가치로 승화하고 일상과 문화로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엿보임
- 다만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핵심 콘텐츠 부분이 개념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님

2) 국내 · 외 유사사례

가) 국내 유사사례

국내 사례는 크게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사례와 그외 사례로 나뉜다. 5·18 관련사례로는 국립 5.18 민주묘지, 5.18 기념문화관, 5.18 추모관, 5.18 자유공원, 광주 트라우마 센터 등이 있으며, 그외 사례로는 국립 419 기념묘지와 기념관, 제주 4.3 평화기념관, 국립 3.15 민주묘지, 부산민주항쟁기념관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추모 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며, 전시기념관의 경우 사실 재현 및 데이터 나열식의 콘텐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 rationale 을 만들어줄 것.
- 무엇이 되었건 현재 있는 것이 해주지 못하는 역할, 현상황의 problem 을 중심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념관의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할 것.
- 국내사례 개요, 요약
- 광주 망월 5·18묘역과 전시관

나) 해외 유사사례

해외사례는 유럽의 홀로코스트 기념관들과 아시아의 전몰기념관으로 나뉜다. 유럽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으로는 파리의 홀로코스트 기념관(Mémorial de la Déportation Paris), 베를린의 유대인 박물관(Jüdisches Museum Berlin)과 유럽 유대인 희생자 기념물(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Berlin)을 조사하였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오키나와 평화기념관, 중국 난징대학살기념관 등을 살펴보았다. 해외 사례 중 베를린의 유대인 박물관과 유럽 유대인 희생자 기념물, 중국의 난징 대학살 기념관은 심층 조사가 필요하여 현장을 방문하였다.

■ 파리 홀로코스트 추모관(Mémorial de la Déportation Paris)

■ 개요

- 1962년 개관, 2005년 재개관
- 프랑스 파리 4구 제오프루아 라니에 거리
- 프랑스 모더니스트 건축가 Georges-Henri Pingusson 디자인

■ 시사점

-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 사건인 홀로코스트를 기리는 기념관으로, 프랑스에서 나치의 유대인 몰살 수용소에 끌려가 생사를 달리한 7만 6천여 명의 여성과 남성 그리고 어린이들의 이름을 벽면 가득 새겨 그들의 영혼을 기리고 있다. 옛 시체공시소를 개조하여 만든 작은 공간에 집약된 건축적 밀도가 압권이며, 건축적 디자인 자체가 홀로코스트의 은유다.
- 거친 몰타르로 마감된 회색톤의 내외벽과 폐쇄공포증을 불러일으키는 좁고 긴 지하공간 사이에서 홀로코스트의 ‘으슬으슬하고 싸한’ 감성 발생장치 역할을 하는 감실은 이 기념관의 핵심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감

실 내벽에는 에칭 기법으로 “Pardonne, N’ oublie pas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같은 짧은 글들이 새겨져 있다. ‘작게 하여 크게 성취’ 하는 공간적 경제성과 미니멀리즘의 강렬함이 잘 드러나 있어 이후 세워진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관들에도 영감을 주었다.

■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Jüdisches Museum Berlin, 이하 JMB)

■ 개요

- 2001년 개관
- 총 건축면적 15,000m²
- 건축가 Daniel Libeskind 디자인
- 유럽에서 가장 큰 유대인 박물관 중 하나로, 두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신이었던 유대인 박물관은 1933년 지어졌다가 5년 뒤 나치에 의해 폐쇄되었고, 다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같은 자리에 다시 문을 열었다. 1989년 베를린 시정부는 새 건물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대적인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디자인을 채택했다. 이후 오랜 건축 끝에 2001년 9월 11일 정식으로 개관하였다. 리베스킨트의 신관은 유대인의 상징인 다윗의 별을 왜곡시킨 지그재그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체주의 건축의 도발성이 관람객의 방문 유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베를린이 주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방문객이 많기도 하지만 오늘날 전시관과 기념관 등의 성공 여부는 건축과 디자인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시사점

- 신관 지하공간에 부여된 강력한 동선과 홀로코스트 타워, 유배정원의 건축적 은유와 상징은 여전히 유효한 강점이다. 그러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상설전 공간에 너무 많은 오브제와 자료들을 밀집 배치함으로

써 원래의 공간이 의도하고 있는 상징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지하에 위치한 로트 라파엘 러닝센터(Rafael Roth Learning Center)는 컴퓨터를 통해 관련 이야기, 인터뷰, 심층 설명 등을 제공하는 장소로, 벤치마킹의 좋은 모델이다.

-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서 건축 외에 눈에 띄는 것은 러닝센터였다. 시민, 학생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작업을 하며, 외부 순회전시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기념관이 지키고 알리고 싶은 가치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파한다. 특히 순회전시는 작은 버스를 이용하여 전 독일의 학교를 찾아가서 유대인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홍보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추천을 통해 방문할 학교를 정하며 그 경쟁률이 아주 높을 정도로 반응이 좋다. 또한 이러한 순회전시를 보고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아지는 효과도 있다.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은 다른 박물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방문객의 비중이 크다.

■ 유럽 유대인 희생자 추모공간(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Berlin)

■ 개요

- 2005년 개관
- 독일 베를린
- 대지 19,000m² (지하 정보센터 800m²)
- Peter Eisenman
- 공사비 약 2,500만 유로 (지하 정보센터 800m²)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근처로, 베를린 장벽이 서 있던 곳에 조성
- 경사진 대지에 바닥 면적이 동일하고 높이가 상이한 2,711개의 콘크리트

슬라브(stelae) 배치. (가로 2.38m, 세로 0.95m, 높이 0.2~0.48m)

- 정보센터에서 희생자 관련 기록물과 명단 열람하고 주제별 4개의 전시 [‘차원’ , ‘가족’ , ‘역사’ , ‘개인’]

■ 시사점

- Memorial to the Murdered Jew of Europe은 1989년에 제안이 시작되어 1994년 공모를 시작, 1999년에 미국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의 설계안이 채택되었다. 정부의 주도가 아니라 시민의 요구로 건립이 시작되었다.
- 2003년에 착공, 2004년 완공, 2005년에 2차 세계대전 종전 60주년에 맞추어 개관하였다.
- 6,000평 정도의 공지에 2,711개의 거대한 사각형 돌을 줄을 세워 배치하였다. 지하의 정보센터를 제외하면 특별한 목적지 없이 높이만 다른 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방문자들은 길을 잃게 되고, 방문자들은 상실의 역사에 대한 공간적 감성을 체험하게 된다. 야외공간이며 항상 개방되어 있어 시간과 날씨에 따라 느낌이 조금씩 다르며 시민과 관광객의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공공 공간의 기능을 겸한다.
- 사전 조사 자료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단조로운 회색톤 콘크리트 덩어리의 물성과 우울한 질감이 강렬하게 다가와 현장의 아우라가 강한 공간이었다. 전반적으로는 전후 독일에 만연한 ‘고백의 매조키즘’도 엿보인다.
- 이 곳 역시 인포센터에 많은 자원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동전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방문자서비스 및 박물관교육 담당 부서장에 따르면 이곳의 기본정신은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미래세대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현실과 유사성을 통해 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젊은 세대, 미래세대와의 접점을 만들고 넓히기 위해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 히로시마 평화기념관(広島平和記念館)

■ 개요

- 1955년 개관
- 히로시마 평화공원(122,100m²) /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11,713m²)
- 연평균관람객 120만명
- 원폭돔이라 불리는 히로시마 상업전시관은 원래 1915년 체코 건축가 안렛트르Jan Letzel에 의해 지어졌으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지붕만 파괴되고 외벽을 중심으로 한 건물의 뼈대는 남게 되었다. 이후 건물을 중심으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이 조성되었으며, 공원 남쪽에 평화기념자료관이 세워져 피폭 당시의 자료 3만 여점을 전시해 놓았다. 전쟁의 참상 고발 통해 방문자로 하여금 평화에 대한 염원을 갖게 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동관 1층에서 2층까지는 히로시마의 과거, 서관으로 이어지는 3층 연결통로에서는 원폭의 참상을 보여주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시내러티브가 구성되어 있다. 그 밖의 전시물로는 무명 희생자들의 무덤인 원폭 공양탑, 평화의 종,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등이 있다. 매일 8시 15분이면 당시를 기념하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매년 8월 6일에 희생자 추모제가 열린다. 인류역사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상징물로 인정되어 1996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 시사점

-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의 전시콘텐츠 22,800점은 실물자료 19,000여점과 원폭그림(사진 및 영상) 3,800여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폭자들의 사진, 녹아내린 인골, 원폭 유품들이 대부분인 탓에 예술적 승화나 형상화의 과정 없이 사실적 재현과 데이터 나열에 그치는 수준이다.

■ 오키나와 평화기념관(Okinawa Prefectural Peace Memorial Museum)

■ 개요

- 1975년 개관
- 191,000m² (공원 전체면적 400,000m²)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전쟁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오키나와는 개전기에는 일본군의 태평양 전진기지로써 중요한 거점이었고, 종전기에는 일본 본토의 최후 방어선으로 20만명 이상의 생명이 스러져간 비극적인 전적지였다.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이후 오키나와 현 주도로 기념공원 조성을 시작하여 1975년 평화자료기념관을 개관하였고 2000년 신관으로 이전하여 재개관하였다.

■ 시사점

- 오키나와 평화기념관은 오키나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서 유일하게 민간인이 지상전으로 인해 희생된 장소라는 점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러한 비참한 전쟁의 체험을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 후세에 전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오키나와 전통 건축양식을 채택하고 관람객이 바다를 조망하며 평화를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건축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미군에게 쫓긴 주민과 일본군 묘사에 주력하는 등 전시 콘텐츠의 내용은 사실적 재현과 데이터 나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 난징대학살 추모관

■ 개요

- 1985년 낙성 개관, 1995년 확장 재개관, 2005-7년 2차 확장

- 중국 난징 남동부, 학살 당시 처형과 사체 매장을 했던 장소.
- 74,000 m², 건축면적 25,000 m², 전시관 9,800m²
- 추모관 구성
 - 전시관 : 유물, 영상, 문서 등 10,000점 이상의 전시물
 - 유적지 추모광장 : 희생자 유골과 희생 현장 유적
 - 평화공원 : 조각, 동상, 부조, 기념물, 잔존 벽체와 평화공원
 - 수장 및 교류관

■ 시사점

- 난징 대학살 추모관은 누적방문객 2,000만 이상, 최근 연간 방문객 500만 이상(관계자)을 기록하며 중국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꾸준하고 대폭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확장을 거듭하였다. 학살의 현장에 추모공간을 세웠다는 점에서 광주와 유사하다.
- 난징 대학살 추모관은 2005년 확장과 함께 전시관의 건축적 표현을 강화하였다. 특히 신축한 신관을 통해 전시의 목적에 맞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관의 외부는 날카로운 예각이 만들어내는 선이 드러나도록 설계하였으며 외관 자체가 강한 건축적 은유로 작용한다. 형태뿐 아니라 거친 화강암 석린이 드러나 있는 외벽 마감에서도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표현했다.
- 추모관은 방문자가 기획된 동선에 따라 움직이도록 유도한다. 대로변 신관 측면에는 프롤로그 역할을 하는 희생자 브론즈 조각이 길게 줄을 잇고, 기념관 내부에서도 전시전략에 맞추어 방문객들이 이동하도록 하여 전시 효과를 배가한다.
- 내부는 전체적으로 조명을 어둡게 사용하여 비극적이고 숙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가운데, 계단이 없고 경사로로만 이루어져 있어 이동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 미장센 측면에서는 미디어의 혼합 사용, 유골 발굴지, 밀랍 인형을 통한

사실적 재현 등으로 기념관이 표현하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나, 사건 기록물이 너무 많고 밀랍인형을 통한 사실적 재현이 방문자의 자발적인 감성과 상상력 확장을 방해한다. 다시 말해 사건 관련 자료 중심의 전시나 피해사실을 부각하는 전시라는 한계는 극복하지 못한다.

다) 유사사례 분석 정리

앞서 살펴본 사례 중 JMB는 건축가 리베스킨트의 과감한 해체주의 실험을 통해 건축적 완성도를 높였고, 건축으로 관광객과 방문객을 끌어들이었다. 또한 JMB의 로트 라파엘 러닝센터는 매체를 활용하여 박물관 내에서 참여형 학습 활동을 유도하였다. 이로 인해 JMB는 박제된 전시물의 공간이 아닌 소통하는 박물관이 될 수 있었다.

파리 홀로코스트 추모관은 공간적 경제성과 미니멀리즘이 잘 드러나 있고, 유럽 유대인 희생자 기념물은 야외 공간에 개방된 전시물로 시간과 계절, 날씨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적 체험을 가능케 했다.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시아 사례들의 경우 예술적 형상화보다는 사실적 재현과 데이터 나열 쪽에 집중하고 있으나, 보존건물을 잘 활용하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까지 등재된 히로시마평화기념관의 사례나 난징 대학살 추모관이 신관 확장을 통해 건축미를 살린 것도 참고할만하다. 건축의 힘은 단기간에 강제로 발현되지 않으며, 기념관 건립의 참여자들이 확실한 관점을 갖고 만들어낸 안을 고민하고 시민들과 섬세한 토론과정을 거치며 다듬어진 것이다.

본 연구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보존건물들을 가지고 제한 공간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건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제약은 상대적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기념관의 아이캐치이자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는 강력한 야외전시 혹은 조형물이 필요하다.

우수한 해외사례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철저한 동선기획을 통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은 충분한 공간과 일관적인 공간디자인, 다방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획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행정, 사회 시스템의 조화가 낳은 결과이다.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얻은 또 하나의 시사점은 교육과 교류의 중요성이다. 특

히 독일의 기념관들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상황과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기념관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참여 자체가 민주주의 교육과 민주정신의 확산, 공유에 기여한다.

해외 교육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본 연구에서도 최초 과업지시에 명시된 자원 수집의 범위를 확장하여 러닝센터를 제안하게 되었다. 민주인권평화 기념관 역시 일방적인 전시콘텐츠 관람이나 판에 박힌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넘어서 시민이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나. 자문회의

1) 자문회의 개요

구분	자문위원	일시 / 장소
인문학	안병욱	2013.04.11 /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회학	최정운	2013.04.20 / 한국예술종합학교
지방행정학	오재일	2013.04.22 / 한국예술종합학교
심리학	오수성	2013.04.22 / 한국예술종합학교
역사학	한홍구	2013.04.29 / 한국예술종합학교

| 표 2. 자문회의 개요

2) 자문회의 내용

5·18은 희생자, 피해자, 제물의 프레임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 프레임은 희망이다. 광주를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정거장이자, 새로운 시대를 향해 활짝 열어젖힌 문이었다. 프랑스 혁명에 비견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과거 광주 사람이 만족하는 무엇, 지금 우리가 만족하는 무엇이 아니라, 미래의 기준에 맞추어진 희망의 아방가르드가 되어야 한다.

* 연구팀은 각각의 자문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관점별로 분류하고 재구성하였다. 개별 자문회의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 역사학적 관점: 시민전쟁과 5·18

1980년에 일어난 5·18 광주민중항쟁은 그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 응축되어 왔던 변화의 기운이 계엄군과의 충돌이라는 물리적 사건을 통해 폭발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역사적 ‘빅뱅(Big Bang)’이라 할 수 있다. 5·18 광주민중항쟁은 마치 우주가 팽창하듯 한반도를 넘어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시아와 제3세계의 민주화로, 나아가 인류 역사로 퍼져나가 세계사의 발전에 영감과 영향을 주었으며, 이 팽창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진행형

의 가치로 작동하고 있다.

왜 4·19가 아니라 5·18이 빅뱅인가? 1960년에 일어난 4·19 혁명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뜨거웠으나 투쟁 주체들이 의식의 차원에서 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못한데 반해, 5·18 광주민중항쟁의 경우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고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광주민중항쟁은 세계사 속의 다른 민주화 투쟁들을 답습하듯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정착과정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부당한 집권세력에게 빼앗긴 민중의 본래적 권력을 되찾아오고자 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이며 선행적인 의미를 지닌다.

5·18을 지칭하는 용어로 흔히 항쟁을 많이 써왔지만, 5·18은 정확히 말해 시민전쟁이다. 항쟁 혹은 저항이라는 용어로는 5·18 광주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먼저 항쟁(riot, revolt, uprising, strike)이란 특정한 국가 권력에 종속된 세력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벌이는 투쟁인데, 광주의 경우는 부당하게 형성된 권력에 맞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서로 다른 두 권력 주체가 무력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광주의 시민들은 군부 권력에 종속된 주체가 아니었으며, 권력에 반항하는 반란 세력도 아니었다. 오히려 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광주 시민에게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정당한 민주권력(광주 시민)과 민주주의 반란세력(군부 정권) 사이의 역사적 대결이었다. 시민군은 며칠에 걸쳐 조직적으로 전투태세를 갖추고 계엄군과의 실제 전투를 하였다. 그들이 자신들을 ‘시민군’이라 불렀다는 사실은 이 투쟁이 항쟁이나 폭동이 아닌 문자 그대로의 시민전쟁임을 말해준다.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권은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을 의미한다. 외부의 권력이 이를 제공하고 보호한다는 점에서 이 말은 얼마간의 수동성과 의존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광주에서 나타난 것은 인간의 최대한이었다. 그것은 확장된 인권이었고, 인간의 존엄성과 위대함이었다. 광주를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역사의 문턱을 넘었고, 비로소 어둠에서 빛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 심리학적 관점: 끝나지 않은 5·18

5·18을 심리학적으로 볼 때의 핵심은 트라우마, 즉 정신적 외상이다. 근래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조기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단기간 내에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기에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치료가 쉽고 정신과적 장애로 이어지지 않는다.

5·18의 경우 여러 사람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극한의 두려움과 경험을 했으나 이들의 트라우마는 방치되는 것을 넘어서 5·18에 대한 부당한 평가와 편견 등으로 인해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2004년에만 관련자 8명이 자살을 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뤄진 실태조사에서도 대상자의 25%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PTSD는 이제 만성화되어 복합 트라우마로 발전하고 있다.

5·18 당시에 사람들을 움직인 심리적 추동력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본성의 발로이다. 첫째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항쟁정신’, 둘째는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밥을 짓고 무기를 나눠주며 헌혈을 하던 사람들의 ‘대동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해 패배를 또 하나의 승리로 승화하는 불굴의 정신이 그것이다. 80년 5월은 바로 이러한 정신을 지닌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은 이후 편견이 가득한 시선들로 인해 큰 간극을 보이며, 당사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라는 용어만으로 포괄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 가히 ‘5월 증후군’이라 부를만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들의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 외부의 폭력적 시선을 통해 폭도로 묘사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억의 재생이나 재현이 아닌, 예술적 승화의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지방행정학적 관점: 광주, 장소성의 보존과 국소주의의 극복

오늘날 광주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지나친 국소주의와 공허한 개념 논쟁이다. 5·18 광주민주화항쟁은 광주만의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주만의 사건으로 축소하려는 대내외적 경향이 발견된다. 광주항쟁은 한국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항쟁정신의 한 발현이다. 따라서 우리 역사 속에서 5·18 정신을 찾아 보편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동학농민운동에서 5·18까지, 혹은 임진왜란에서 5·18까지 우리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꿔놓은 사건들을 관통하는 연속성을 발견함으로써 5·18 정신의 역사적 확장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많은 잘못된 예처럼 표피적인 한탕주의로 5·18을 다루는 것은 금물이다. 광주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재발견되어야 한다.

수많은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 역사적인 큰 틀에서 80년 5월의 광주는 역사적 인정을 얻어냈다. 따라서 이제는 광주를 경험한 세대가 아닌, 커 나가는 미래의 디지털 세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올바른 역사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보편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픔이 아닌 기쁨, 절망이 아닌 희망을 통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세대가 광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다.

■ 정치사회학적 관점: 폭력극장과 절대공동체, 공동체 이후

광주에서는 현대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지배-피지배 이전의 원초적 모습을 지닌 일종의 원시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모든 물리력과 권력이 배제된 이 해방구에는 오직 ‘시원적 무리의식’만이 존재했다. 비록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해 보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이데아에 가까운 공동체이므로 신국(神國)이 아닌 이상 현실에서는 재현불가능한 공동체이며, 북극성과 같이 고개를 들어 우리의 좌표를 확인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5월 광주는 국가권력에 의해 펼쳐진 ‘폭력극장’ 이었다. 광주의 시민들에게 80년 5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당한 폭력의 경험이었다. 따라서 5·18 광주민중항쟁을 언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하는 순간 언어나 문자만으로는 그 참혹했던 상황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언록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들에게 이 사건이 언어 이상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극한의 경험 앞에서 언어는 철저히 무력하다. 어떤 개념어들도 이 경험을 온전히 담거나 가둘 수 없다. 오직 예술적 언어만이, 에두르고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 경험에 접근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의 작동 기반은 죽음에 대한 공포다. 절대공동체는 바로 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절대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극복이다. 이것은 초자연적 경험이며, 어떤 의미에서 매우 종교적이다. 개인과 사유재산이 의식 속에서 사라졌고, 종내에는 생명마저 그랬다. 절대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 싸웠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충분치 않은 설명이다. 정말 살기 위해서였다면 그들은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숨어들어갔어야 한다. 이 말은 그들의 의식 속에 ‘개별적 자아’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반증하며, ‘살기 위해 싸웠다’라는 문장의 주어가 특정 개인이 아닌 그들 모두, 곧 전체였음을 의미한다. 절대공동체가 이뤄지는 핵심적 계기 중 하나는 바로 옆에서 싸우는 사람의 아름다움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공동체는 에로틱 공동체이기도 하다.

절대공동체가 유지된 시간은 80년 5월 20일 오후 3~4시 경에서 이튿날 21일 오후 3~4시까지라고 본다. 만으로 24시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다. 이 공동체의 내면에는 대혼란과 고립감, 자발적 질서가 혼재했다. 극단적 투쟁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언어를 초월한 경험이었으며, 동시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이상적 공간이기도 했다. 절대공동체는 일종의 초자연적 무념무상 상태였으며, 구성원 모두가 지도자였다. 사회학적 용어로는 게젤샤프트(Gesellschaft)가 아닌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1일 오후부터 시작된 절대공동체 균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충을 탈취해서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구성원에 대한 계급적 분류가 시작되었다. 충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신분, 정체성, 계급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진 것이다. 둘째, 가족들이 시민군을 찾으러 나오면서 절대공동체 속에서 사라졌던 개인과 자아가 다시 부상했다. 21일 밤 보초를 섰던 사람들의 증언에서 “무서워서 혼났다” 라는 언급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내’가 사라졌던 절대공동체가 깨어져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오자, 잊고 있던 개인의 공포가 다시 시작되었다. 역설적으로, 모두가 지도자였던 절대공동체에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 균열 이후다.

절대공동체를 경험했거나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후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게 되었다. 공동체의 균열 이후 따로 떨어져 나온 개인에게 자기성찰성(self-reflectiveness)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중생(重生, reborn)의 경험이며, 절대공동체가 극복의 양태인 동시에 ‘부활’의 의미를 지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을 겪고 통과한 자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 리어가 던지는 질문,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Who is it that can tell me who I am?)” 처럼, 80년 광주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경험이다.

다. 전시조건 검토 - 현장조사

2013년 3월 22일과 6월 21-22일 두 차례 방문하여 전시조건을 분석하였다. 첫 방문에서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내부를 조사할 수 없어 외관과 전체적인 상황만을 파악하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2차 방문을 하였다. 이후 공간 계획과 콘텐츠 계획을 위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였다. 뒤 II-3에서 밝힐 컨셉 도출 과정 중 현장방문과 업무협의를 위한 기술회의를 통해 2013년 8월 23일 보존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잠정 보류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최초 2회의 조사를 통해 파악한 공사 잠정 보류 전까지의 상황만을 다루었다.

본 절에서 기존 리모델링 설계라 함은 2011년 실시설계 완료하여 2013년 8월 말까지 보존건물 5개동의 구조보강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과업으로, 본 용역사업에서는 기념관 전시 콘텐츠에 적합한 공간계획을 제안한다.

조사 당시 경찰청 본관은 사무공간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5·18의 의미, 조사 당시의 초기 콘텐츠 계획, 해외 유사사례와의 비교 등 어떤 기준에서도 도청본관 건물 하나에 전시 콘텐츠를 모두 담기에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도청본관 건물 외벽을 흰색으로 도장한다는 기존의 계획은 보존건물의 의미나 건축적 표현에 대한 고민 없이 나온 결정사항이었다. 5·18사적지이자 역사적 의미가 큰 건물의 리모델링은 단순한 개보수와 구분하여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현장 조사 내용

■ 경찰청 본관

총 지상 3층으로 1960년대 후반에 지어진 경찰청본관은 당시 관청 건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이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일반 사무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기존 리모델링 설계 내 공간구성 역시 사무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중앙계단과 복도가 있는 전형적인 사무공간 구조로 구조보강공사 중이었고 복도의 기둥은 조악한 조적벽체로 남겨놓은 상태였다. 여기서 복도 기둥의 조적벽체는 평력에 취약한 구조적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복도 때문에 전시공간 간섭이 일어나는 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 그림 4. 경찰청본관 내부. 2013.07 현재



| 그림 5. 경찰청본관 외부. 2013.07 현재

■ 경찰청 민원실

총 지상 2층으로 1944년 건축된 경찰청 민원실은 경찰청 본관의 2, 3층과 연결되어 있었다. 건축구조는 벽돌 조적조이며 지붕은 트러스 구조에 기와로 외부마감이 되어있으며 기존 리모델링 설계에 사무공간으로 계획되어 구조보강

공사 중이었다. 1, 2층을 구분하던 2층의 슬라브는 현재 제거되어 조적벽체가 드러난 상태로 H빔 철골구조 buttress가 건물 전체를 지지 중이다. 구조의 취약함을 임시로 보완하기 위한 대책인 H빔을 건물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시 아래 사진과 같이 바닥에 화장실 배수시설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후 추가 방문에서 콘크리트로 바닥을 마감하고 공사가 잠정 보류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 그림 6. 민원실 외부. 2013.06 현재



| 그림 7. 민원실 외부. 2013.06 현재

■ 도청회의실

도청회의실 광주광역시 지정 문화재(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하 1층, 지상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철거 작업 중이었다. 지하 1층은 수장고, 지상 1층은 로비, 자료실, 영상관, 워크샵 룸, 사무실, 지상 2층 극장은 보존을 원칙으로 컨퍼런스 홀로 기존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다.



| 그림 8. 도청회의실 지하 1층. 2013.06 현재



| 그림 9. 도청회의실 1층. 2013.06 현재



| 그림 10. 도청회의실 2, 3층. 2013.06 현재



| 그림 11. 도청회의실 2층 복도



| 그림 12. 도청회의실 2-3층 계단

■ 구도청본관

도청본관은 등록문화재로 1930년 12월에 2층 높이의 건물로 준공되고 70년대 3층으로 증축되었다. 중앙층계 기준으로 좌우 대칭한 구조이며, 각 층고는 약 2.5미터이다. 중앙층계는 공간을 좌우 분리하여 전시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당시 도출되었던 전시콘텐츠를 변경하거나 구조안전정밀진단 및 구조보강공사를 통해 중앙계단을 제거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 그림 13. 도청본관 중앙계단. 2013.06 현재



| 그림 14. 도청본관 중앙계단. 2013.06 현재

■ 상무관

상무관은 1960년대 후반에 준공된 1800x2787mm, 높이 954mm의 단층 건물로 부분적으로 중층 스탠드형 관람석이 있는 실내체육관 겸 경찰 무도훈련관이었다.

기존 리모델링 계획으로 공간 뒤쪽의 연무관을 철거된상황이었으며, 정면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 그림 15. 상무관 내부. 2013.06 현재



| 그림 16. 상무관 내부. 2013.06 현재



| 그림 17. 상무관 외관. 2013.06 현재

■ 5·18민주광장

5·18민주광장은 금남로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도청본관과 상무관으로 접근할 수 있다.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인 아시아문화마루가 임시건물(컨테이너)로 들어서 있다. 현장조사 당시 시각 장애물로 지하상가 대형 통풍 장치, ‘민주의 종’, 상무관 앞 환기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013년 11월 현재 ‘민주의 종’ 및 그 주변 조경이 조성되어 금남로에서 바라봤을 때 상무관(메모리얼 홀)의 전경을 가리고 있다.



| 그림 1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5·18민주광장 일대. 2013.06



| 그림 19. 금남로 1가 YMCA에서 바라 본 '민주의중' 조성 일대



| 그림 20. 5·18민주광장 분수대에서 바라 본 '민주의중' 조성 일대

2. SWOT 분석

강점 오월서사의 劇性 ⇒ 극대화	약점 건축적 한계·결함 ⇒ 특징화
기회 후발주자의 비교우위 ⇒ 미적 차별화	위기 심리적 노이즈 ⇒ 예술 승화

| 그림 21. SWOT 분석

■ Strength

- (Strength 1)서사 콘텐츠의 강력성: 5 · 18 스토리

광주 열흘 간의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거의 완벽한 드라마 플롯 아크(Plot Arc)를 가지고 있어 강력한 서사 콘텐츠로서의 힘을 가진다. 고대 그리스 비극을 연상케 하는 이 원형적 서사에는 수 천 년 간 살아남은 스토리텔링의 힘이 작동한다. 플롯 뿐 아니라 광주 서사 속에는 버스 위에서 태극기 흔드는 사람, “우리 다 죽어볼자!” 외치는 사람, 바가지로 물 떠다 주는 아짐씨, 여성과 어린 학생들 내보내는 도청 지도부, 도청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학생 등 흥미진진한 캐릭터들이 곳곳에 존재하며, 계엄군과 공수부대로 대표되는 강력한 적대 세력으로 인한 긴장과 서스펜스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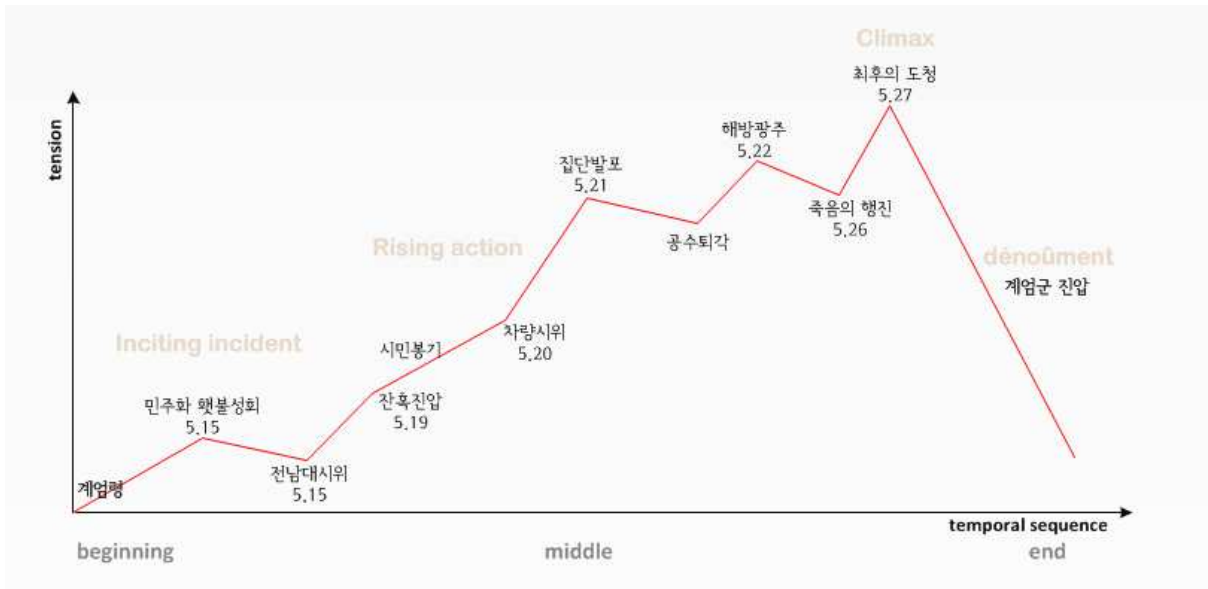


그림 22. 연대기적 전개 = Aristotelian Plot

- (Strength 2) 사이트의 현장성: “그때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났었다”

어떠한 허구와 재현도 사실에서 우러나는 진실의 힘을 이길 수 없다. 도청본관과 별관, 분수대, 상무관, 도청회의실 등의 현장성에서 분출되는 아우라는 다른 모든 전시 콘텐츠를 압도한다. 관람객들은 “그때 그 일이 일어났던” 보존건물들 속을 거닐며 공간 자체의 물성이 발산하는 아우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극적인 전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로운 변형과 개조가 불가능한 공간으로 인해 상상력의 확장이나 감성적인 디자인이 제한되는 한계와 약점 역시 지니고 있다.

- (Strength 3) 역사적 성격의 차별성

JMB나 난징학살기념관, 히로시마원폭돔을 비롯한 모든 해외 사례는 피해사실만을 강조한다. 이들 박물관/기념관들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수동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며, 초점 역시 상처와 비극 그 자체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5·18 광주민주화항쟁에는 수난(受難)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저 너머’가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차별성을 지닌다.

단순한 피해자의 프레임에 넘어선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에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같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계를 벗어버린 인간의 극점(極点)’ 과 ‘아시아적 지평’ 을 향한 가능성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광주만의 역사적 차별성을 보여주는 예로 초극(超克)을 향한 두 변곡점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발포를 뚫고 쟁취한 5월 21일 도청앞과 금남로의 해방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자유 의지와 영성체 체험이 일어났던 5월 26일 밤이다.

■ Weakness

- (Weakness 1) 전시공간 절대 부족과 전시공간의 합목적성 결여

민주인권평화기념관	도청 본관 3개층 연면적 = 1302m ² 도청 별관 3개층 연면적 = 자료 無 상무관 건면적 = 878m ² 방문자센터 지상/지하 가용면적 = 3498m ²	③현재 전시 가용면적; 도청본관 + 상무관 = 2,180m ²
Jewish Museum Berlin	Altbau 제외 Neubau 건면적 = 15,500m ²	Altbau 제외 Neubau 건축면적 = 15,500m ²

| 표 4. 2013.06 현재

도청본관, 별관, 경찰청본관, 민원실, 도청회의실, 상무관 등 보존건물 모두가 분산 난립되어 있어 일관적인 전시동선을 구성할 수 없다. 성공적인 전시를 위해서는 단순히 일관적인 동선을 넘어 잘 짜여진 강제 동선(well-plotted, compelling thru-line)이 필요하다. 건물의 배치가 분산되어 있는 문제에 더해 건축 양식에도 통일성이 없다. 각 건물의 건축시기와 배경이 제각각인 것에 더해 수십 년 간 단순히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 개보수를 거치며 건축미나 공공공간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물리적 심리적 기능적 이점을 거의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③ 위 공간 범위는 과업지시서 내 내용으로 SWOT 분석 후 발주처(아문단)와의 업무 협상을 통해 보존건물 5개동 전체로 확보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불필요한 벽체를 제거하여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 안전성 문제 확인이 필요하다.

■ (Weakness 2) 개별 공간 분석

- 도청본관

도청본관은 1, 2, 3층 중앙의 계단에 의해 좌우가 분리되는 구조로, 공간 내 콘텐츠에 대한 자발적 몰입이 어려우며 강제동선(compelling thru-line)이 차단되어 감성-플롯 구성이 불가능하다.



| 그림 23. 도청본관 중앙 층계

- 상무관

상무관의 경우 도청본관과의 거리와 분수대 광장에 의해 전체 동선이 단절되어 있으며, 지하 주차장 진입로로 인해 광장으로부터의 접근이 차단되어 사실상 고립되어 있다. 내부적으로는 건물 구조의 내구력이 결여되어 있는데다 1960년대 무술경관들의 훈련장으로 쓰인 외관의 조악함은 미적 보완이 필요하다.



| 그림 24. 상무관 파사드와 지하주차장 진입.

■ Opportunity

■ (Opportunity 1) 後發의 이점

뛰어난 건축성을 지녔으나 콘텐츠가 빈곤한 JMB나 재현적 전시방식의 한계점을 지닌 난징, 히로시마 등과 달리, 우리는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살

릴 수 있다. 5·18기념관과 직접비교대상이 될 대표적 전시관들이 2000년대 중반에 대대적인 확장 개편을 하거나 개관했다는 사실도 주목할만하다. 10년간 세계적으로 큰 프로젝트가 부재했으며, 선발주자들의 장점과 개선점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게다가 1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테크놀러지도 있다. 또한 테크놀로지와 예술이 결합된 ‘시적 보여주기’ 방식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은 내용의 originality와 참신하고 독보적인 테크놀로지를 통해 경쟁국가와 전시관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 (Opportunity 2) 넓어지는 지평

5·18 역사경험은 일본, 중국과 달리 아시아 역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들과 네트워킹된 대등한 쌍방향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은 과거 아시아로 이어졌던 수많은 역사적 경로들(routes), 즉 ‘교역’ (장보고 루트, 실크로드)과 ‘약탈’ (제국들)의 길 위에서 영토를 벗어나는 類的 가치(인권, 민주주의, 평화)를 발견하게 하며, 여기서 이뤄진 교감, 공명, 증폭의 과정은 광주민주화항쟁의 지평을 아시아와 세계로 넓힐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된다.

■ Threat

- 지역 내부에 존재하는 피로감
- 지역 외부에 존재하는 거부 의정서
- 젊은 세대들이 보이는 망각과 왜곡

-> 이같은 심리적 노이즈들은 어떻게 소거하고 본래의 광주 5월 정신인 인권, 민주주의, 평화에 접속케 할 것인가?

->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의 대한민국에게 어떤 유산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3. 콘텐츠안 도출 과정 (분석 이후)

가. 영감소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국현대사 사료연구회의 〈광주오월항쟁사료전집〉의 항쟁 관련자 구술증언을 참고하여 책임교수의 작품 〈오월의 신부〉를 집필하였고, 〈오월의 신부〉는 전시콘텐츠의 소재와 스토리보드를 구성하는 기초로 활용하였다.

둘째, 최정은 교수의 〈오월의 사회과학〉의 절대공동체 개념은 5·18을 바라보는 중요한 틀로, 본 연구에서도 절대공동체 개념을 통해 5·18을 이해하고 절대공동체를 콘텐츠를 통해 표현하였다. 절대공동체와 더불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말하는 초극의 개념, 한계를 벗어버린 인간성의 극점은 당시의 사람들과 상황, 나아가 5·18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평범한 시민들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극한 상황을 초극하는 과정과 결과를 전시에 담아내고 전달하고자 했다.

셋째, 노자 〈도덕경〉은 연구의 태도, 공간 구성의 원칙과 방식을 정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 다음은 도덕경 45장의 내용이다.

大成若缺,其用不弊 °

大盈若冲,其用不窮

大直若屈,大巧若拙,大辯若訥

이를 우리말로 풀면 “완벽하게 완성했다 하더라도 어딘가 부족한 듯해야 그 쓰임새가 끝장나지 않는다. 꽉 채웠더라도 텅 빈 듯해야 그 작용이 궁해지지 않는다. 아주 긴 직선은 굽은 듯 이 보인다. 최고의 기교는 어딘지 서툰 듯하다. 말발이 쫄 쉰 자는 사실 어눌하게 말한다.” 라는 뜻이 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여 상상의 공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백과 여지를 남겨 관람객으로 하여금 그 빈 칸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본 연구의 전시 원칙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특정한 사상과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스스로 채우게 하는 것이 본 전시의 목표다.

마지막으로 주역의 23번 山地剝 괘와 이 괘가 전복된 형상인 24번째 地雷復 괘는 5·18정신 및 전시 전체의 상을 압축해서 간결하게 표현해준다. 산지박의 卦象은 대인은 뺨박받고[깎임], 소인이 판치는 음의 시대 백성들이 모멸받고 상처받는 상황이다. 깎이고, 깨지고, 벗겨지고, 찢어지고, 터지고 하다가, 늦가을 잎 다 떨어진 늙은 나무 꼭대기에 단단한 열매[碩果; 굳은 뜻] 하나가 열리고, 종내에는 그 열매마저 떨어져 땅 위에 다시 새싹이 난다. 괘의 모습도 ‘땅 위에 산’으로, 무진벌을 내려다보는 무등산의 이미지와 일치한다. 이것은 본래 자기자리로 돌아오는 괘인 지뢰복과 이어지면서 5·18의 과정을 담고 있으며, 간결한 이미지에 복합적인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기념관의 로고로 사용하기에도 적절하다.

나. 내부회의 과정

본 보고서는 아래의 전체 과업 추진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이며, 내부회의는 이를 위한 연구팀의 업무협의 과정이었다.

상반기 내부회의는 기념관 전체 콘셉트 도출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기념관 전시 및 서비스 콘텐츠(러닝센터), 5·18민주광장 조성을 위한 조사, 연구, 분석을 통해 본 기념관 콘텐츠의 기초를 세웠다.

중반기 내부회의에서는 보존건물 및 5·18민주광장 조성, 서비스 콘텐츠(러닝센터) 구체화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건축 관련 아문단 및 외부 관계자와의 외부회의가 빈번히 추진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콘텐츠안을 수정하기 위한 내부회의 과정이 있었다. 더불어 러닝센터 기본 계획안 작성을 위한 집중적인 내부회의가 있었고, 이는 중간보고를 위한 기념관 전체 콘텐츠 기획안에 반영되었다.

하반기 내부회의는 주로 구체화된 콘텐츠 추진을 위한 실무업무 협의 내용이었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정리될 여론수렴회의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아문단의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 과정과 함께 진행되었다. 내부회의에서 콘텐츠안을 구현 가능한 방식으로 수정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고, 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반영되었다.

구분	과업진행내용	비고
상반기 - 콘텐츠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및 과업분석 (내부 정례회의 시작) - 착수보고 - 착수보고에 따른 과업 변경 협의 - 전문가 자문회의 시작 - 광장조성을 위한 현지 자료 수집 조사 - 기념관 및 광장 콘텐츠 기본 콘셉트 도출 - 해외 선진사례 조사 (유럽) 	
중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건물 관련 현장조사 	

- 콘텐츠안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의(1차) - 콘텐츠 구체화 - 중간보고 - 콘텐츠 관련 공간 조성을 위한 기술회의 2차례 - 해외 선진사례 조사 (중국) 	
하반기 - 콘텐츠안 수정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시민여론수렴회의 정기 개최 - 사업 관련 외부 관계자(광주광역시 외) 업무 협의 회의 - 시민설명회 개최 - 후속사업을 위한 사업연계방안 도출 	

| 표 5. 내부회의 진행 내용

다. 공간 관련 업무 추진 내용

■ 전시콘텐츠 공간 관련 업무

1차 방문에서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부분 공개로 보존건물 내부 전체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기념관 전시콘텐츠 기본계획(안) 발표 후(중간보고 2013.07.18) 2차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보존건물 5개동 내·외부 및 광장, 방문자서비스센터와 관련한 현장조사와 실무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중간보고 이후 8월 6일 추진단 광주사무소에서 개최된 기술회의에서 기념관 전시 콘텐츠 구현에 따른 보존건물 리모델링 공사 설계 변경 최소화 방안 등에 관한 검토 과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존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잠정 보류되었고, 연구팀, 추진단 협력과 및 시설과,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 외 외부전문가로 조병수 건축가와 정광량 박사(구조정밀안전진단 및 구조설계 전문가)와의 실무회의를 통해 ‘사적지로서의 보존건물 원형 유지’ 및 ‘전시효과를 위한 내부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공간계획을 구체화 중이다.

구 분	일시 / 장소	내 용
1차 현장조사	2013.03.22	전시조건 조사 및 콘텐츠 계획안 도출을 위한 사전답사
2차 현장조사	2013.06.21 -22	1차 전시 기획안 작성 후 공간 세부검토, 리모델링 공사 현황 점검
기술회의	2013.07.16 / 추진단 서울사무소	2차 현장 답사에 따른 기술회의 - 개발원: 황지우, 이영진, 이기형 - 추진단: 추진단장, 시설과 담당자, 협력과 담당자(김동안 과장, 김호균) - 외부 참석자: 윤정섭 교수(한예종 무미과), 조병수 건축가
[중간보고]	2013.07.18	본 연구 용역 중간보고: 기념관 전시 콘텐츠 기획안(1차)
기술회의	2013.08.06 / 추진단 광주사무소	7월 16일 기술회의 및 중간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 회의 - 개발원: 황지우, 이영진, 함진숙, 이기형 - 추진단: 시설과 담당자, 협력과 담당자, 개발과 담당자 - 외부 참석자: 조병수 건축가, 정광량 박사(구조진단)
3차 현장조사	2013.08.07	8월 6일 진행된 추진단 시설과와의 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현장 방문
기타	2013.08.23	*보존 건물 리모델링 공사 잠정 보류(2개월) 승인

기술회의	2013.10.25 / 추진단 광주사무소	보존 건물 리모델링 공사 잠정 보류에 따른 기술 회의 - 개발원: 황지우, 이영진, 함진숙, 이기형 - 추진단: 시설과 담당자, 협력과 담당자, 개발과 담당자 - 외부 참석자: 조병수 건축가, 정광량 박사(구조진단)
5차 현장조사	2013.11.07	전시콘텐츠 확정을 위한 현장 방문. 추가 별관 및 방문자서비스센터 현장 방문

| 표 6. 콘텐츠 공간 관련 업무 진행 내용

Ⅲ. 기본 방향

1. 광주 오월 정신의 본질
2. 전시 주제의 초점
3. 전시방향과 목표
4. 전략

Ⅲ. 기본방향

1. 광주 5월 정신의 본질

- 핵: 인권(人權)

광주 5월 정신의 핵심은 인권이다. 인권이란 인간을 짐승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하나의 격이며, ‘화려한 휴가’로 상징되는 국가폭력의 야만 앞에 짐승의 심연으로 떨어뜨리려는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극복된 지점에서 얻어진 인간의 권리다.

- 국가[주어]와 시민[술어]의 전복

5월 광주는 시민이 역사 문장의 주어로서 그 술어를 발화하기 시작한 세계사적 사건이다. ‘해방광주’ 나홀은 인류사의 유토피아에 가까운 시민 자치의 아름다운 절대 공동체를 보여주었다. 빛의 도시, 광주(光州)는 시민으로 대표되는 인간 그 자체의 빛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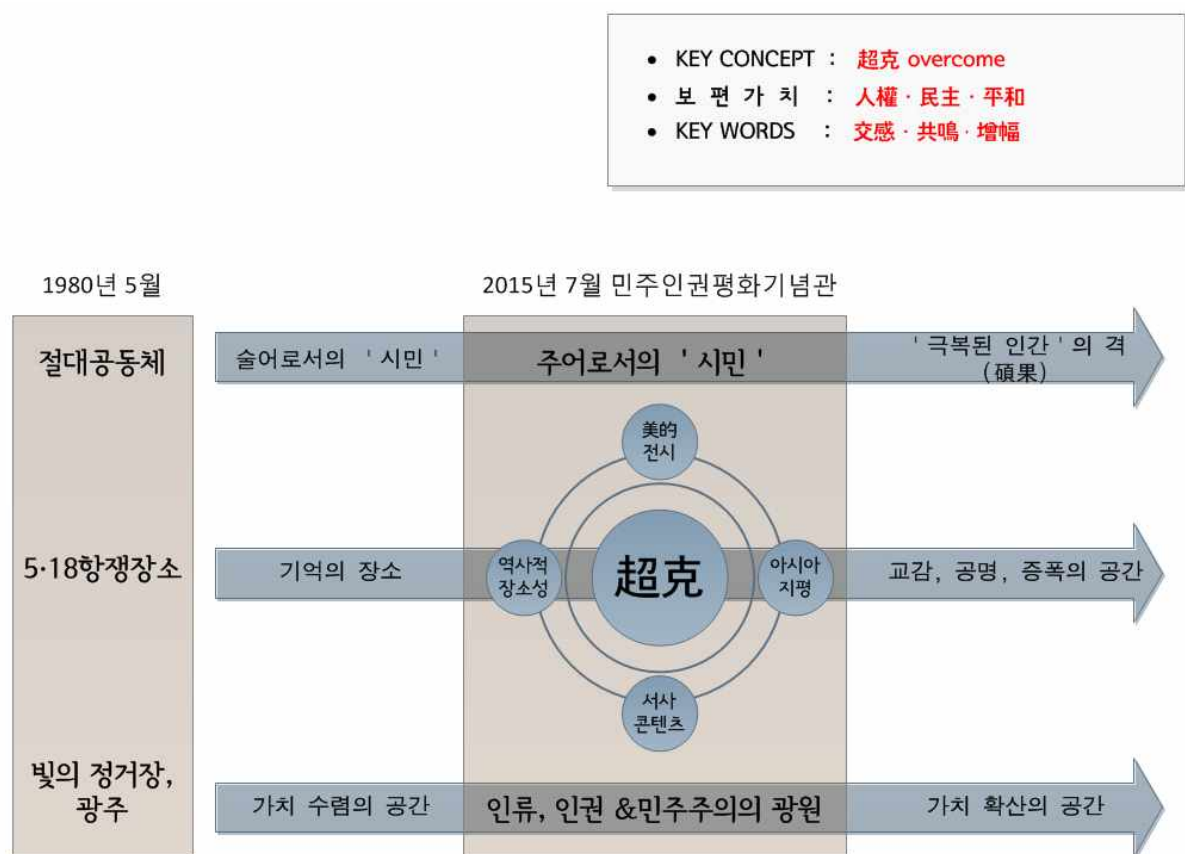
- 5월 19일 : 국가권력의 잔학 진압[‘폭력극장’]에 일어난 시민들
- 5월 20일 : 택시기사 차량 시위 → 반전 계기
- 5월 21일 : 계엄군 발포 → 더 몰려나온 5만 시민들 → 공수 퇴각
- 5월 26일 밤 : 도청 창가에 서 있는 사람들 → 세상의 낮은 자리에 모멸받던 사람들이 보여준 ‘인간의 가능성’ ;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자리에서 순간 영성의 정전기 발산

- 파생가치: 민주주의, 평화

5 · 18 광주민주화항쟁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주인이 시민이며,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되새기고 회복할 수 있다.

또한 ‘해방광주’로 상징되는 유토피아적 절대공동체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무엇인지,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 우리 공동체에 요구되는 평화적 모델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2. 전시 주제의 초점



| 그림 25. 전시 주제의 초점

3. 전시방향과 목표



| 그림 26. 전시방향

가. 전시원칙

- 첫째, ‘승화’ 시켜라.

전시 콘텐츠의 예술성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예술적 승화’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주어진 공간 내부의 재구조화를 통해 내용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서 민주·인권·평화 정신의 ‘승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사실주의적 재현, 데이터 나열, 설명을 가급적 배제하고 의미나 이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메타포와 상징을 통해 ‘말하는(telling)’ 것이 아닌 ‘보여주는(showing)’ 방식으로 방문자를 몰입시켜 자발적인 감성과 상념을 생성하도록 한다.

- 둘째, ‘소통’ 시켜라.

우리의 목표는 방문자들 스스로가 어떤 역사에 접속하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은 역사와의 소통, 시민과 시민 사이의 소통, 그리고 더 나아가 시민과 아시아/세계 사이의 소통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

‘소통’은 역사와 시민, 시민과 시민, 그리고 시민과 아시아 사이의 ‘경로’다.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고 오는 양방향의 교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참여형 ‘러닝센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러닝센터에서 방문자들은 컴퓨터 기반의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뤄진다. 어린이들과 청소년의 경우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가미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더욱 쉽고 흥미롭게 역사와의 소통을 이룰 수 있게 한다.

베를린유대인박물관[JMB]의 특징 중의 하나는 나치와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방문자의 거부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전시 맥락을 구성하였다는 점에 있다. 5.18이나 유사한 주제의 박물관의 전시 또한 잔인한 역사를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JMB 디렉터 Kugelmann과의 인터뷰

유럽유대인학살기념관[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5.18 기념관에 조연하고 싶은 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다. 기념하고자 하는 역사적 사건은 그 사건만으로 충분히 잔인하고 끔찍하다. 끔찍한 사건을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보다는 방문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DEJE 기념관 교육 담당 부서장 Zeller와의 인터뷰

나. 차별화

- 극장성, 미장센 속의 현존

유럽 홀로코스트 기념관들 중 모범 사례로 꼽히는 파리 홀로코스트기념관, 베를린유대인학살기념관, 베를린유대인박물관의 경우 뛰어난 건축성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아시아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오키나와 평화기념관, 난징 대학살기념관 등의

사례를 보면 데이터 나열적이고 재현적이며 설명적인 전시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전시는 전시콘텐츠의 예술적 승화와 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해 방문자들로 하여금 ‘걸어다니는 극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극장성’ 이야말로 유럽 및 아시아, 국내의 여타 전시관과 비교할 때 본 기념관이 갖는 가장 큰 차별점이다.

4. 전략

가. 콘텐츠 내적: 전시, 스토리

완벽한 그리스 비극의 구조를 지닌 80년 5월 열흘간의 광주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현이 아닌 은유와 상징을 통해 예술적 승화가 이뤄진 전시 콘텐츠를 생산한다.

나. 콘텐츠 외적: 공간, 디자인

공간의 극성을 최대한 살린 건축 공간 속에 극장성을 지닌 전시실을 배치함으로써 방문자들의 몰입과 자발적 감성/상념을 유도한다.



| 그림 27. 공간과 콘텐츠

IV. 전시 콘텐츠

1. 전시 개념
2. 명칭 문제
3. 전시 콘텐츠안

IV. 전시 콘텐츠

1. 전시 개념

■ 劇的 전시

5·18의 드라마틱한 서사가 만드는 극장성(theatricality)을 모든 공간과 콘텐츠 및 전시방식의 원리로 삼는다. ‘걸어 다니는 극장’ ; 관람자는 이미 미장센에 참여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 비움·응축·암시가 만드는 은유

물성(物性)과 Virtual as Medium-Specificity을 부각하여, 관람자에게 설명하거나 의미를 강제하지 않고 즉물적 은유에 의해 관람자의 감성이 스스로 일어나게 만든다.

■ 체험하고 참여하는 ‘능동적 박물관’ 전시

- 오브제 자체보다는 그것이 놓인 공간을 체험케 한다.
- 기술[인터랙티브]은 최대한 숨긴다. 오직 작용과 반영에 의해 관람자는 공간의 무대적 환영에 흡수된다.

■ 강렬한 서사 콘텐츠를 통해 ‘사로잡는’ 동선

- 밥과 피를 서로 나누고 도둑 하나 없던, 광주와 열흘간의 이야기는 만인의 감동을 자극한다.
-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도, 19c 파리 코뮌에도, 20c 러시아 혁명에도 없는 절대공동체로서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 마지막 새벽 도청 창가에 선 사람들, ‘어떤 한계를 초극(超克)한 사람들’

[山地剝卦 上九]을 열사나 영웅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휴먼드라마로 보여 준다.

- 서사는 동선 속에 내재화시킨다.

■ 아시아적 지평

광주 서사는 20세기 피압박 역사경험과 민주화운동 경험을 공유하는 아시아
· 아프리카 · 남미 여러 나라에 감성적 공명(共鳴)의 경로를 만든다.

2. 명칭 문제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전시공간의 명칭은 전시 주제와 콘텐츠에 의해 경찰청 본관은 ‘민주관’ [제1전시관], 경찰청 민원실은 ‘평화관’ [제2전시실], 도청본관은 ‘인권관’ [제3전시실]으로 칭하기로 한다.

이는 공교롭게도 본 기념관의 이념적 지표인 민주, 평화, 인권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도청회의실 건물은 ‘러닝센터’라 부르기로 한다. 상무관은 메모리얼 홀이다.

그러므로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을 일괄적으로 구성하는 동선은 1) 민주관, 2) 평화관, 3) 러닝센터, 4) 인권관, 5) 메모리얼 홀, 5) 광장 5·18을 지나간다.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이라는 명칭은 나열적이고, 설명적이고, 길고, 부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문명 ‘5·18기념관’ 영문명 ‘Memorial 5·18@Gwangju’으로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3. 전시 콘텐츠안

가. 민주관 : 제1전시관 [경찰청본관]

민주주의(民主主義)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 및 정치사회 체제를 뜻한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희랍어의 ‘demokratia’ 라는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는 ‘demo(국민)’ 와 ‘kratos(지배)’ 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국민의 지배’ 를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귀족제나 군주제, 혹은 독재체제와 반대된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두 가지는 첫째,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둘째, 국가권력의 전제화를 억지할 수 있는 주요한 정치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5·18 광주민주화항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핵심가치는 바로 이러한 ‘민주’ 다. 국가가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적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권력과 군사력을 동원해 권력의 주인인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살을 자행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반기를 들고 시민들이 일어나 빼앗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국가에 의해 주어진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쟁취한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5·18 광주민주화항쟁에서 발견되는 ‘민주’ 의 의미는 그만큼 값지다 하겠다.

민주관은 총 여덟 개의 전시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다. 방문자들을 지금-여기의 시공간에서 80년 5월의 광주로 옮겨놓는 ‘입구 로비’ 와 장소에 대한 입문 의식을 치르게 하는 ‘오래된 연못’ , 80년 5월 18일의 광주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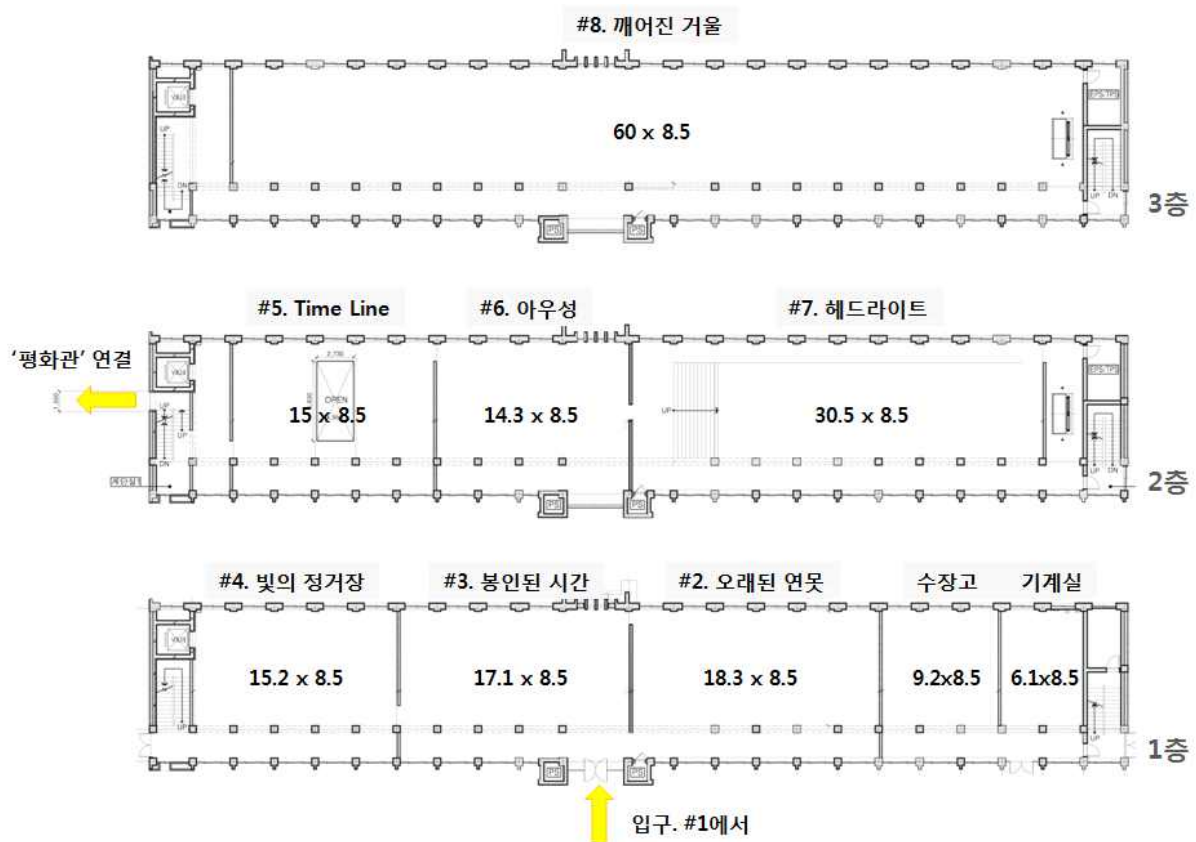
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궤적을 좇는 ‘오렌지 시계’와 5월 광주의 발화지점이었던 15일 촛불성회를 예술적으로 재현한 ‘빛의 정거장’, 5월 16일부터 25일까지의 상황 전개를 알려주는 ‘Time Line’, 평범한 사람들의 말 속에 비친 그날의 목격담을 모티프로 한 ‘아우성’, 5월 20일 금남로 차량시위를 환상적으로 체험하는 ‘헤드라이트’와 21일 집단발포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는 ‘깨어진 거울’에 이르기까지, 민주관에서 우리는 권력의 진짜 주인이었던 ‘사람들’을 본다. 그들의 존재가 바로 민주주의다.

■ 민주관 전시콘텐츠 구성

구분	전시콘텐츠	주제
#1	입구로비	광주민주화운동의 공간으로 Shift
#2	오래된 연못	Introduction & 장소에 대한 入門義式
#3	봉인된 시간	1980년 5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일들
#4	빛의 정거장	분수대 집회 : 5월 15일 민주화 요구 시민 촛불성회
#5	Time Line	5월 16일부터 25일까지의 상황 전개 inform
#6	아우성	5월 18일, 19일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사건 목격
#7	헤드라이트	5월 20일 금남로 차량시위 [광주서사의 제1번곡점]
#8	깨어진 거울	5월 21일 금남로 집단발포 상황 [광주서사의 제2번곡점]

* [#1 입구로비]는 11월 기술자문회의에서 경찰청본관과 도청본관 사이 중정에 조성 중인 ‘방문자서비스센터’로 이동하기로 결정하였다.

■ 민주관 공간계획



■ #1 입구로비

일상의 공간에서 5 · 18 광주민주화운동의 공간으로 이동/전환하는 공간. 방문자들은 이곳을 통해 지금-여기의 시공간에서 80년 5월의 광주로 일종의 시간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 여정은 즐겁고 신나는 경험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몰랐던 사실도, 마주하기 어려운 고통도 발견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여행이 우리를 처음 떠난 곳과는 다른 지점으로 데려다 놓을 거라는 것이다.

■ #1 입구로비 초기 콘텐츠 개요

구분	민주관 지상 1층
파티션/공사	11m x 11m (26평) / 목재 인테리어
전체 색조	중성적 심플 톤 (white sense)
공간 액센트	천정에 추상적인 상징(아이캐취) 설치
기능	인포데스크 : 방문자 서비스 각국어 오디오 해설기, 브로셔 및 책자 가이드(시민자원) 및 노약자 도우미 소개

■ #1 입구로비 초기 개념삽화



■ #1 입구로비 수정 콘텐츠 개요

구분	방문자서비스센터
파티션/공사	
전체 색조	중성적 심플 톤 (white sense)
공간 액센트	천정에 추상적인 상징(아이캐취) 설치
기능	인포데스크 : 방문자 서비스 각국어 오디오 해설기, 브로셔 및 책자 가이드(시민자원) 및 노약자 도우미 소개

■ #1 입구로비 수정 개념도



■ #2 오래된 연못

Prologue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일어났던 광주민주화항쟁, 그 봉인된 시간 속으로 관람객을 초대하는 공간. 정사각형의 디지털 연못 위에 작은 물고기들이 떼 지어 다니며 놀고, 허공에는 홀로그램 나비들이 날아다닌다. 방문자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파문이 동심원을 그리며 수면에 퍼진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일종의 입문의식(入門儀式)을 치루며 〈열흘간의 나비 떼〉라는 새로운 차원의 서사공간으로 진입한다.

아주 조용하고 평온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지만, 아무 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서 생기는 고요함은 아니다. 우리는 연못이 지내온 시간, 지금 연못 아래의 작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움직임과 작용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대신 나비와 물고기들이 한가롭게 노니는 모습에서 평온을 느낀다.

연못의 어느 한 부분을 밟는 순간 방아쇠가 당겨진다. 물고기들이 달려들고 수면이 흔들리더니 피가 흩뿌려진다. 5 · 18은 그렇게 일어났다. 움직임이 잦아들고 피가 희석되면서 연못은 다시 고요한 모습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흔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 남아 연못 곳곳에, 연못 주위를 흐르는 공기 속에 봉인되어 있을 것이다.

■ ‘#2 오래된 연못’ 콘텐츠 개요

구분	민주관 지상 1층
목적&기능	introduction & 장소에 대한 入文義式
공간 파티션	18.3 x 8.5 m, 육면 밝은 블루 박스 바닥: 디지털 연못 5m x 5m 설치

조명	실내 육면 전체에 푸른 대기감
가용기술	interactive LED floor & 홀로그램, 음향
전시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 유리강판에 정사각형 디지털 연못, 작은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며 놀고 있다. - 푸른 오래된 연못, 허공에 나비들이 날아다닌다. (홀로그램 동영상) - 방문자들 발 달은 데마다 파문이 동심원을 그리며 수면에 퍼진다. (촉각-인식 센서) - 중앙 센서 지점을 밟으면, 사각지대에 숨어 있던 큰 물고기들 센서 작동: 철판덕 물 튀기는 소리[S.E]와 함께 방문자를 향해 달려든다. 수면이 흔들리고 물 튀기는 소리 커지고, 방문자 발 밑, 핏물이 번진다. - 중앙 제2실 입구 상단: “광주, 봉인된 시간 / 1980년 5월 18일 - 27일” [네온 글자 한글/영문]

■ 실제 전시 캡션(안)

<p>광주, 봉인된 시간</p> <p>1980년 5월 18일-27일</p> <p>Sealed Time, Gwangju</p> <p>May 18-27, 1980</p>
--

■ ‘#2 오래된 연못’ 개념삽화



■ #3 봉인된 시간

광주로 향하는 세계의 날갯짓

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나기 전, 1980년의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그해 5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광주와 완전히 어긋나 있기도 하고 동시에 묘하게 맞물려 있기도 하다. 크고 작은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혼돈이론의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 광주로 향하는 어두운 미로를 따라 걸으며, 발밑으로 저벅거리는 자갈 소리와 함께 관람객들은 세계 각지에서 펼쳐졌던 서로 다른 빛깔의 날갯짓들과 조우한다.

봉인된 시간은 항쟁 이전까지의 겨울공화국을 상징한다. 이 암울한 시간의 봉인을 푼 열쇠가 바로 광주민주화항쟁이다. 봉인이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작은 공간에 담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는 일이듯, 항쟁 이전의 겨울공화국은 민주화라는 시민의 열망을 억제하고 빼앗으며 숨기려 했다. 민주 · 평화 · 인권이라는 가치는 독재라는 철제 상자에 갇혀 숨을 쉴 수 없었다. 사람들은 갖가지 열쇠로 이 상자를 열어보려 했으나 모두 허사였다.

열쇠를 찾는 여정 뒤로 시간이 흘러간다. 봉인의 주위를 감싸고 흐르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사건들, 유의미한 신호와 무의미한 잡음이 모두 음파의 형태를 띠듯 소식들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그러는 와중에도 미로 속에 열쇠로 향하는 하나의 길이 그려진다. 부산, 마산, 그리고 서울을 거쳐 발걸음이 광주로 옮겨진다. 봉인이 풀리기 직전이다.

■ #3 봉인된 시간' 콘텐츠 개요

구분	민주관 지상 1층
주제	1980년 5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일들
공간 파티션	- 17.1 x 8.5 m, 콘크리트 벽 미로 - 바닥: 검은 자갈
조명	암전 상태에서의 벽의 텍스트에만 핀조명
전시콘텐츠	- 콘크리트 미로 속 어둠. 방문자의 자갈 밟는 소리가 어떤 암시를 느끼게 해야 한다. - 레이블링 텍스트(5월의 세계 시사: 한글/영문)가 지구적 지평에서 '광주'로 가는 경로들을 위치시킨다. - 벨그라데, 뉴욕, 뮌바이, 프놈펜, 하노이, 부산, 서울, 광주

■ 실제 전시 캡션(안)

1980년

■ 벨그라데, 5월 4일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티도 죽다. 140개국 외교조문단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다.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 다음으로 가장 많은 조문 인파였다.

■ 런던, 5월 5일 주런던 이란대사관에 영국 육군 특수부대 SAS 침투. 6일간 대사관을 검거하고 있던 6명의 반 호메이니파 테러리스트 중 5명을 사살하고 19명의 인질을 구출하였다. 작전명 님로드(Operation Nimrod).

■ 세계보건기구(WHO), 5월 8일 천연두 박멸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다. 수천 년간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천연두는, 이로써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멸종된 감염질환이 되었다.

■ 미국 플로리다 주, 5월 17일 마이애미 폭동 발발. 발단은 1979년 12월 16일 새벽, 흑인 보험중개업자 아서 맥더피가 빌린 모터사이클을 타고 귀가 도중 백인 경찰에게 이유 없이 곤봉으로 두드려 맞아 나흘 뒤 사망한 사건이었다. 이날 탬파 힐스로 법정에서 백인경찰에게 무죄가 선언되자, 이에 격분한 흑인들은 오후 6시 20분 폭동을 일으켰다. 사흘간 지속된 이 폭동으로 백인 8명, 흑인 10명이 사망하였고, 855명이 체포 및

구금되었다.

- 중국, 5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성공.
- 미국 워싱턴 주, 5월 18일 세인트헬렌스 화산 폭발. 반경 10킬로미터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모두 57명이 사망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30억불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500배가 넘는 위력으로 인해 산의 높이가 400미터 낮아졌다.
- 퀘벡, 5월 20일 캐나다로부터의 독립을 묻는 투표에서 60%의 의견으로 반대.
- 미국 전역, 5월 21일 <스타워즈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 개봉. 평단과 대중 모두로부터 시리즈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을 얻었다. 악의 핵심 다스베이더의 입에서 <스타워즈> 시리즈 전체를 응축하는 궁극의 2형식 문장이 등장했다: "I'm your father."
- 도쿄, 5월 22일 <팩맨(Pac-man)> 출시. 미로 속에서 노란 입 모양의 캐릭터 팩맨을 움직여 몬스터를 피해 쿠키를 먹는 것이 목적인 이 게임은, 2005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아케이드 게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원래 제목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픽맨(Puck-Man)>이었다.
- 파리, 5월 3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노트르담 대성당 앞뜰에서 미사를 집전. 뜰 한쪽에 핀 분홍 장미 위로 이슬이 맺혔다.

1979년 부마항쟁

- 서울, 5월 3일 신민당 전당대회 개최. 온건파 이철승이 패배하고 강경파 김영삼이 당선되었다.
- 서울, 8월 11일 YH사건 발생. 가발수출업체 YH무역의 여성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조치에 항의하여 신민당 당사 앞에서 농성시위를 벌인 사

건. 11일 새벽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1명이 추락사하였고, 여성 근로자 10여명, 신민당원 30여명, 취재기자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신민당 대표 김영삼은 상도동 자택으로 강제로 끌려 나갔다.

- 서울, 10월 4일 여당인 공화당이 날치기로 신민당 대표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

- 부산 . 마산,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발생. 부산대학교 학생 5,000명이 “유신정권 물러가라”, “정치탄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내에서 시위를 시작하였다. 저녁이 되자 이들은 시내로 진출했다.

- 부산, 10월 17일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시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충무파출소, KBS, 서구청, 부산세무서 등이 파괴되고 경찰차량들이 전소되거나 파손되었다.

- 부산,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유신정권은 계엄군을 투입해 1,058명을 연행하고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 마산, 10월 19일 마산대학교와 경남대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민주공화당사와 파출소, 방송국 등을 타격했다.

- 마산, 10월 20일 근로자와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합세했다. 정오를 기점으로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이 선포되고 군이 출동했다. 민간인 59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 서울,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1980년 서울

- 서울, 5월 10일 중앙정보부는 일본 내각조사실의 첩보를 토대로 대북 특이동향을 경고하는 보고서 ‘북괴남침설’을 작성. 이후 5월 12일 심야

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 서울, 5월 11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북괴남침설' 첩보가 가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서울, 5월 12일 신민당과 공화당 양당 총무들은 개헌안을 접수하고, 비상계엄 해제 등의 정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5월 20일 10시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 서울, 5월 13일 주한미군사령관 존 위컴은 '북괴남침설'은 근거 없으며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흘린 구실에 불과하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같은 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괴남침설'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입수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 서울, 5월 15일 서울역 앞에 10만 명의 인파 집결. 계엄령 하에 억눌렸던 대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계엄 해제와 민주화 추진을 요구했다. 제 2의 4. 19가 일어나기 직전, 마이크로버스 안에서 이뤄진 지도부 회의 끝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해산을 발표했다. 이른바 '서울역 회군'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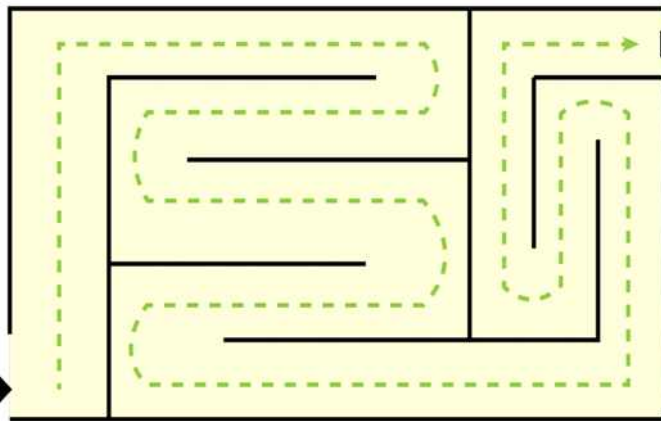
- 서울, 5월 17일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대한민국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계엄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령, 언론보도 검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전국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정치인과 재야인사 수천 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 서울, 5월 20일 국무총리 신현확 사임. 신군부가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전국적인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강요하자, 이에 무력감을 느끼고 사임했다. 동시에 내각 역시 총사퇴했다.

- 서울, 5월 24일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사망. 그는 1월 28일 육군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이 날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집행되었다.

- 서울, 5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3 봉인된 시간’ 전시 공간 기본 계획



항쟁 이전까지의 서울공화국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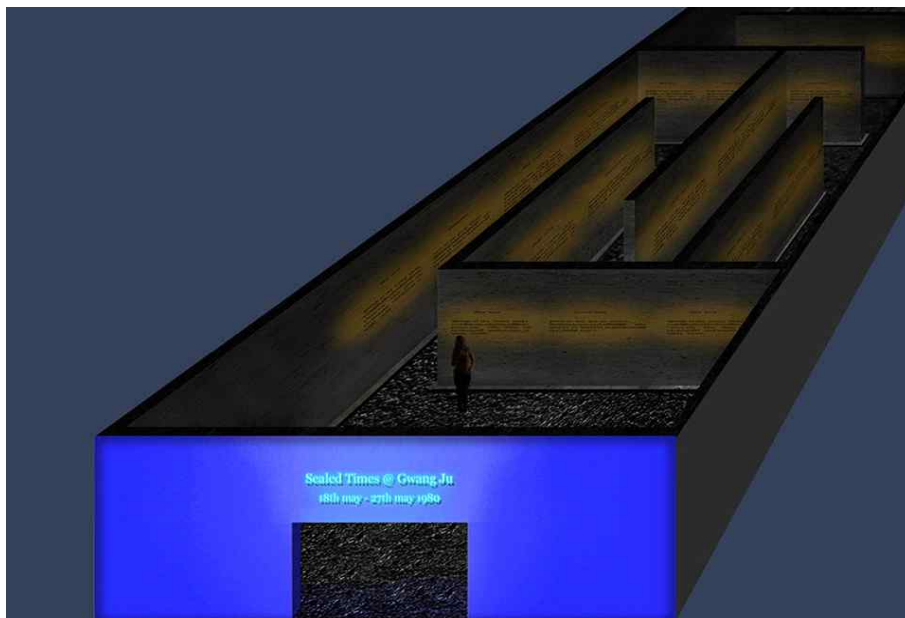
항쟁 직전 같은 시각 세계 각지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기록한다.

콘크리트 벽으로 미로를 형성하고, 벽에는 세련된 타이포그래피로 라벨링이 되어 있다.

전시실 마지막 부분은 부산, 마산, 서울로 구성되어 당시 해당 지역의 항쟁과 5.18의 연결을 부각한다.

이를 통해 다음 전시인 빛의 정거장으로 전시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 ‘#3 봉인된 시간’ 개념삽화



■ #4. 빛의 정거장

하늘보다 눈부신 땅

1980년 5월 16일, 도청 앞 분수대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햇불 성회가 열렸다. 단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 서보지 못했던 인생들이 햇불을 들고 분수 곁에 선 순간, 그들의 목소리는 물처럼 솟아오르고 빛처럼 퍼져나갔다. 하늘보다 눈부신 땅에 빛이 머물렀고, 가장자리의 삶은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 관람객들은 분수대 둘레에 선 수많은 벽수들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빛고을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도한다.

벽수는 마을 앞을 지키고 악귀와 질병, 액운을 쫓는 상징물이며 민중문화를 대표하는 조형물이다. 이곳에서는 형태가 뭉개진 벽수가 당시 분수대를 가득 메웠던 이들의 자리를 채운다. 외부의 충격과 시간으로 인해 상처 입고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마을 입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벽수처럼, 민주주의를 위해 모였던 그날의 사람들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오롯이 지키고 있다.

〈빛의 정거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이미지다. 분수대 사건은 흐름상으로는 5·18의 새벽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천정(zenith)이다. 분수대에서 뿜어 나오는 빛은 공간 전체를 비추며 천정의 당시 광주시 모형까지도 부드럽게 감싼다. 빛은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춘다. 관람객은 분수대 주변을 돌며 당시의 열기와 열망에 대한 상념에 잠기고, 주위를 감싸는 은은한 빛의 온기를 받는다.



| 그림 28. 촛불성회 당시 모습



| 그림 29. 나주 불회사 석수

■ ‘#4 빛의 정거장’ 콘텐츠 개요

구분	민주관 지상 1층
주제	분수대 집회 : 5월 15일 민주화 요구 시민 촛불성회
공간 파티션	- 15.2 x 8.5 m, 딥블루 박스 - 분수대 제작
조명	질은 세피아 조명 상태에서 분수대 주위 조명장치
전시콘텐츠	- 전시실 중앙에 광장 분수대와 빛을 재현한다. - 분수대 둘레의 시민 군상들을 형태가 뭉개진 ‘석수’ 석물들로 동심원으로 설치한다. - 천정에 2층 제4실 중양을 뚫어서, 거꾸로 뒤집힌 광주 市街모형이 내려와 보여야 한다.

■ ‘#4 빛의 정거장’ 개념삽화



■ #5 Time Line

폭력극장의 시간표

1980년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광주에 하나의 폭력극장이었다. 국가권력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고 파괴했으며,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곳에서 관람객은 시간 순에 따른 상황 전개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감실 안을 들여다봄으로써 당시의 광주를 훑쳐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바닥 중앙 개구부에는 광주 모형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서 키네틱 조형물이 불길한 운동을 계속한다. 광주의 시간은 마치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 결말을 향해 빠르게 전진 중이다.

중앙 아래의 도시모형은 이전 전시 〈빛의 정거장〉에서 본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올려다본 도시와 위에서 내려다 본 도시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관람객은 같은 공간의 의미가 위치와 관점에 따라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느낀다. 수직적 시선을 획득하는 순간 대상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감실에서 당시의 주요장면이 담긴 사진을 보는 행위는 키네토스코프를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하다. 여러 사람이 개방된 공간에서 한 화면을 바라보는 뒤편에 르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와는 전혀 다른 경험이다. 여기서 관람객은 빛을 차단하는 도구를 뒤집어쓰고 오직 한 사람씩만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폭력을 관음하는 순간 우리는 비밀한 목격자가 되고, 가해자의 죄책감과 피해자의 고통을 공유하며, 마침내 사건의 일부가 된다.

■ '5 Time Line' 콘텐츠 개요

구분	민주관 지상 2층
주제	5월 16일부터 25일까지의 상황전개 inform
공간 파티션	- 15 x 8.5 m - 화이트박스에 작은 龕室들. 8 pairs - 바닥 중앙에 3.5m x 3.5m 開口
조명	천정 중앙에 세피아 톤 일직선 조명등
전시콘텐츠	- 좌우 벽면 감실에 주요 장면들을 홀로그램으로 보여준다. - 바닥 중앙 개구부에 광주 市街모형이 내려다보이게 설치한다. - 시가 모형 위에 추상적인 키네틱 조형물 설치 (예. 헬기, 새, 구름)

■ 실제 전시 캡션(안)

May 16-25, 1980, Gwangju
1980년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5월 16일 금요일 이전

-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대학생 수십만 명이 모여 서울역 광장 주변에서 집회.
- 5월 15일 대학생 단체 간부들에 의해 경찰 출동 소식을 사전에 접하고 서서히 해산.

5월 17일 토요일

- 21시 40분: 비상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의결.
- 22시 00분: 민주인사, 복적생, 학생운동 지도부 등 예비 검속 실시.
- 24시 00분: 5월 17일 24시부터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신군부 계엄포고 제10호를 통해 정치활동 금지, 언론검열 강화, 대학교 휴교령 선포. 주요 도시의 각 대학에 계엄군 진주. 전주 전북대에 주둔한 계엄군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까지도 잡아들여 폭행. 이 과정에서 대학생 사망자가

1명 발생. 전북대 농학과 2년 이세종(당시 21세)은 5월 17일 12시께 계엄군에 쫓기다 전북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추락사).

5월 18일 일요일

- 01~02시경: 보안사령부(사령관 전두환)가 김대중 등 재야 인사와 김종필 등 공화당 지도자를 체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점령. 국회 기능 마비.
- 09시 40분: 계엄군에 의해 전남대 학생 50여 명이 교문 앞에서 등교 저지 당함.
- 10시 00분: 전남대학교 주둔 계엄군을 상대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계엄 해제하라", "휴교령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임.
- 10시 15분: 계엄군(공수부대원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항의 시위 진압.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짐. (첫 번째 부상자 발생)
- 10시 20분: 전남대학교 교문을 지키고 있던 공수부대와 외부에서 학교로 출입하던 대학생 간 충돌 발생. 공수부대의 대학생 구타에 자극받은 대학생들 800여 명이 교문에 배치된 7공수부대원들을 향해 돌을 투석, 일부 학생들이 교문을 벗어나 광주 금남로로 이동.
- 11시 00분: 전남대 300여 명 가톨릭 회관 집결,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해산시킴.
- 12시 00분: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옴.
- 15시 40분: 금남로 유동 삼거리에서 계엄군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로 추정되는 시민들을 잡아다가 구타 및 현장 체포함. 광주 공용터미널에서 청각장애인인 김경철이 계엄군에게 전신 구타 당함.
- 19시 02분: 계엄사령부, 통행금지령 확대 국내외 방송을 통해 통행금지 시간을 저녁 9시로 당긴다고 발표.
- 20시 00분: 공수부대의 무차별 구타에 불안, 흥분한 시민들 자발적으로 학생들에게 동조.
- 21시 00분: 계엄사령부 사령관 이희성 명의로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해산 경고문 발표.

5월 19일 월요일

- 03시 00분: 11 공수여단이 증원군으로 광주 도착(청각장애인 김경철 병원에서 사망 - 두 번째 희생자).

- 09시 30분: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임동, 누문동 파출소 방화
- 10시 00분: 시민들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원들과 투석전 전개. 11공수여단 위력 시위 이후 착검한 상태로 진입, 대검으로 인한 자상자 발생. 11공수여단 약 천여 명이 강경 진압을 강행했고, 3~4명이 한 조가 돼 골목마다 누비며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행.
- 14시 40분: 조선대학교로 철수했던 공수부대가 다시 투입돼 무리한 진압작전 전개.
- 15시 00분: 시내 기관장과 유지들, 회의를 하고 시위 진압을 완화해 달라고 계엄사령부에 건의.
- 16시 30분: 계림 파출소 근처에서 조대부고 고등학생 김영찬이 총격 부상을 당함(최초의 실탄 사격).
- 20시 00분: 시민들이 시위대 합류. 수만 명이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침.

5월 20일 화요일

- 08시 00분: 고등학생들의 참여에 자극받은 정부는 문교부를 통해 광주 시내 및 전라남도 광산군, 나주군 일대 고등학교에 휴교 조치 하달.
- 10시 20분: 가톨릭 센터 앞에서 남녀 30여 명이 속옷만 입은 채 끌려나와 마구잡이 구타 당함. 공수부대와 시민 사이에 공방전 계속.
- 18시 40분: 택시 및 버스 200여 대가 금남로에서 도청을 향해 차량 경적 시위.
- 20시 00분: 택시 및 버스 200여 대가 계엄군 및 공수부대원의 진입을 가로막음.
- 20시 10분: 시위대, 도청으로 서서히 이동. 금남로, 충장로 등에서 택시와 차량에 가로막힌 공수부대 및 경찰과 대치.
- 20시 00분: 3공수, 11공수 여단장 실탄 분배 지시 (3공수여단장 실탄 장착 지시, 11공수의 경우 61대대, 62대대가 각각 1,000여발씩 분배)
- 21시 00분: 택시 200여 대와 버스들은 진입로를 차단, 공수부대 및 경찰과 충돌. 일부는 우회해서 감.
- 21시 05분: 노동청 쪽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해 경찰 4명 사망.
- 21시 50분: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 보도한 광주 MBC 건물 방화.

- 23시 00분: 광주역 광장에서 계엄군 발포. 시민 김만두, 김재화, 이복일, 김재수 사망. 시민 수십 명 부상.

5월 21일 수요일(부처님 오신 날)

- 00시 35분: 노동청 방면에서 군중 2만여 명이 계엄군과 공방전 전개, 광주역에서 철수하던 계엄군, 대검과 곤봉 등으로 시위대 2명 살해. 계엄군 측 부상자 5명으로 보고.
- 02시 18분: 시외전화 두절.
- 04시 00분: 시민들이 광주역 광장에서 사망한 시체 2구를 손수레에 싣고 금남로에 등장.
- 04시 30분: 광주 KBS 건물 방화.
- 08시 00분: 시위대, 광주공업단지 입구에서 진압 명령을 받고 투입된 20사단 병력과 충돌.
- 10시 00분: 시민들이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군용 트럭, 장갑차 획득.
- 10시 15분: 도청 앞, 실탄을 지급받은 공수부대원을 맨 앞으로 배치함.
- 11시 10분: 대형 헬기가 도청광장에 도착.
- 12시 10분: 전남대 진출을 시도한 시위대가 전남대 앞에 배치된 공수부대원들의 저지에 밀려 신안동 굴다리까지 1km 후퇴. 공수부대의 진압 도중 시민 4명 사망.
- 12시 59분: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몰고 온 장갑차 1대가 도청광장으로 기습 진출.
- 13시 00분: 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가 시작됨.
- 13시 20분: 청년들이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의 집중사격을 받고 계속 쓰러짐, 이때부터 공수부대원들이 주요 빌딩에 올라가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 시작.
- 14시 00분: 시위대가 전라남도 나주, 화순 등지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 무장 시작.
- 14시 15분: 도지사, 경찰 헬기에서 시위 해산을 종용하는 설득 방송.
- 14시 40분: 시민들이 지원동의 탄약고에서 TNT 입수.
- 15시 48분: 공수부대원들이 주요 빌딩 옥상에서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

- 16시 00분: 화순, 나주 지역에서 무기 획득한 시위대들이 도청 앞에서 시가전 전개.
- 16시 43분: 학생들, 전남대병원 옥상에 M2 중기관총 2대 설치.
- 17시 30분: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도청에서 조선대학교로 철수, 3공수여단은 광주교도소로 철수.

5월 22일 목요일

- 광주 시내가 계엄군에 의해 고립됨.
- 09시 00분: 도청광장과 금남로에 시민들 집결.
- 10시 30분: 군용 헬기 공중 선회하며 "폭도들에게 알린다"는 내용의 전단 살포.
- 11시 25분: 적십자병원 헌혈차와 시위대 지프가 돌아다니며 헌혈 호소.
- 12시 00분: 도청 옥상의 태극기가 검은 리본과 함께 반기 게양.
- 13시 30분: 시민수습위원회 대표 8명이 상무대 계엄 분소 방문, 7개 항의 수습안 전달.
- 15시 58분: 시체 18구를 도청광장에 안치한 채 시민대회 개최.
- 17시 18분: 수습위 대표, 상무대 방문 결과 보고.
- 17시 40분: 도청광장에 시체 23구 도착.
- 18시 00분: 20사단이 통합병원 진입로 확보를 위해 1km 전진하며 사격, 작전 중 지역 주민 8명 사망.
- 19시 00분: 동양방송 라디오(현 KBS 제3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 기상도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중간조사 결과 뉴스 보도.
- 21시 30분: 박충훈 신임 국무총리, "광주는 치안 부재 상태"라고 방송.

5월 23일 금요일

- 08시 00분: 학생들, 시민들에게 청소 협조 호소.
- 10시 00분: 시민 5만여 명이 도청광장에서 집회.
- 10시 15분: 수습위 무기 회수반을 조직해 총기 회수 작업 시작.
- 11시 45분: 도청과 광장 주변에 사망자 명단과 인상착의 벽보 게시.
- 13시 00분: 지원동 주남 마을 앞에서 공수부대가 소형버스에 총격, 17명 사망.

- 15시 00분: 제1차 범시민 쫓겨대회 개최, 계엄사의 '경고문' 전단이 시내 전역에 살포.
- 19시 40분: 최초 석방자 33명 도청광장에 도착.

5월 24일 토요일

- 13시 20분: 11공수부대, 원제 마을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소년들에게 사격. 4명 사망.
- 14시 20분: 송암동에서 11공수부대와 전투교육사령부 부대 사이에 오인 총격전 발생 9명 사망 40여명 부상, 오인 총격전 직후 공수부대원이 주변 민가를 수색해 마을 청년 4명 처형.
- 14시 50분: 제2차 민주수호 범시민 쫓겨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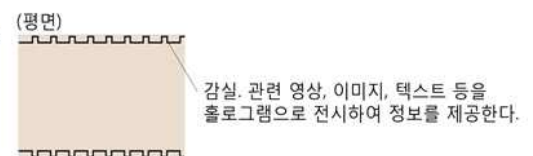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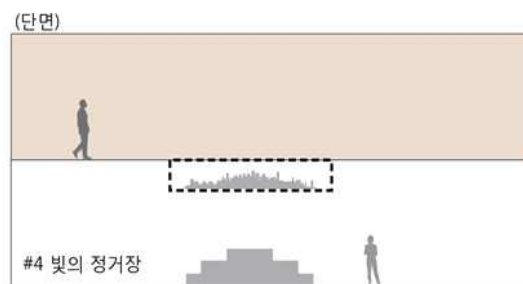
5월 25일 일요일

- 11시 00분: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메시지와 함께 광주민주항쟁 구호대 책비 1천만 원 전달.
- 15시 00분: 제3차 민주수호 범시민 쫓겨대회 개최.
- 17시 00분: 재야 민주인사들, 김성용 신부의 4개항 수습안에 대해 만장일치 채택.
- 21시 10분: 학생수습대책위원들, 범죄 발생 예방과 식량 공급 청소 문제 등 논의.

■ ‘#5 Time Line’ 개념삽화



■ ‘#5 Time Line’ 공간계획



5전시실 바닥 중앙에 광주시의 모형(3.5m x 3.5m)을 설치한다. 당시 광주 전체의 물적 컨텍스트를 제공하고, 관람객이 도시를 굽어보는 느낌을 받게 한다.

이 모형은 아래층에 있는 4전시실 빛의 정거장에서 올려다 보이며, 두 층으로 나뉜 두 전시실을 엮는다.

■ #6 아우성

그날에 나는 보았네

말, 말, 그리고 말. 그날 광주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친구와 낚시를 하러 가다가, 햇살이 아까워 빨래를 널다가, 혹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다가 무엇에 홀리듯 사건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 관람객들이 걸어가는 동안, 이들의 말이 거대한 벽면을 따라 춤추듯 흐르다 흩어지다 무리를 지어 사라진다.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어떤 형상이 되어 어둠 속으로 날아간다.

일상성이라는 렌즈는 우리가 어떤 공간이나 사건을 이해하고자 할 때 종종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어떤 도시의 모습을 파악할 때 보통은 지도와 건물자료, 조감도, 이와 관련된 숫자들이 분석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이 공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거리마다 어떤 사람들이 다니며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다.

일상성을 바탕으로 한 기록은 쉽게 흩어지고 지워진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대화는 기록으로 남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동시에 사용빈도와 의존도가 가장 높은 수단이라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아우성>은 예술과 기술의 결합체인 미디어아트를 통해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바로 이러한 일상의 대화들로 재조명한다.

■ ‘#6 아우성’ 콘텐츠 개요

구분	민주관 지상 2층
주제	5월 18일, 19일.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사건 목격
공간 파티션	14.3 x 8.5 m / 화이트박스
조명	공간 전체에 세피아 톤
가용기술	Words Play (알고리즘 기술) + 센서
전시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에 텍스트[좌: 한글 / 우: 영문]가 흘러내린다. - 방문자가 다가가면 문자들이 깜빡 놀라 들어진다. - 들어진 문자들이 물고기 형상이 되어 달아난다. - 다시 벽면에 텍스트가 흘러내린다.

■ 실제 전시 캡션(안)

- "그날 친구랑 낚시하러 간다고 공용터미널로 갔지요. 그랬는데 갑자기 찌그서..."
- "그날 오후에 햇살이 하도 아까와 갖고 베란다에 빨래 널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허드란 말이요."
- "머시냐 낚밥 먹고, 광주공원 다리를 슬렁슬렁 건너가고 있었제. 근디 그때게 찌어그 다리 아래서..."
- "워매, 도청에 난리났소. 남학생 둘이 총에 맞고 쓰러진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왔소!"
- "친정집에서 이틀을 자고 돌아와 금남로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소. 어이, 나 총 맞았나보네, 하면서..."
- "반찬값 정도나 벌 생각으로 일당 3천원짜리 누에고치에서 실 뽑는 일을 하고 있었제.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나갔다가 점심 먹으러 집에 들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오더니 그러는 것이여. 우리 형관이가 백운동 근처 철독에서 총에 맞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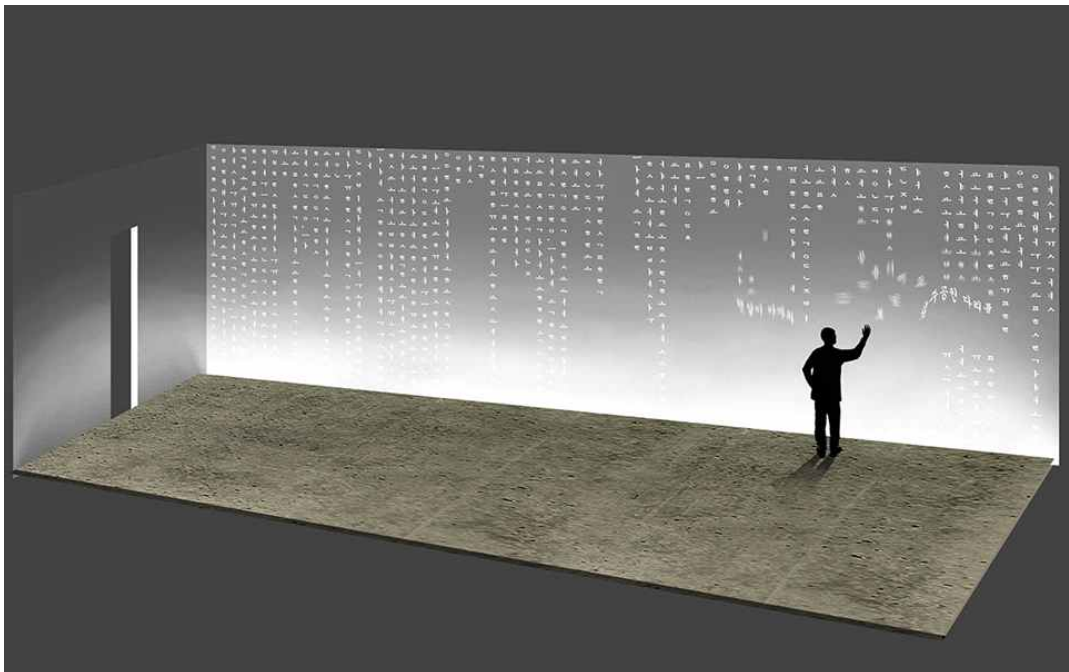
- "예끼 이 사람아, 밖에 나가기만 하면 찢어버린다 안 하더라고."
- "금남로 5가에 있는 모르키테일러 살롱이라는 양복집에 가봉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소. 시위 때문에 1번 버스가 다니지 않아 걸어가고 있는데 대한극장 앞에서 누군가 뒷목을 곤봉으로..."
- "너, 형 어디다 숨겼어?"
- "삼양백화점 건너편 충일당구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당구에 한창 열중하고 있었지요. 오후 4시쯤 마지막 게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군인 2명이 당구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우리 중 손이 더러운 사람을 골라 한쪽으로 몰더니..."
- "미국에서 내일 모레 나온담서?"
- "그날은 권투선수 박찬희가 5차 방어전을 하는 날이라 손님들과 TV 앞에 앉아 있었소. 소란스런 소리가 나 셔터문을 내리기 위해 나갔는데 어디서 쫓아왔는지 공수부대가 '문 열어!' 소리와 함께 군화발로 문을 걷어차고는..."
- "이 길은 위험하니 다른 골목으로 가쇼."
- "대학생 아들 있소?"
- "신혼 5개월이라 텔레비전을 사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광남로 쪽으로 가고 있었지요.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이리 오라고 하더니, 신분증을 보지도 않고 서너명이 달려들어 머리, 어깻죽지, 팔 다리를..."
- "물, 물..."

- "김치를 담그려고 배추를 절여놓고 대인시장으로 나갔어요. 밖은 소란해도 시장은 집이랑 가까우니까... 근데 동문다리쯤 갔을 때 사거리 쪽에 있던 공수부대원들이 갑자기 내 쪽으로 달려와서는..."
- "부마사태 때도 진압을 했는데 부산 사람들은 총 쏘면 도망갔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어찌 된 건지 더 달라붙는 것 같아요."
- "왜 그렇게 때린대요?"
- "점심시간이라 사무실에서 직원 일곱 명이 라면을 먹고 있었제. 근디 갑자기 학생들이 다급하게 뛰어들어 오더라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곧 이어 몽둥이를 든 7, 8명의 공수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라면을 군화 발로 차버리고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을 사정없이..."
- "가지 마시오, 괜히 다칠까 무섭소."
- "내가 대신 맞을 테니까, 그만 좀 때리시오."
- "불구경을 하다가 굴레방다리 아래쪽을 보니까 광성여객 버스 한 대가 멈춰있더라고. 난 정비공이니께 좀 도와주려고 내려갔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바퀴를 살피려고 고개를 숙이려는데 어디서 왔는지 다섯 명의 공수부대원이 워커발로..."
- "폭도 새끼들 다 죽여버려!"
- "데모하러 나온 게 아니고 내 아들을 찾으러 나왔대요."
- " 시내에서 데모를 하는 사람은 공수부대에 끌려가 맞다는 얘길 들었제. 그래도 난 할 일이 많아갖고 온종일 일만 하다가, 밤에 어쩐지 밥은 먹기 싫어 가까운 슈퍼에 라면을 사러 갔다가..."

- "저 사람도 했어요."

- "나라를 지키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왜 시민들을 때리고 죽여요?"

- ‘#6 아우성’ 개념삽화



■ #7 헤드라이트

바퀴 달린 것들의 침묵

5월 20일, 금남로에서는 200여대의 택시와 버스들이 차량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경적을 울리고 헤드라이트를 번쩍였다. 네 개의 바퀴가 달렸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계엄군과 공수부대원의 진입을 저지했다. 여기서 관람객은 계단을 오른 뒤 완만한 내리막을 따라 걷는다. 그리고 곧 강렬한 서치라이트와 마주한다. 어둠 속에서 스모그가 피어오르고, 소음과 함성, 긴 경적소리들이 멀리서 들려온다. 광주의 첫 번째 변곡점이 새겨지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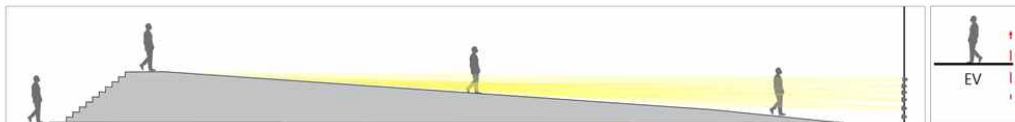
변곡점이란 흐름이 갑자기 변하는 지점으로, 실제로 변곡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계단을 올라 맞은편의 벽면이 시야에 들어오는 지점에 도착하기 전까지, 관람객은 경사로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

쉽게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힘없는 시민들이 그 어떤 무기도 아닌 빛과 소리로 진압요원들을 저지한 이 사건. 경사로의 정점에 서서 관람객은 머뭇거린다. 헤드라이트의 빛과 소리에 반응하는 당신은 순수한 관찰자인가. 당신은 시민인가, 아니면 공수부대원인가. 마치 미래에서 온 유령처럼, 마침내 관람객의 발길이 내리막길로 접어든다. 빛이 가까워진다.

■ ‘#7 헤드라이트’ 콘텐츠 개요

구분	민주관 지상 2층
주제	5월 20일 금남로 차량시위 [광주서사의 제1변곡점]
공간 파티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5 x 8.5 m / 블랙박스 - 바닥 : 오르내리는 경사 - 벽 1면에 차량 헤드라이트 구멍들 - 3층 연결 철망 화물용 EV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전 - Sound Effect : 소음, 함성, 긴 경적소리 희미하게 전시실 가득
가용기술	Interactive Sensor
전시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 경사면까지는 헤드라이트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 완만한 내리막, 스모그 사이 강렬한 서치라이트 빛줄기. - 좌우 벽면 스크린에 방문자들 동작 인식 센서, 상호작용

■ ‘#7 헤드라이트’ 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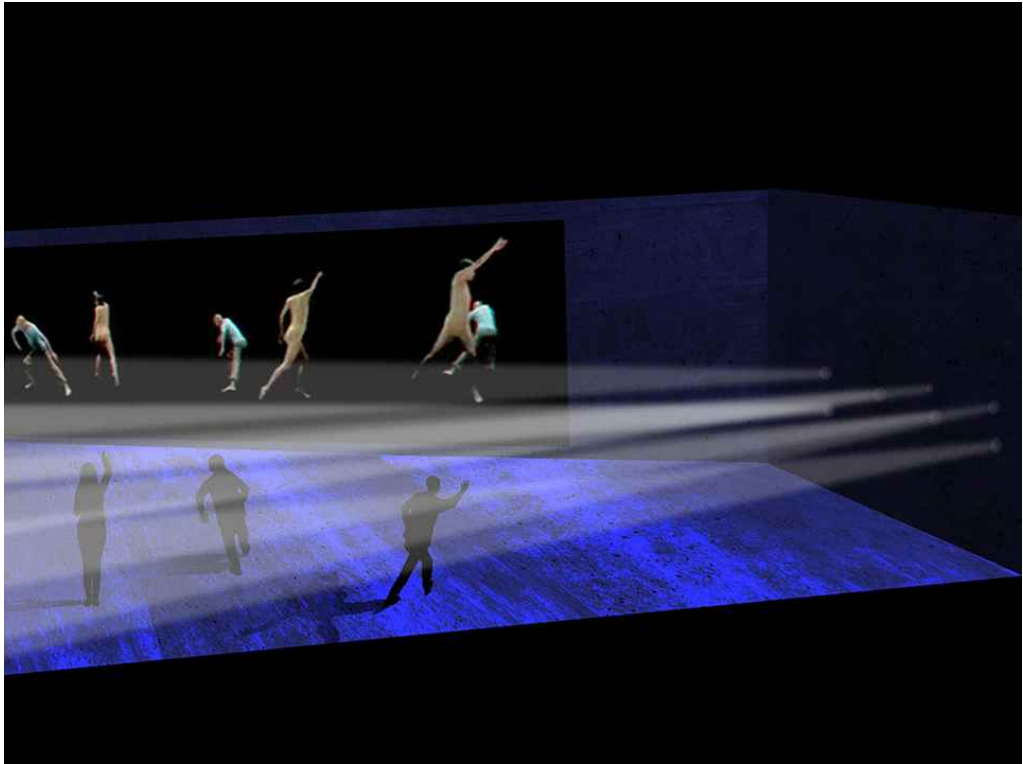


전시실을 들어서자마자 키높이보다 높은 계단이 있어, 반대편 벽에서 비추는 헤드라이트 조명을 차단한다.

전시실을 통과하면 3층의 #8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나온다. 철망으로 된 문의 낡고 투박한 엘리베이터는 20세기 초중반의 그것, 혹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느낌이다.

엘리베이터가 3층으로 올라가면, 문이 열리자마자 #8의 ‘깨어진 거울’ 전시가 눈앞에 펼쳐진다.

- ‘#7 헤드라이트’ 개념삽화



■ #8 깨어진 거울

잃어버린 마지막 퍼즐조각

5월 21일 금남로에서 일어난 집단 발포는 광주를 또 다른 변곡점으로 몰아갔다. 당시 금남로의 아스팔트가 그대로 깔린 공간에서 관람객들은 황색 중앙선, U턴 표시, 꺼렇게 밀린 바퀴 자국, 여기저기 벗겨진 구두, 어린 아이의 신발 등을 발견하며 걷게 된다. 그리고 벽을 바라본 순간, 거기엔 깨어진 거울과 그때의 사람들이 있다. 관람객을 빼고는 모든 상황이 시간이 멈춘 듯 정지해있다. 관람객은 몸을 움직인다.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포획된 것을 발견하는 순간, 관람객은 금남로에 서 있던 시민 중 하나가 된다. 비로소 거울이 완성된다.

■ ‘#8 깨어진 거울’ 콘텐츠 개요

구분	민주관 지상 3층
주제	5월 21일 금남로 집단발포 상황 [광주서사의 제2변곡점]
공간 파티션	- 60 x 8.5 m / 3층 전체공간 - 바닥 : 실제 금남로 아스팔트 도로 이식 또는 그래픽
표현방식	피스톨렛또(M. Pistoletto) 거울작업 의뢰
전시콘텐츠	- 금남로 아스팔트 4차선 도로[실물]. 황색 중앙선, U-턴 차선 표시, 꺼렇게 밀린 바퀴바국. 여기저기, 벗겨진 구두, 어린애 신발 짝들... - 3면 거울 패널들(painted silkscreen on polished stainless steel) : 이날 대치와 발포 상황 속에 방문자들이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공수부대 바리케이드, ‘계엄철’ 플랑을 들고 외치는 사람들, 버스 위에 올라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 돌을 던지는 마스크한 청년, 길가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 창가에서 내려다 보는 사람, “우리, 같이 죽어볼자!” 외치는 사람, 공수부대 발포로 꺾어지는 가로수 가지들, 납짝 옆드린 사람들 등등을 실크스크린에 그려 스텝판에 부착한다.

- ‘#8 깨어진 거울’ 개념삽화 동쪽면



- ‘#8 깨어진 거울’ 개념삽화 서쪽면



- 참고사진 - 피스토렛토 거울작업, Continua Gallery 798



나. 평화관 : 제2전시관 [경찰청민원실]

평화란 좁은 의미에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일컫지만, 현대 평화학에서는 이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 정의한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 혹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와 같이 대개 강자가 폭력을 통해 약자를 억누름으로써 유지되는 평화다. 반면, 적극적 의미에서의 평화란 갈등을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전자가 힘을 통해 이뤄지는 일시적 안정이라면, 후자는 정의가 구현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상적 상태를 뜻한다.

폭력과 학살로 점철된 80년 광주에서 평화라는 가치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악몽 같은 시간 속에서도 시민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평화’라는 이름의 꽃을 피워냈다. 이는 강자가 폭력을 통해 약자를 억누르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 다시 말해 군부세력이 의도했던 평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적극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평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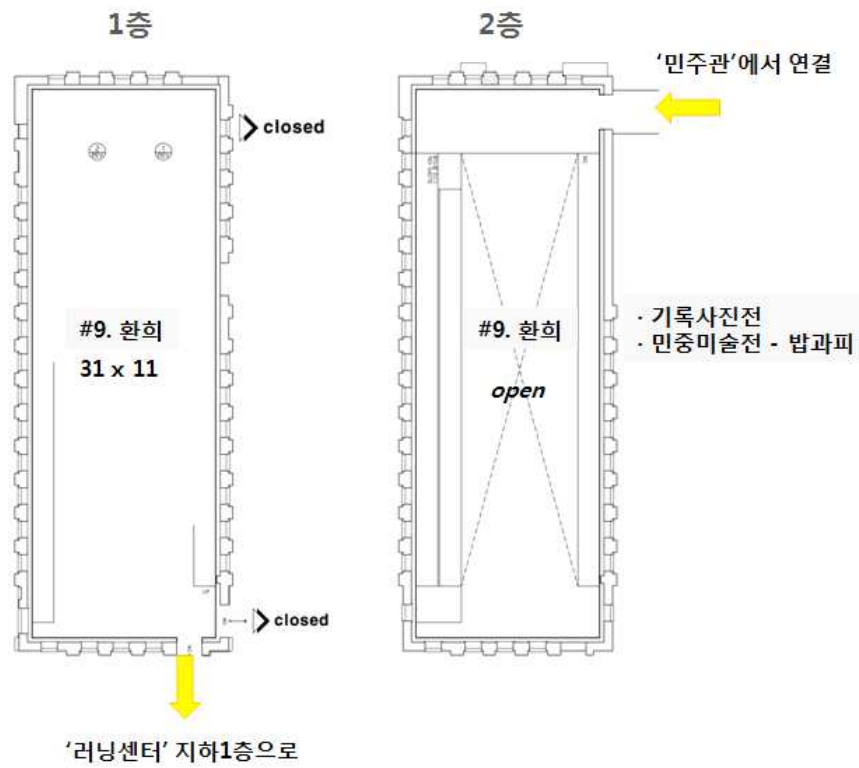
1980년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광주에서는 다시없을 자유세상이 펼쳐졌다. 태풍의 눈과도 같은 폭력극장의 한 가운데 펼쳐진 이 원형적 평화 공동체를 사람들은 ‘해방광주’라 불렀다. 그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호명하고, 함께 밥을 먹고 피를 나누며, 뜻을 모아 의견을 정했다. 5월 23일 박충훈 국무총리서리는 대국민 텔레비전 담화를 통해 “광주는 치안 부재상태”라고 발표했지만, 5월 22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 광주에서는 강도, 상해, 탈취 등의 범죄가 전무했다. 학생 수습위는 자체 특공대를 조직하여 총기를 회수했고, 23일 무렵에는 전체 50% 가량의 총기가 회수되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폐허가 된 도시의 청소와 정비 작업이 이뤄졌고, 각 지역의 부녀자들은 시민들에게 주먹밥과 김밥 등을 나누어주었다. 적십자 병원 헌혈차와 시위대 지프들이 광주 시내를 돌며 헌혈을 호소했으며, 학생수습위는 범죄 발생 예방과 식량공급 및 청소 문제 등을 논의했다. 현대 평화학이 내리는 평화에 대한 정의, 곧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이보다 더 잘 어울렸던 시공간은 없을 것이다.

평화관의 전시콘텐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민주관에서 이어진 2층 연결통로를 통해 제2전시관에 진입한 방문객은, 먼저 천장에 달린 최우람 작가의 ‘키네틱 기계꽃’을 통해 절대공동체의 환희를 압도적 아름다움으로 경험한다. 이 작품은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 평화가 지닌 에너지를 표현하며, 작은 꽃잎이 모여 하나의 꽃이 되고 다시 꽃들이 모여 거대한 꽃을 만드는 형상을 통해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의 평화가 이뤄진 방식을 은유한다. 영원한 변화와 반복의 운동 속에서 방문객이 느끼게 되는 것은 일종의 경외감이다. 이후 방문객은 건물 양쪽의 계단 혹은 경사로를 통해 아래로 내려가면서 바닥의 실제 아스팔트 도로 위에 새겨진 ‘극락강’, ‘망월’, ‘도청’ 등의 표시를 내려다봄으로써 자신이 들어와 있는 공간의 실재성과 환상성을 동시에 인식한다.

1층에는 절대공동체의 핵에 자리하고 있던 여성을 조명하는 전시 ‘밥과 피’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은 희생자이며 동시에 평화의 적극적 주체였던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장소다. 5월 해방광주 속 절대공동체의 핵심에는 여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은 밥과 그들이 나눈 피는 광주민주화항쟁이 지닌 모성애적 측면과 일상성을 드러내주며, 바로 여기서 5·18 정신의 지속가능한 미래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절대공동체를 가능하게 했던 동력은 폭력과 저항으로 대변되는 남성성이 아니라 치유와 나눔으로 나타난 여성성이었으며, 계엄과 전투라는 비밀상성이 아니라 밥과 피라는 이름의 일상성이었다.

제2전시관을 모두 돌아본 방문객은 평화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생성되며, 또한 평화를 위해 치러야하는 대가란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긴 채 연결통로를 통해 윤상원 러닝센터 지하의 〈眞空都市〉를 향해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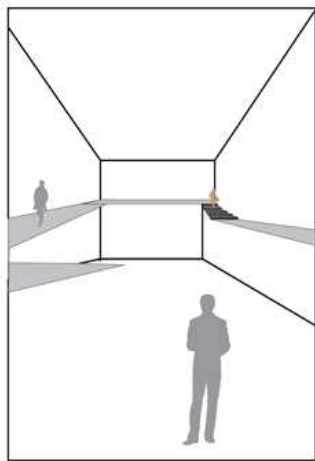
■ '평화관' '평면도'



■ '평화관'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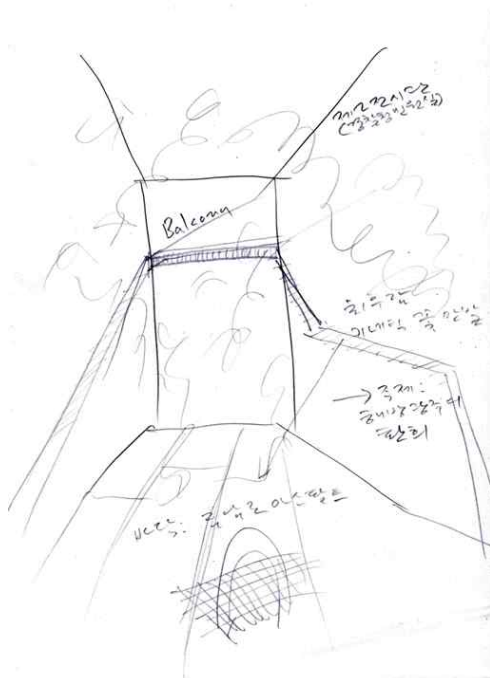
- '평화관' '단면도'



| 그림 1. '평화관' 투시도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발견한 건축적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린다. '민주관'에서 연결되는 통로로 들어서면 #9의 전시콘텐츠인 기계꽃이 정면에 나타나도, 계단이나 경사로를 내려가며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 '평화관' 아이디어 스케치



■ #9 환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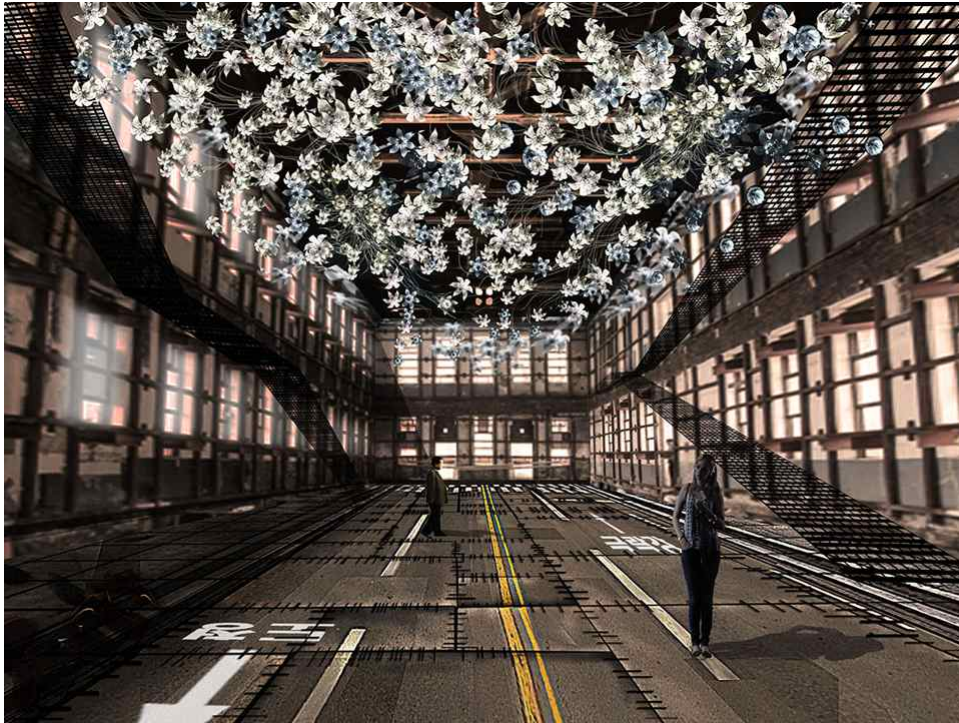
낙원에서의 닳새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닳새간의 광주에는 다시없을 자유세상이 펼쳐졌다. 태풍의 눈과도 같은 폭력극장의 한 가운데 펼쳐진 이 원형적 민주공동체를 우리는 '해방광주'라 불렀다. 사람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호명하고, 함께 밥을 먹고 피를 나누며, 뜻을 모아 의견을 정했다. 이 절대공동체의 환희를 관람객들은 천장에 달린 최우람 작가의 '키네틱 기계꽃'을 통해 예술적으로 경험한다. 더불어 바닥의 아스팔트 도로 위에 새겨진 '극락강', '망월', '도청' 등의 표시를 통해 자신이 들어와 있는 공간의 환상성을 인식하게 된다.

■ ‘#9 환희’ 콘텐츠 개요

구분	평화관 지상 1, 2층 통합공간
주제	5월 21일~25일 ‘해방광주’, 절대공동체의 환희
공간 파티션	- 11m x 31m (105평) / 1, 2층 통공간 - 바닥 : 실제 금남로 아스팔트 도로 이식
공간특성화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발견된 건축적 아름다움 유지, 부각
전시콘텐츠	- 바닥 : 4차선 아스팔트 도로(실물). 화살표 ‘극락강’, ‘망월’, ‘도청’ 표시. - 천정 : 최우람의 ‘키네틱 기계꽃’ 만발 설치. 1, 2층 창 : 홍성담의 ‘주먹밥’ (판화), 김경주의 ‘오월’ 등 광주 작가의 80년대 대표작을 벽화. - 1층 바닥 일부 : ‘주먹밥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한 ‘여성과 5·18’ 주제 형상화. - 1층 벽 : 당시 현장기록 사진들 중 해방 기간 ‘시민들의 얼굴’ 전시. 사진작가 (나경택, 황종건 등)에의 오마주.
캡션	‘해방광주’에 대한 해설, 각 작품들 해설, 작가의 말들

■ ‘#9 환희’ 개념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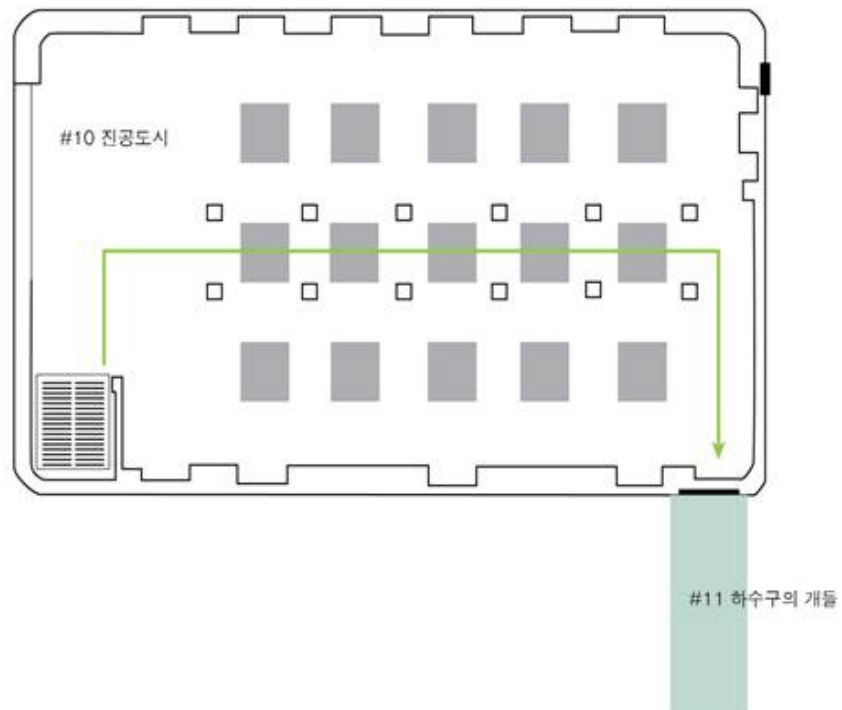


다. 러닝센터 [도청회의실]

- ‘러닝센터’ 단면도



- ‘러닝센터’ → ‘인권관’ 지하 연결 통로



■ #10 眞空都市

폭풍전야

어둡고 으슬으슬한 이 지하 공간으로 들어온 관람객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닥에 설치된 여덟 쌍의 수조다. 수조 위에는 5월 26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시간대 별로 기록되어 있고, 동쪽 창 바깥에는 콘크리트 벽을 배경으로 한 추상 양식의 브론즈 군상 '죽음의 행진'이 설치되어 있다. 적막 속에서 귀로는 어디선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 어디선가 무엇이든 일어날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바야흐로, 폭풍전야다.

■ ‘#10 眞空都市’ 콘텐츠 개요

구분	윤상원 러닝센터 지하 1층 전시실
주제	5월 26일, 광주 마지막 날 inform
공간 파티션	- 14.5m x 25.7m (113평), 천고 2m - 바닥 : 수조(1.5m x 1.5m) 그리드 8 Pairs - 동쪽 벽에 1.8m x 5m 패어글래스 창
공간특성화	현 상태의 어둡고 으슬으슬한 지하공간 느낌 유지
전시콘텐츠	- ‘죽음의 행진’ : 동쪽 창 바깥에 콘크리트 벽을 배경으로 한 추상 양식의 브론즈 군상 설치 [cp. 로당, ‘칼레시민’] - 수조 물 위에 26일 시간대별 상황[한글/영문] 投射 - Sound Effect :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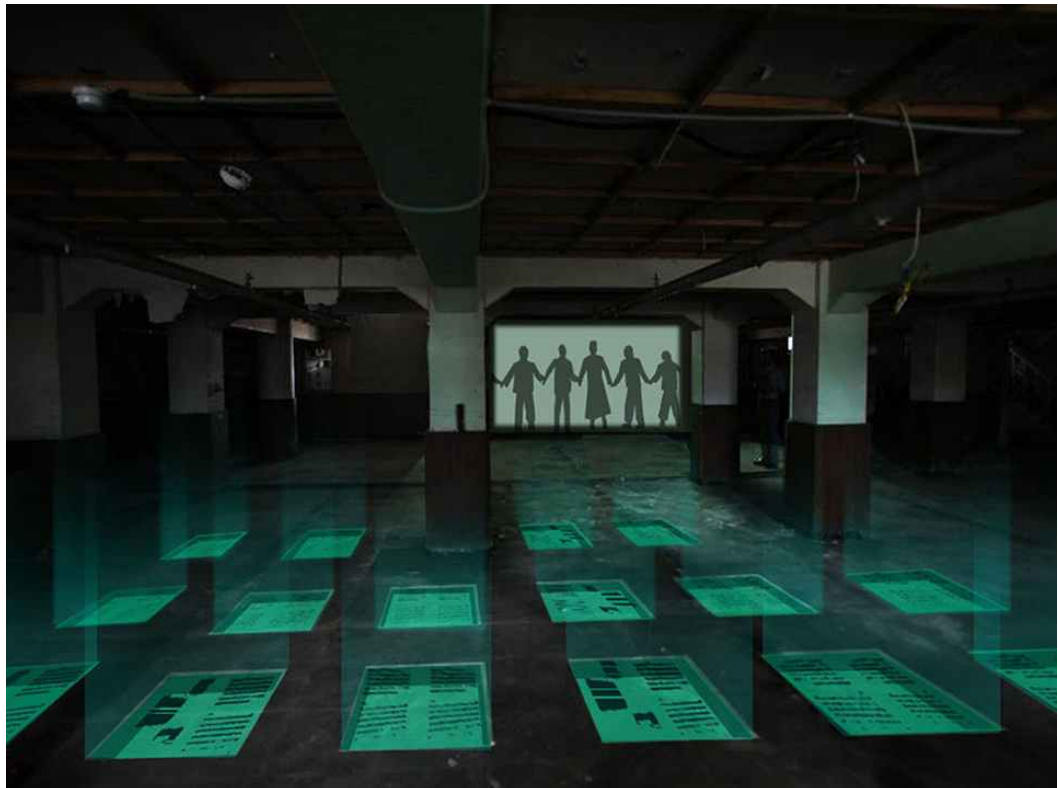
■ ‘#10 眞空都市’ 실제 전시 캡션 안

5월 26일 월요일

- 05시 20분: 계엄군, 화정동 쪽에서 농촌진흥원 앞까지 진출.
- 08시 00분: 시민수습대책위원들, 계엄군의 시내 진입 저지를 위해 농성동에서 죽음의 행진 감행.

- 10시 00분: 제4차 민주수호 범시민 쫓겨대회 개최.
- 14시 00분: 학생수습위원회, 광주시장에게 생필품 보급 등 8개항 요구.
- 15시 00분: 제5차 민주수호 범시민 쫓겨대회 개최.
- 17시 00분: 학생수습위원회 대변인 외신기자들에게 광주 상황 브리핑.
- 19시 10분: 시민군, “계엄군이 오늘 밤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 어린 학생과 여성들을 귀가 조치.
- 24시 00분: 시내전화 일제히 두절.

- ‘#10 眞空都市’ 개념삽화



■ #11 하수구의 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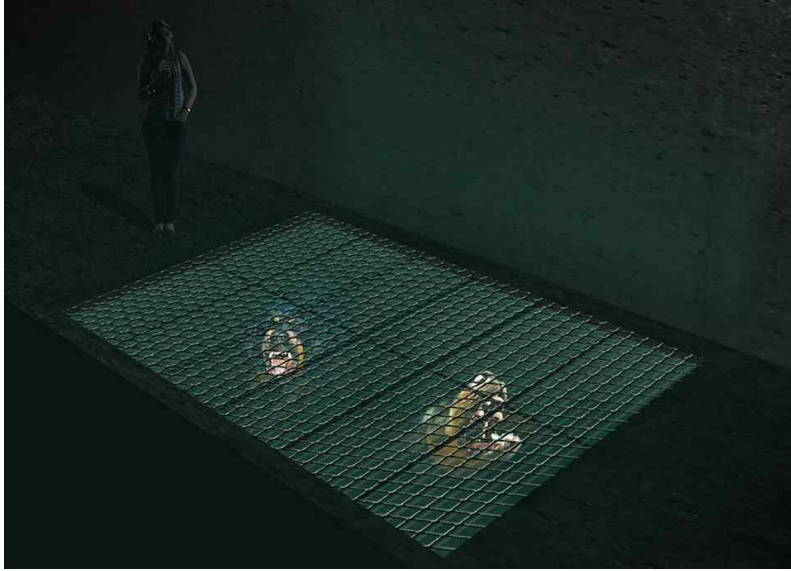
푸른 이빨

윤상원 러닝센터 지하 1층 전시실에서 도청본관 지하 1층으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 관람객은 위로부터 희미한 푸른색이 새어 들어오는 지하통로를 지나가야만 한다. 통로는 어둡고 길고 깊다. 발밑으로 사나운 도베르만 개들이 광견병에 걸린 듯 흥분상태에서 침을 흘리며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발견하면 흰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린다. 사방에서 마치 관람객을 잡아 끌어내리려는 듯 뛰어오르며 짖어댄다. 철망바닥에 구멍이라도 난다면 지하로 떨어져 물려죽을 것 같은 위협과 공포가 느껴진다. 공포심으로 시야가 좁아지고 몸이 굳는다. 자꾸만 발걸음이 빨라진다.

■ ‘#11 하수구의 개들’ 콘텐츠 개요

구분	윤상원 러닝센터 지하 1층 → 도청본관 지하1층 연결통로
주제	5월 27일, 마지막 새벽으로 가는 패시지
공간 파티션	- 4m x 10m x 2.4m(높이) / 콘크리트 벽체 - 바닥 : LED plate 위 철제 grating
조명	한쪽 천정 귀퉁이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블루
표현 형식	비디오 아트, 원작자 의뢰
전시콘텐츠	- 깊은 심도가 느껴지는 지하실에서 사나운 도베르만 개들이 흥분상태에서 이리저리 싸돌아 다니다가 흰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린다. 방문자의 발 밑까지 점프하여 짖어대기 시작한다. - 의도 : 외곽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는 도시의 horror.

- ‘#11 하수구의 개들’ 개념삽화



라. 인권관 : 제3전시관 [도청본관]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권리, 지위,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권은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법의 관할지역이나 개인적 · 인종적 · 지역적 변수에 관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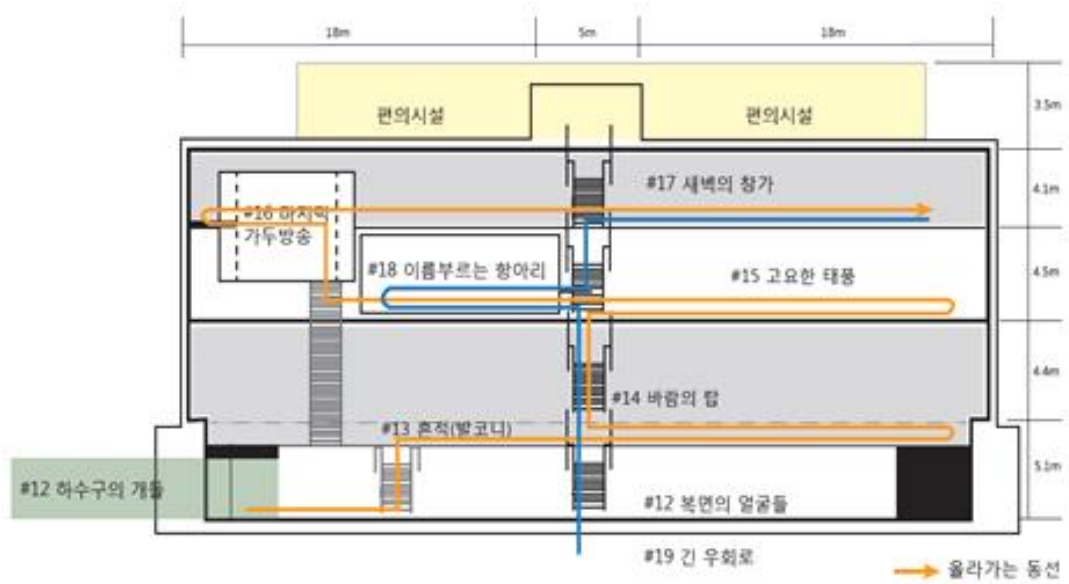
광주 5월 정신의 핵심은 인권이다. 5·18 광주민주화항쟁에서 인권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국가폭력에 의해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한 폭력의 야만 앞에서 분연히 일어난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인권을 쟁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에서 획득된 인권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주어진 권리가 아닌, 치열한 투쟁을 통해 ‘극복된 지점에서 얻어진’ 인간의 권리라 하겠다. 인권관에서는 80년 5월 광주의 마지막 순간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얻어내기까지의 과정들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인권관은 극적으로 리노베이션된 도청 본관 건물을 채운 일곱 개의 전시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관람객은 뉴미디어로 표현된 ‘복면의 얼굴들’을 만나 도청에 남아있던 이들의 존재를 각인하게 되고, 이후 ‘흔적’을 통해 항쟁 당시의 유물들을 설치미술 형태로 접한다. 중앙계단은 ‘바람의 탑’이라는 독립된 수직 구조물로 탈바꿈하여 관람객들로 하여금 당시 계단을 체험하게 하며, ‘고요한 태풍’을 통해 투사회보의 존재와 의미를 시각적으로 경험한다. ‘마지막 가두방송’이 청각을 자극하는 가운데 관람객은 ‘새벽 창가’라 불리는 불멸의 자리에 서서 금남로와 도청 광장을 내려다 보며 역사의 전류에 접속했던 이들의 영혼을 기린다. 그리고 ‘이름 부르는 향아리’를 통해 긴 여정을 마치고 80년 광주의 시간에서 현실의 시간으로 복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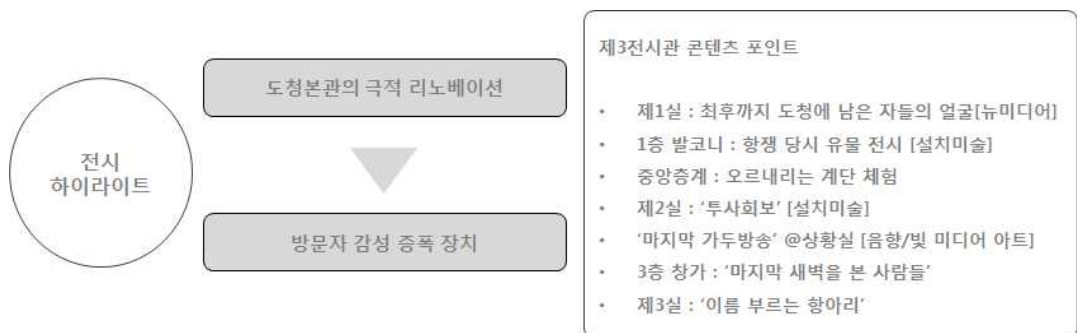
■ ‘인권관’ 전시콘텐츠 구성

구분	전시콘텐츠	주제
#12	복면의 얼굴들	5월 27일 새벽, 최후까지 도청에 남은 사람들의 숨소리
#13	흔적	항쟁 당시 유물들
#14	바람의 탑	마지막 날 밤의 헐떡거리는 계단
#15	고요한 태풍	투사회보
#16	마지막 가두방송	27일 새벽 마지막 가두방송
#17	새벽 창가	새벽 창가에 서 있는 사람들
#18	이름 부르는 향아리	에필로그 : 대상을 넘어 체화하는 광주
#19	자유의지의 문	스스로 선택한 그 자리

■ ‘인권관’ 공간계획 도면



■ ‘인권관’ 전시콘텐츠 포인트



■ #12 복면의 얼굴들

가면 속의 목소리

5월 27일 새벽, 최후까지 도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5월 26일 저녁 7시, 시민군은 “계엄군이 오늘 밤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하고 어린 학생들과 여성들을 귀가조치 시킨다. 항쟁 지도부는 종합적으로 광주시와 시위대의 활동을 검토하여 대책 마련에 고심한다. 총기 회수 및 재분배, 예비 동원령을 통한 자위대 편성, 합동장례식 등을 논의한다. 그리고 마침내 도청에 사람들이 남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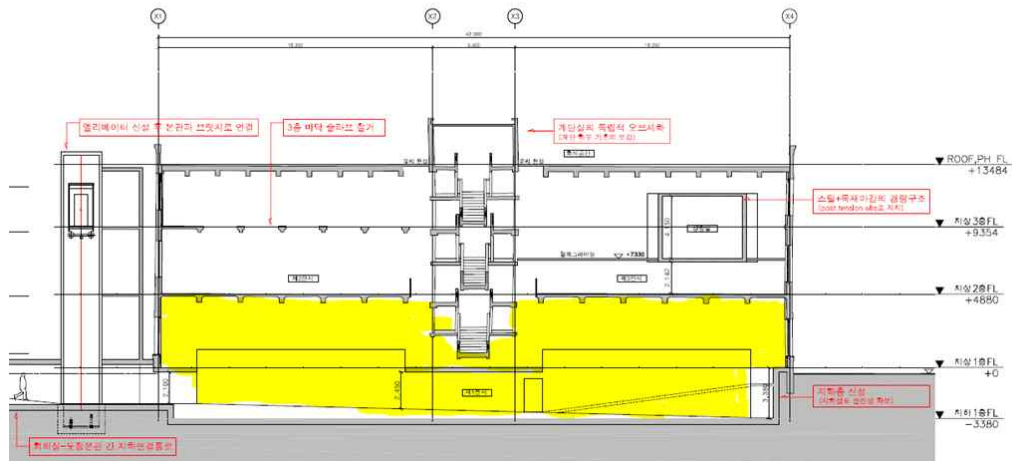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 인권(人權). 그날 새벽 도청은 자신의 목숨을 그 ‘인간의 권리’와 기꺼이 교환한 사람들이 서 있던 곳이었다. 모든 통신수단이 단절된 적막한 시내. 낡은 칼빈 소총을 들고 창가에 서 있던 이들의 얼굴들에서는 어떤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들을 뭐라 불러야 할지 알 수 없다. 다만 그들에게서 '극복된 인간(ubermensch)'을 볼 뿐이다.

침몰하는 배처럼 한쪽으로 경사진 바닥면. 녹슨 철판 위로 얼굴들이 떠오른다. 그들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만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다. 가면을 쓴 것처럼 얇은 막 뒤에 갇힌 얼굴들을 보며, 관람객은 27일 새벽까지 도청에 남아있던 이름 모를 사람들을 마주하는 경험을 한다. 닿을 수 없는 그들의 숨소리를 듣는다.

■ ‘#12 복면의 얼굴들’ 콘텐츠 개요

구분	인권관 지하 1층
주제	5월 27일 새벽, 최후까지 도청에 남은 사람들의 숨소리
공간 파티션	- 5.7m x 32m x 3.5m(높이) / 녹슨 철판 가벽 설치 - 바닥 : 콘크리트, 침몰하는 배처럼 전체가 한쪽으로 경사
조명	4면 바닥 귀퉁이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블루
표현 형식	미디어 파사드(가벽)에 영상 투사
전시콘텐츠	샤 막에 밀착된 얼굴들, 손들. 거친 숨을 내쉬며...
캡션 (한글/영문)	<p>- 계엄군 進攻 전 도청 지도부, 아이들과 여자들 내보내고, 시내 모든 전화 단절. 자정부터 새벽까지 구닥다리 카빈 총 들고 창가에 서 있던 사람들... 다들 방바닥에 엎드려 숨죽이고 있던 광주 마지막 날. 새벽 하늘 밑으로 어느 여성의 애절한 가두방송이 밀려나가고 있을 무렵, 기꺼이 조준선 위에 서 있던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p> <p>- 27일 새벽 도청은, 자신의 목숨과 교환한 ‘인간의 권리’를 만천하에 선언한 장엄한 장면이었다.</p> <p>- 인간에게서 새어 나오는 빛, 영성체... ‘극복된 인간’</p>

■ ‘#12 복면의 얼굴들’ 위치



■ #12 복면의 얼굴들' 개념삽화



■ #13 흔적

그리고 남은 것들

이곳에서 관람객은 항쟁 당시의 유물을 볼 수 있다. 미니멀 설치 미술 형식으로 당시의 태극기, 구호 플래카드, 교련복, 바가지, 솔단지, 카빈 소총들이 전시되어 현장성을 전달한다. 흔적들은 당시의 상황을 희미하게 보여줄 뿐이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매개체가 된다. 각각의 유물에는 자세한 설명과 사연이 달려있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1층 현관에 설치된 디지털 아트 작품은 지나가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한다. 큰 가림판 형식의 설치작품은 사람이 다가가거나 지나가면 작품 속 센서가 파악한 관람객의 실루엣만큼 열려서 뒤편을 볼 수 있게 된다. 작용과 반작용, 동작과 반응이라는 단순한 메커니즘이지만, 이러한 상호작용 테크놀로지가 전제하는 것은 안에서 밖을, 혹은 밖에서 안을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너머’의 무언가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접근의 의지와 구체적 행동이다. 이것 없이 너머를 보는 일은 불가능하다.

■ ‘#13 흔적’ 콘텐츠 개요

구분	인권관 지상 1층 발코니
주제	항쟁 당시 유물들
공간 파티션	9m x 41m x 4.8m(높이) / 목재 가벽 설치
조명	유물 오브제마다 핀조명
전시 방식	미니멀 설치 미술 형식
전시콘텐츠	- 태극기, 구호 플랑, 교련복, 바가지, 솔단지, 카빈총... - 1층 현관; 유리로 외부 폐쇄. 한창민의 ‘디지털아트’ 설치
캡션 (한글/영문)	태극기 : 5월 21일 아침, 시민들이 광주역 광장에서 시체 2구를 리어카에 싣고 금남로에 등장했을 때 거기에 덮여 있던 태극기. 그날 오후 금남로 계엄군의 집단발포 이후 시민들이 무장하고 뛰어 나왔다. 한 손에는 낡은 카빈총을 들고 다른 손에 태극기를 든 자들이 눈에 띈다. 상무관에 안치된 술한 시신들 관에도 태극기가 감겨 있었다. 태극기는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자기-정체성의 처절한 기호이자 ‘폭도’로 낙인찍는 계엄정부, 관제언론에 대한 피어린 항의, 시민적 불안감의 거부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 #14 바람의 탑

역사를 오르내리는 계단

도청 전체를 관통하는 중앙계단이 하나의 탑으로 변한다. 이 수직 동선은 건물의 일부분이면서 동시에 건물 전체 동선에서 일정 부분 독립되어 있다. 도청을 지키던 사람들이 수시로 오르내리던 이 계단. 80년 5월의 마지막 밤,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던 그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다니던 이 계단을 방문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경험한다.

각 층 사이의 계단 벽에는 시민군들의 짧은 말과 글이 새겨져 있다. 〈복면의 얼굴들〉과 〈흔적〉을 거쳐 온 관람객은 이 계단에 이르러 시민군들에게 펼쳐질 불운한 미래를 예감하게 된다. 그때와 동일한 계단을 밟으며 관람객은 그들이 느꼈을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받는다. 이 감정적 합일의 순간을 통해 계단이 주는 수직적 이동의 의미는 단순한 좌표이동이 아닌, '역사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함의로 확장된다.

"사랑은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빛나는 것. 잘 가라, 내 친구. 잘 가라, 내 사랑. 그대들 떠나는 날, 마침내 내 청춘의 물집도 터지고, 스무 살 푸른 어깨가 받쳤던 짐을 이제야 다 부린 듯하네." (황지우, 〈오월의 신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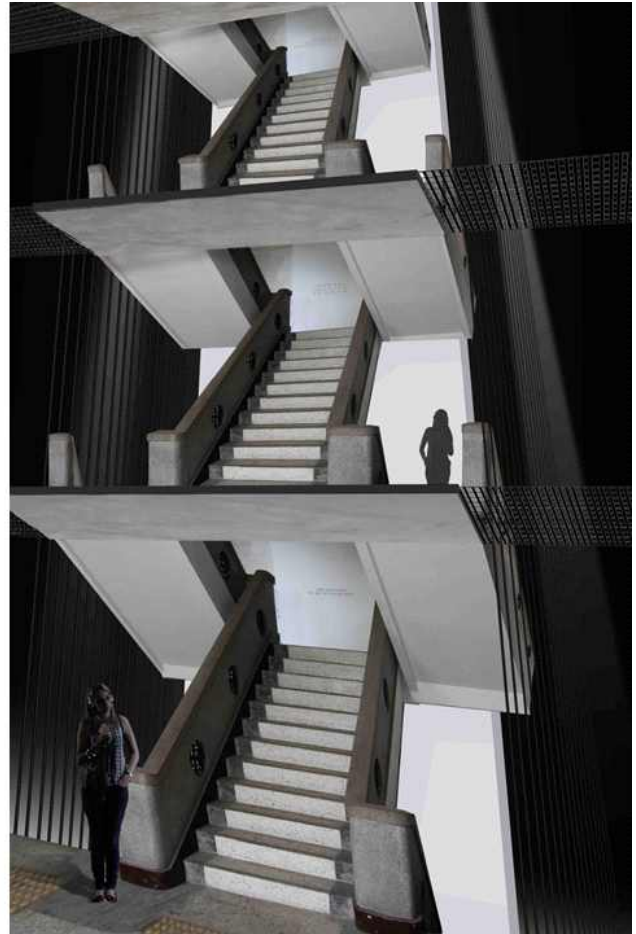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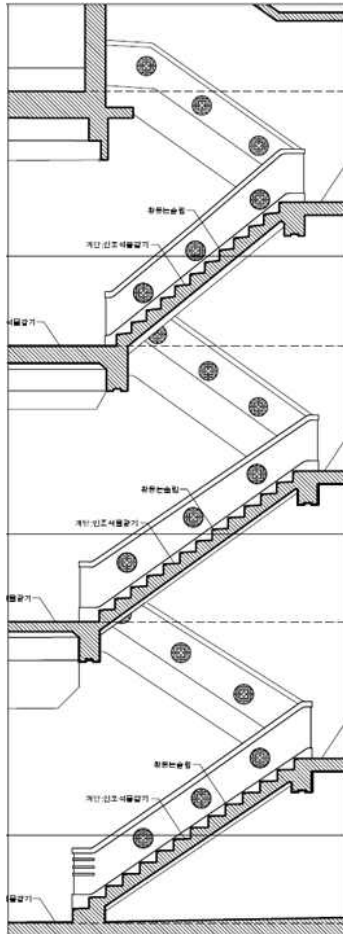
■ ‘#14 바람의 탑’ 콘텐츠 개요

구분	인권관 지상 1층~3층
주제	마지막 날 밤의 혈떡거리는 계단
공간 파티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층계 좌우 1.5m 구간 바닥, 사무실벽 철거 - 방문자 동선 연결 철제 그레이팅 설치 - 중앙층계 좌우 벽 철거
조명	옥상 개구부의 자연광
전시 방식	건물 전체에서 어느 정도 독립된 수직적 구조물을 상징화
전시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선 Flow를 방해했던 중앙층계를 적극적인 건축 은유로. - 오르내리던 계단의 역사적 함의를 방문자 실감 체험. - 1-2층, 2-3층 중간계단 벽에 시민군 짧은 멘트들.
캡션 (한글/영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은 태양의 흑점들, 우리 젊은 피가 타져버린 검댕이” - “사랑은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빛나는 것. 잘 가라, 내 친구. 잘 가라, 내 사랑. 그대들 떠나는 날, 마침내 내 청춘의 물집도 터지고, 스무 살 푸른 어깨가 받쳐던 짐을 이제야 다 부린 듯하네.” (황지우, <오월의 신부> 중)

■ 실제 전시 텍스트(안)

“도청은 태양의 흑점들, 우리 젊은 피가 타져버린 검댕이”
 “나는 이 병든 역사를 위해 갑니다.”
 “한 줌의 재가 된다면 어느 이름 모를 강가에 조용히 뿌려다오.”

■ ‘#14 바람의 탑’ 개념삼화



■ #15 고요한 태풍

광주의 내면을 통신하다

투사회보는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시민들이 제작 · 배포한 유일한 자체 언론이었다. 외부세계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해방된 광주의 내면은, 그러나 사실 극도의 고립감과 불안감이 감돌았다. 치안, 청소, 식량문제 그리고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필요들을 통신하는 투사회보는 광주가 아름다운 코뮌이었음을 역사에 증언한다.

당시 광주의 내면을 상징하는 블랙박스의 공간 안에 은은한 코발트블루 조명이 퍼져있다. 관람객이 보게 되는 것은 작은 미러 디스플레이에 인쇄된 투사회보 전단들이다. 이들은 눈앞에서 소용돌이 형태로 감아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한다. 바람에 파르르 떨며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계속한다. 변화하는 조명은 마치 우주처럼 부드럽게 관람객을 감싸고, 환상적인 움직임 속에서 관람객은 불안과 황홀, 고립과 소통의 미묘한 감정들을 예술적으로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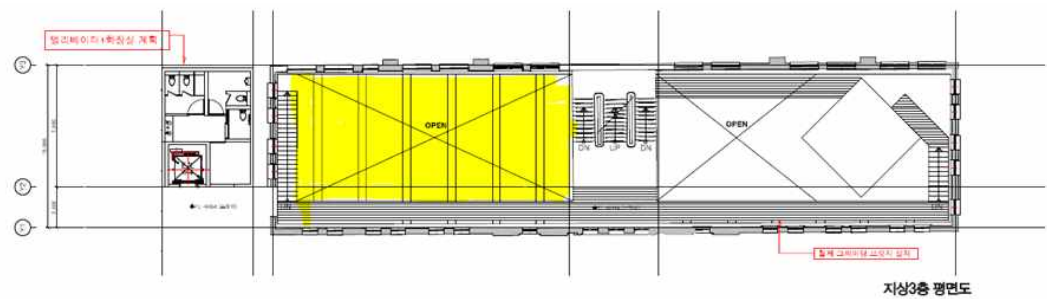
■ ‘#15 고요한 태풍’ 콘텐츠 개요

구분	인권관 지상 2층
주제	투사회보
공간 파티션	3층 창문 외에 여타 창문 외광 차단
조명	실내 전체에 코발트 블루 조명
전시 방식	설치미술
전시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작은 미러 디스플레이 종이들. - 투사회보 전단들이 소용돌이 형태로 감아 올라간다. 가끔 바람에 파르르 떠다. 조명이 바뀌고, 은하계 성운처럼 변한다.
캡션 (한글/영문)	투사회보는 항쟁 당시 시민군들이 제작배포한 유일한 자체 언론이었다. 외부세계로부터 완전 차단된, 해방된 광주의 내면은, 그러나 사실, 극도의 고립감과 불안감이 감돌았다. 치안, 청소, 식량문제 그리고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필요들을 통신하는 투사회보는 광주가 아름다운 코뮌이었음을 역사에 증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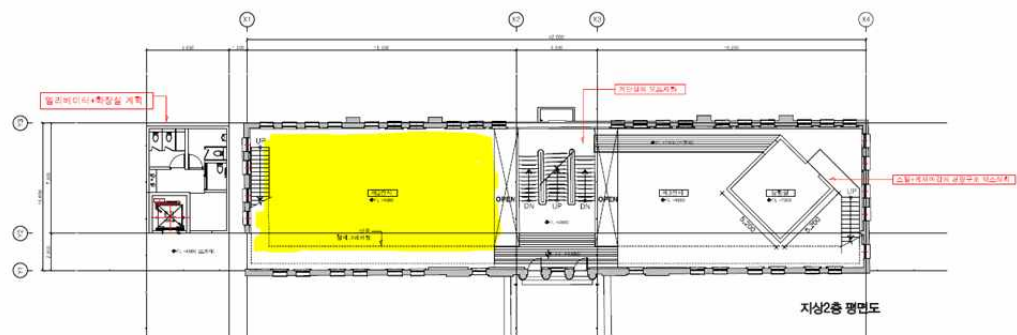
- ‘#15 고요한 태풍’ 개념삽화



- 도청본관 지상 3층 평면 - 오픈



- 도청본관 지상 2층 평면 - 천장 오픈



■ #16 마지막 가두방송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5월 27일 새벽, 금남로에 올려 퍼졌던 마지막 가두방송을 사운드 미디어 아트(Sound Media Art) 형태로 재현한다. 철제 목조박스 속에 검은 전화기와 의사 등 시민군들이 회의하던 상황실이 꾸며져 있고, 공간 안에는 극저음파가 계속해서 울린다. 무전기 교신하는 소리, 탱크 캐터필러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가두방송이 들려온다.

좁고 어두운 목조박스는 당시 건물 안의 고립된 상황을 연상케 하며, 붉은 암실 조명의 실내는 관람객들에게 불안한 전조를 느끼게 한다. 흘러나오는 소리들로 인해 모든 감각이 귀로 집중된다. 무전기 교신 잡음과 탱크가 이동하는 소리를 뚫고 애절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밤하늘 멀리 퍼져나간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광주를 지켰던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어갑니다. 시민 여러분, 잠들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나와 주세요. 우리는 끝까지 광주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 ‘#16 마지막 가두방송’ 콘텐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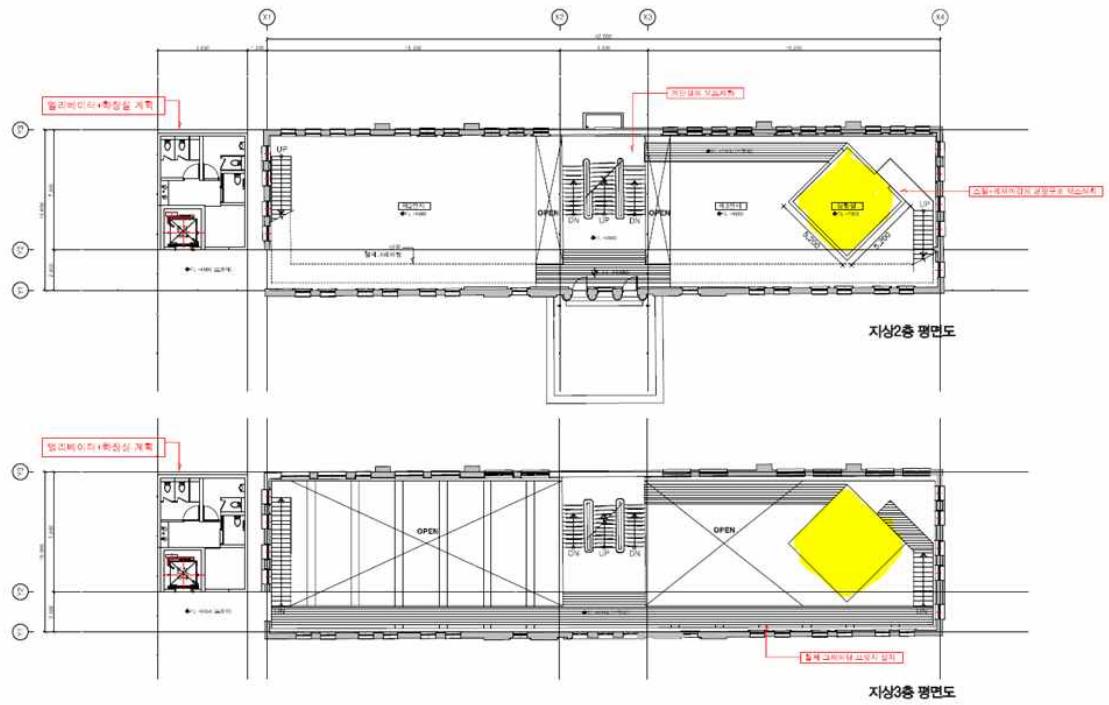
구분	인권관 지상 2-3층 허공
주제	27일 새벽 마지막 가두방송
공간 파티션	- 제2전시실 위 음향실[철제 목조박스, 5m x 5m x 5m] - 벽면에 대해 45도 각도로 틀어서 설치 - 철제 브리지
조명	실내, 붉은 암실 조명

전시 방식	Sound Media Art (← Obermeiyer 의뢰 검토)
전시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군들 회의하던 상황실. 검은 전화통. 여기저기 의자들. - 공간 안에 극저음파가 계속 부웅 울리고 있다. - 무전기 교신하는 잡음, 그리고 지축을 뒤흔드는 탱크 캐터필러 소리가 점점 공간을 격하게 진동시킨다. 무전교신음. - 그리고 밤하늘 멀리 퍼져나가는 애절한 여성 목소리.
캡션 (한글/영문)	<p>“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대한 광주를 지켰던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어갑니다. / 시민 여러분, 잠들면 안 됩니다. /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 우리는 끝까지 광주를 지킬 것입니다. /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p>

■ 실제 전시 텍스트(안)

5월 27일 화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시 00분: 계엄군의 광주 진입. ■ 03시 00분: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 “계엄군이 쳐들어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여성의 애절한 시내 가두방송. ■ 04시 00분: 도청 주변 완전 포위, 금남로에서 시가전 전개. ■ 04시 10분: 계엄군 특공대, 도청 안에 있던 시민군에게 사격. ■ 05시 00분: 시민군 생존자들 자진해서 자수. 자수 과정에서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 3명을 시민군이 자진해서 체포해 계엄군과 경찰에게 넘겼음. ■ 05시 10분: 계엄군, 도청을 비롯한 시내 전역을 장악하고 진압 작전 종료. ■ 06시 00분: 계엄군, 시민들에게 거리로 나오지 말라고 무선 방송. ■ 07시 00분: 공수부대, 20사단 병력에게 도청 인계. ■ 08시 50분: 시내전화 통화 재개.

■ 도청본관 지상 2, 3층 평면 - 천장 오픈 - 마지막 가두방송



■ #17 새벽 창가

불멸이 된 그림자

5월 27일 새벽 4시. 금남로에서 시가전이 전개된다. 외곽지역까지 퇴각했던 기동타격대가 도청으로 진입한다. 계엄군이 도청 주변을 완전히 포위한다. 도청 안의 시민군들은 도청광장을 향해 최후의 항쟁을 준비한다. 4시 10분, 계엄군이 도청 정면에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일제사격을 시작한다. 도청 안의 시민군들은 도청광장을 향해 정면으로 응사한다. 제3공수 특공대가 뒷담을 넘어 도청 내부로 잠입한다. 계엄군이 시민군들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린 후 확인사살을 한다. 새벽 5시 10분, 계엄군은 도청을 비롯한 시내 전역을 장악하고 진압작전을 종료한다...

그날 새벽, 창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탱크. 얼마 남지 않은 실탄. 지독한 피곤에 감겨오는 눈꺼풀.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예감하였지만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다. 그들이 서 있던 자리는 불멸의 자리가 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역사의 전류에 접속되었기 때문이다. 금남로에서 도청을 바라본 산지박(山地剝)의 자리는 이제 뒤집혀 지뢰부(地雷復)의 자리로 바뀌었다.

관람객들은 같은 자리에 서서 이제는 불멸이 된 어떤 영혼의 그림자를 경험한다. 금남로와 광장을 내려다보며 그날의 풍경을, 또한 고독하였으나 결코 외롭지 않았을 어떤 평범한 이들의 위대한 내면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긴 상념에 잠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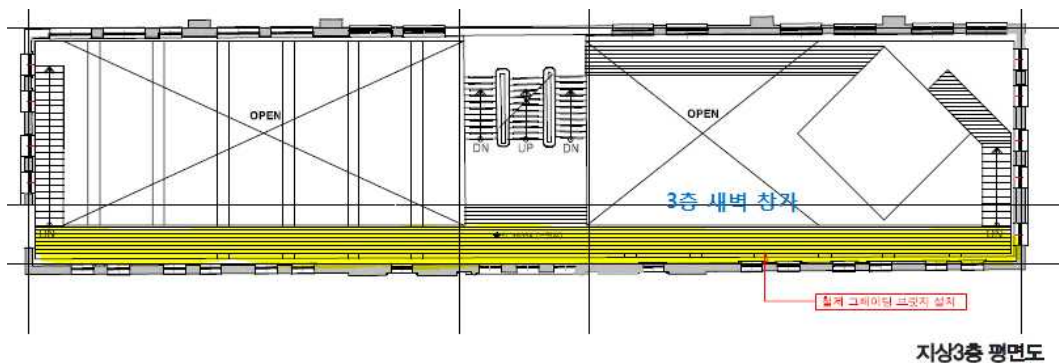
■ ‘#17 새벽 창가’ 콘텐츠 개요

구분	인권관 지상 3층 철제 복도
주제	27일 새벽 창가에 서 있는 사람들
공간 파티션	상황실에서 3층 창가 철제 복도에 이르는 브릿지
전시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들, 창가에 서서 금남로와 광장을 바라다본다. - 그날 그 자리, 불멸의 자리에 서서 방문자들, 긴 상념... 그들의 영혼이 역사의 전류에 접속되는 순간을 경험. - 주역 상징; 금남로에서 도청을 바라본 山地剝 자리가 地雷復의 자리로 바뀐다.
캡션 (한글/영문)	“어느 죄지은 정원에서 하느님이 아담을 찾았습니다. / 너는 어디 있느냐? 이제 저는 답합니다. / 1980년 5월 26일 밤, 저는 광주에 있습니다.” (희생자, 신학생 유동운의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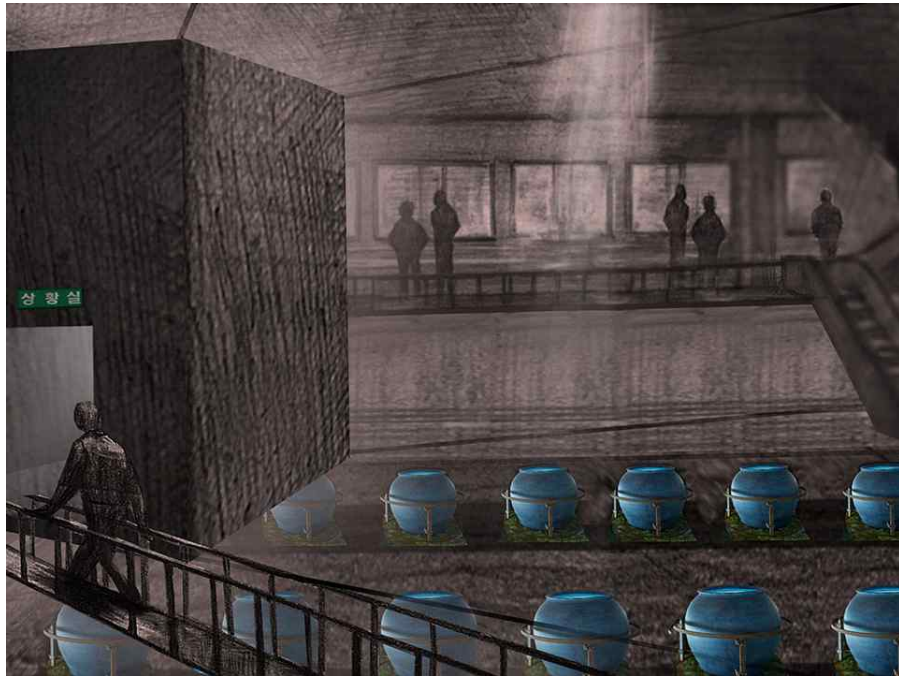
■ ‘#17 새벽 창가’ 실제 전시 캡션(안)

“어느 죄지은 정원에서 하느님이 아담을 찾았습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이제 저는 답합니다.
 1980년 5월 26일 밤, 저는 광주에 있습니다.”
 (희생자, 신학생 유동운의 일기)

■ ‘#17 새벽 창가’ 도청본관 지상 3층 평면도 - 발코니



■ ‘#17 새벽 창가’ 개념삽화



■ #18 이름 부르는 항아리

Epilogue

이곳에서 관람객은 열두 개의 물 항아리를 들여다보며 이름을 부른다. 자신의 이름이나 가족, 친구, 희생자, 계단을 오르내리고 가두방송을 듣고 창가에 서서 광장을 바라보던 순간 잠시나마 관람객의 몸속에 반향을 주었던 누군가, 그러므로 이름 모를 사람의 이름도 좋다. 누구의 이름이 되었든 그 이름엔 도청 본관의 장소성과 의미가 더해진다. 이 호명의 행위는 그날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기하고 잊지 않겠다는 내면적 의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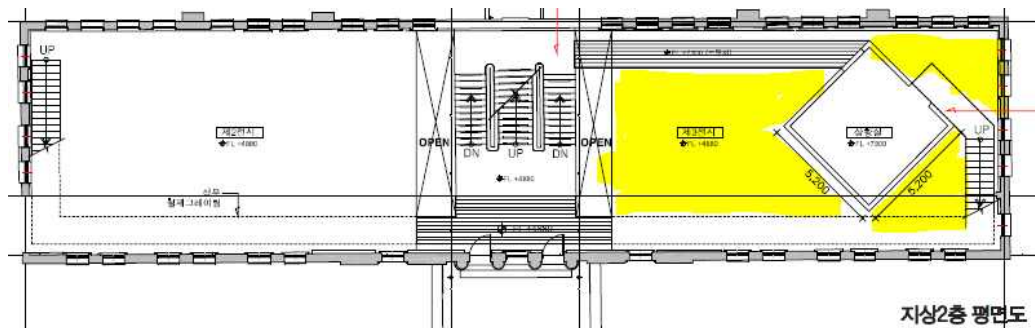
공명에 의해 수면이 흔들리면서 이름이 떠오른다. 수면이 정지하면 자신의 소감을 말한다. 수면이 흔들리면서 “미안해요.”, “잊지 않겠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등과 같은 메시지가 떠오른다. 여기서 관람객이 경험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음성 인식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자신의 말에 대답해주는 물항아리 앞에서 관람객은 마치 역사 속 누군가로부터의 전언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전시관을 돌며 경험했던 다수의 기억, 불특정한 인상들은 이곳에서 개인적이고 단일한 하나의 메시지로 압축된다.

마지막으로 관람객은 전시관을 빠져나가며 출력된 프린트[음성인식 문자와 방 문자 사인]를 받는다. 이 징표는 집이나 일터 등 삶의 공간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일상 속에서 민주인권평화기념관 방문의 경험을 일깨워줄 것이다. 비로소 여정이 끝나고, 짧은 시간여행을 떠났던 이들이 현실로 복귀한다.

■ ‘#18 이름 부르는 향아리’ 콘텐츠 개요

구분	인권관 지상 2층 철제 복도
주제	에필로그
공간 파티션	제3전시실
가용기술	음성-인식 인터랙티브 테크
제작	디지털 물향아리(윤정섭 작) 12개
전시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향아리를 들어다 보며 이름을 부른다. 공명에 의해 수면이 흔들리면서 이름이 떠오른다. 수면 정지. 소감을 말한다. 수면이 흔들리면서 “미안해요.” “잊지 않겠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등등이 떠오르다가 정지. - 출구에서 프린트-출력[음성인성 문자와 방문자 사진]을 받는다.

■ ‘#18 이름 부르는 향아리’ 도청본관 지상 2층 오픈 공간



■ #18-2 옥상 라운지

방문자들의 휴식과 전망을 위해 인권관 옥상에 마련된 편의시설이다. 유리로 된 가건물이지만 에너지 효율을 높인 친환경 설계를 사용한다. 카페, 스낵, 옥외 전망대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전망대에서는 시내 중심가가 내려다보인다.

■ ‘#18-2 옥상 라운지’ 콘텐츠 개요

구분	인권관 지상 3층 철제 복도
기능	휴식과 전망을 위한 방문자 편의시설
공간 파티션	- 유리소재 가건물[5m(w) x 25m(l) x 3.5m(h)] - 현 옥상 도입부 시멘트 벽 일부 보존
용도	커피숍/스낵코너/화장실/EV/옥외 전망대

■ #19 자유의지의 문

시민군이 도청을 장악한 이른바 ‘광주 코뮌’ 이후 도청 정문은 해방의 상징 그 자체였다. 그러나 문은 언제나 양쪽에서 바라보는 것. 최후의 날이 다가올수록 밖에서 볼 때 이 문은 자신의 생명을 죽음과 맞바꾸는 자유의지의 표상이었으며, 안에서 볼 때 이 문은 처절하고 고독한 고립을 의미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원형 상태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철제 문 안팎에 인물 군상을 설치한다. 절제되고 극적인 미장센으로 안쪽의 시민군들과 바깥쪽의 가족들 사이의 물리적 · 심리적 거리를 표현하여 하나의 문을 두고 서로 다른 풍경을 바라보아야 했던 이들의 내면을 예술적으로 승화한다.

해방과 고립, 이쪽과 저쪽, 삶과 죽음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를 은유하던 정문은 이제 80년 5월을 넘어 민주와 평화, 그리고 인권의 범아시아적 통로를 상

징한다. 활짝 열린 문을 통해 관람객은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메모리
 얼 홀로 향한다.

■ ‘#19 자유의지의 문’ 콘텐츠 개요

구분	인권관 도청본관 앞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군)이 도청을 접수한 이른바 광주 코문 이후 도청 정문은 해방의 상징 그 자체. - 최후의 날이 다가올수록 밖에서 볼 때 이 문은 죽음과 맞바꾸는 자유의지를 표상하며, 안에서 볼 때 그것은 처절한 고립을 의미.
표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원형 상태 보존. - 철제 문 안팎에 인물 군상[매재 재고]. - 안쪽 시민군들과 바깥쪽 가족들[아이 업은 젊은 아내, 노모 등등] 사이의 절제되고 극적인 미장센.
검토사항	철거된 수위실(당시 시민군 검문소) 복원 문제

마. 메모리얼 홀 : 추모타워 [상무관]

어떤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것이 기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자신의 책 『비극의 탄생과 도덕적 계보학』에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다. “인간이 스스로 기억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마다 고문, 피, 희생이 따라왔다.” 따라서 기억의 문제는 비극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아니, 어쩌면 기억은 비극 그 자체이며, 미래에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비극을 막는 굳건한 안전장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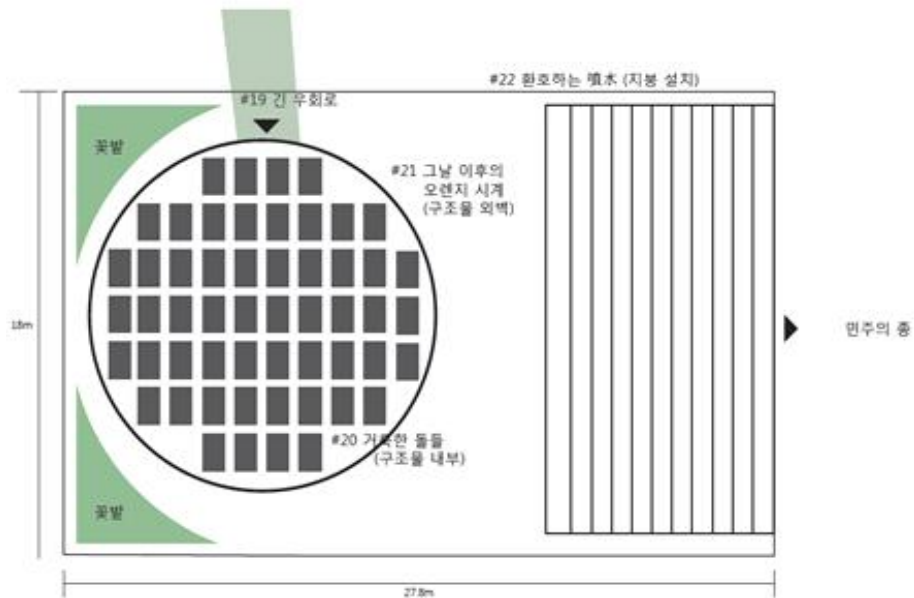
상무관이 5 · 18 광주민주화항쟁의 ‘기억’을 담는 메모리얼 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항쟁 당시 상무관은 희생된 주검을 임시 안치했던 곳으로, 86구의 시신이 태극기에 덮인 채 놓여 있던 장소다. 1960년대 본래 무도와 체육 활동을 목적으로 세워진 이 2층 건물에 무자비한 진압과 무차별 사격에 희생된 주검들이 안치되자, 가족들은 오열하며 자신들의 아들, 남편, 동생, 오빠의 시신을 찾아 헤맸다. 상무관에 마련된 합동 분향식에는 사흘 동안 수만 명에 이르는 광주 시민들이 찾아와 조문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후 시신이 담긴 관들이 들려나와 광주시청 소속 청소차에 실리고, 짐짝처럼 열 개씩 포개어진 채 시립공원 묘지로 향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곳이 왜 추모와 제의의 공간으로 남아야 하는지를 또 한 번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메모리얼 홀은 인권관과 홀을 잇는 연결통로 ‘긴 우회로’를 포함해 모두 네 개의 전시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다. 추모타워에 들어선 관람객은 ‘거룩한 돌들’ 앞에서 항쟁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지며, ‘그 날 이후의 오렌지 시계’를 통해 오월 광주가 불러온 국내외적 파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상무관 지붕 위에 설치된 거상 ‘환호하는 噴水’를 통해 80년 5월 당시 옥상에서 시민궐기대회를 바라보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거상의 시선을 따라 다시 광장 중심의 분수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 ‘메모리얼 홀’ 전시콘텐츠 구성

구분	전시콘텐츠	주제
#19-2	긴 우회로	추모의 길
#20	거룩한 돌들	항쟁 당시 시신 안치 장소에 대한 추모
#21	그날 이후의 오렌지 시계	오월 광주로부터 국내/해외로 퍼져나간 시간의 파장
#22	환호하는 噴水	오월 광주, 절대공동체의 환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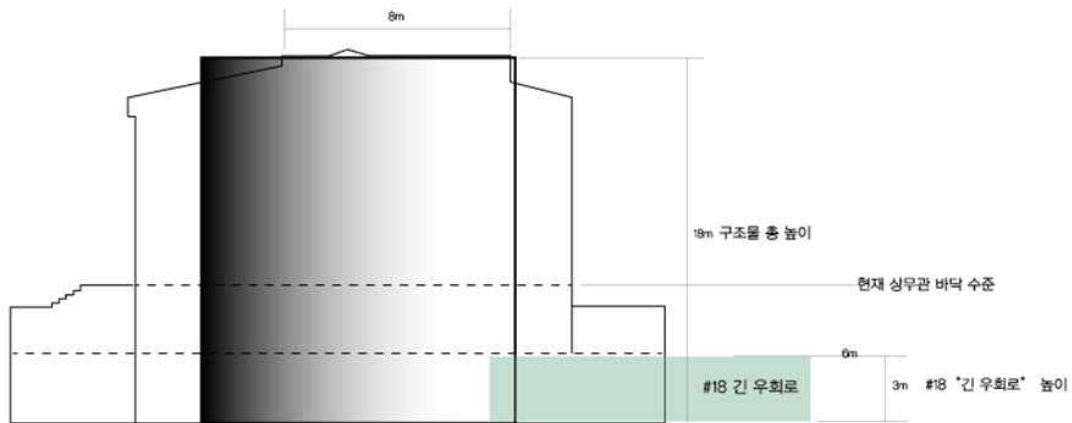
■ ‘메모리얼 홀’ 평면도



현재 바닥에 비해 6m 내려간 지점을 바닥면으로 만든다. 기존 스탠드를 철거하고 지름 14m, 높이 18m의 원기둥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추모의 길에서 구조물 내부가 연결되도록 한다. 출구까지는 계단을 설치하여, 계단을 올라가며 추모의 감정을 되새기고, 계단을 올라서면 민주의 종으로 이어진다.

■ ‘메모리얼 홀’ 단면도

Memorial Hall (단면도)



■ #19-2 긴 우회로

인권관[도청본관]과 메모리얼 홀[상무관]을 잇는 지하통로. 인권관 지하 1층 출구에서 광장을 관통하여 메모리얼 홀에 이르는 원통형 구조의 통로를 통과한다.

직선 연결로가 아닌 우회경로이자 경사가 변화하는 이 길을 따라가면서 관람객은 당시 현장과 지금이 갖는 간극 혹은 거리를 감각한다. 추모를 위해 통과해야 하는 길은 가볍고 경쾌하고 빠른 여정이 아니라 무겁고 굴곡이 있으며 느린 길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 오직 짐작만 하는 것들. 떠나버린 희생자들과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 그날 이후에도 무심하고 비정하게 지속되는, 살아야 하고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삶과 일상들.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복합체를 안고, 관람객은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상무관으로 다가간다.

■ ‘#19-2 긴 우회로’ 콘텐츠 개요

구분	인권관(도청본관) → 메모리얼홀(상무관) 지하통로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관 지하1층 출구에서 광장 관통, 메모리얼홀 원통형구조 내부로 연결[compelling passage] - 공간의 극적 반전, 뿔공간 체험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통로[5m(w) x 3.5m(h)] - 광장 지하상가 지면부분은 완만한 마운드 조성 - 거칠고 칙칙한 느낌의 콘크리트 마감 - 군데군데 흐릿한 철망 황열등 설치 - 비상구
검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매입, 지하통로 준설 - 현 상무관 앞 주차장 진입로 변경 부분과 지하통로의 교차 여지 검토 요

■ #20 거룩한 돌들

상무관은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시신을 안치했던 장소로, 추모와 제의의 공간이다. 지붕을 관통하는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광이 들어오게 하고, 그 아래 다듬지 않은 버석버석한 상태의 자연석을 설치함으로써 당시 안치된 관들을 암시한다. 측면에는 '상념의 벽'을 설치하여 희생자 전원의 이름과 생몰연대, 희생된 자리를 레터링한 유리 패넬을 눈높이에 맞춰 두른다. 관람객은 5열종대로 놓인 오브제들 사이를 걸어 다니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어둡고 긴 우회로를 빠져나오면 자연광이 얼굴을 비추며 공간적 체험의 반전이 일어난다. 상무관 지붕을 관통하는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물은 천장이 없어 외부의 날씨를 그대로 느끼는 구조다. 바닥에는 다듬지 않은 버석버석한 상태의 자연석을 설치함으로써 당시 상무관에 안치되었던 관들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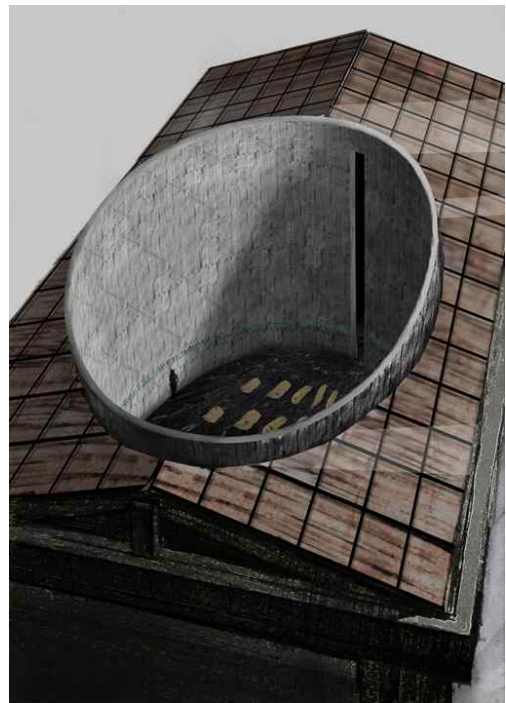
입구 맞은편에는 돌출문자로 된 사인보드와 함께 한글, 알파벳, 각 아시아언어로 표시된 아름다운 글이 적혀있다. 측면에는 '상념의 벽'을 설치하여 희생자 전원의 이름과 생몰연대, 희생된 자리를 레터링한 유리 패넬을 눈높이에 맞춰 한 줄로 두른다.

송고를 말하는 일은 쉽지 않다. 관람객은 5열종대로 놓인 오브제들 사이를 걸어 다니며 조용히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산 자의 의무는 두 가지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 그리고 죽은 자를 기억하는 것.

■ ‘#20 거룩한 돌들’ 콘텐츠 개요

구분	메모리얼 홀 - 원통형 구조물 내부
공사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물(직경 15m, 높이 18m) - 배수시설 - 바닥; 고급 오크 플로어[방수] or 검은 대리석 마감
조명	오픈 천정의 자연광
오브제	다듬지 않은, 버석버석한 자연석[화순 운주사 돌]. 당시 안치된 관을 어렵듯이 암시하는 형태.
전시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구 : 땀 뚫린 하늘, 공간의 극적 반전 체험. 비가 와도 좋고 눈이 내려도 좋다. - 오브제 5열 종대 배열 : 방문자들이 오브제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상념에 잠길 수 있게 한다. 꽃을 놓기도 하고. - 상념의 벽; 5·18 희생자 전원의 이름, 생몰연대, 희생된 자리를 명기한 레터링[한글&영문] 유리 패널을 방문자 눈높이에 한 줄로 두른다. - 사인보드; 입구 맞은편에 돌출문자 & 아름다운 글 ← 한글, 영문, 각 아시아어들.

■ ‘#20 거룩한 돌들’ 개념삽화



■ #21 그날 이후의 오렌지 시계

80월 5월의 광주는 구체적이고 국지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5·18 광주민주화항쟁이 국내외에 끼친 역사적/시간적 파장을 지역별 타임라인을 통해 계열화함으로써, 민주화의 에너지가 광주로부터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로들을 전시한다.

콘크리트 외벽 유리 패넬에 에칭으로 새겨진 텍스트에는 세계 언론에 비친 광주의 모습에서부터 이후 세계 각지로 불붙듯이 퍼져나간 민주화의 여정이 기록된다. 80년대 필리핀의 차량시위에서 미얀마의 군부통치와 학생운동, 중국의 천안문 사태, 멕시코의 치아파스 반군 투쟁,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사태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와 남미를 관통하는 민주화의 세계사적 궤적이 그려진다.

■ ‘#21 그날 이후의 오렌지 시계’ 콘텐츠 개요

구분	메모리얼 홀 - 원통형 구조물 내벽
주제	오월 광주로부터 국내/해외로 퍼져나간 시간의 파장
표현 방식	구조물 콘크리트 외벽 유리 패넬에 에칭 타이포그래피
전시콘텐츠	<p>오월 광주의 역사적 임팩트를 지역별로 타이라인 구성, 광주로부터 나가는 ‘경로들’을 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격랑, ‘6월항쟁’과 이후 ‘일베’ - 폴란드 : 바웬사 자유노조 연대 투쟁 - 필리핀 : 80년대 ‘차량시위’ - 미얀마 : 군부통치와 학생운동 - 중국 : 천안문 사태 - 멕시코 : 치아빠스 반군 투쟁 - 인도네시아 : 동티모르 사태 <p>… 방문자들, 외벽을 돌아서 출구 쪽으로 동선 유도</p>
텍스트 (한글/각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언론 반사경에 비친 오월 광주 - “광주의 인상은 약탈과 방화와 난동이 아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란 대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 AFP 통신, 1980. 5. 25. 타전 - “광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진전에 크게 기여했다. 광주항쟁은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의 붕괴와 중국 천안문 사건에도 영향을 주었다.” - 요미우리

■ ‘#21 그날 이후의 오렌지 시계’ 실제 전시 텍스트(안)

“광주의 인상은 약탈과 방화와 난동이 아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란 대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AFP 통신, 1980. 5. 25

“광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진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이뤄진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지도자들 마음속에 광주항쟁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항쟁은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의 붕괴와 중국 천안문 사건에도 영향을 주었다.”

—요미우리 신문 홍콩 특파원, 마쓰나가 세이타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1980년 광주의 3일간 군대 만행으로 빛은 희생보다 더 큰 것은 없었다. 군대의 만행은 이내 7일 간의 광주 민중 항쟁으로 치달았다. 대한민국의 거대 신문들은 광주 소재 (주)한국화약 창고의 다이너마이트 탈취 같은 시위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강조했고, 군대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수년 동안 많은 남한인과 몇 명의 미국인은 광주항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을 들춰냈다. 미국은 사실상 비난 또는 적어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미국 AP 통신 기자, 샘 제임슨

“나는 지난 25년 동안의 기자 생활 중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중화인민공화국의 장칭 등 사인방 재판, 그리고 인도의 인디라 간디 수상 암살 이후 폭동과 살인사건 등을 취재해 왔다. 그러나 나는 ‘광주’의 참상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건이 나의 기억 속에 가장 뚜렷하게 남아 있느냐고 누가 물어보면, 한 마디로 나는 ‘광주’라고 대답한다. 광주항쟁 기간 동안 단 하루밖에 광주에 머물지 않았지만, 1980년 5월 26일 그날 하루만으로도 바로 죽음을 걸고 폭압에 맞서 투쟁했던 용감한 광주시민들의 모습이 나의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광주야말로 나의 기자로서의 경력 중 가장 감동적인 경험을 제공해 준 곳이었다.”

—미국 선(Sun) 서울 특파원, 블레들리 마틴 볼티모어

“광주 민주화 항쟁은 대한민국 사회가 겪었던 정치적인 사건의 전환점이다”

—미국 프리랜서 기자, 도널드 커크

“나는 외국인이지만 역사의 한복판에서 고통 받았던 광주 시민을 만났을 때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세계인들도 나처럼 5·18 역사를 배운다면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사진작가/저널리스트, 마티아스 라이

“5·18은 사실상 군인들에 의한 폭동이었다.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찬 시민들 앞에서 시위대를 추격하며 곤봉으로 때리고, 최루탄은 물론 총까지 쏘았다. 공수부대원들은 상점과 시내버스 안까지 쫓아가서 젊은이들을 잡아 끌어냈다. 광주는 분노로 일어섰다.”

—미국 LA타임스 일본 지부 총국장, 테리 앤더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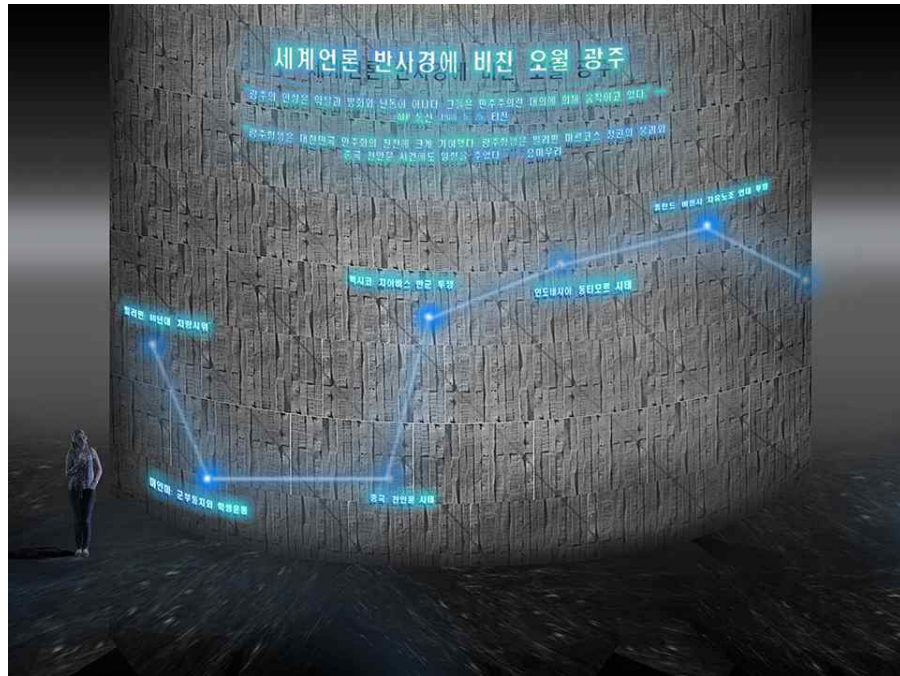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향한 길고 긴 투쟁의 일부분이다. 앞 세대가 자유선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금 젊은 세대가 배우고 진심으로 감사하길 바란다.”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AWSJ), 서울 상주 특파원, 노먼 소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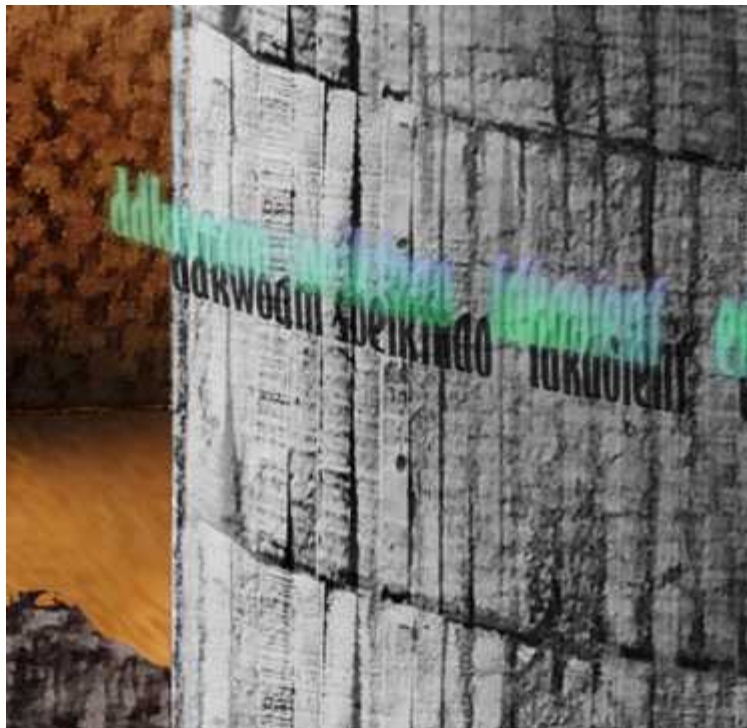
“80년 광주는 1415년 아쟁쿠르에서 있었던 육박전을 연상하게 한다. 육군 병사들이 착검된 총을 가지고 인간을 도륙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500년을 더듬을 수밖에 없었다.”

—뉴욕타임스 서울 특파원, 헨리 스코트 스톡스

- ‘#21 그날 이후의 오렌지 시계’ 개념삽화



- ‘#21 그날 이후의 오렌지 시계’ 추모홀 외벽 개념삽화



■ #22 환호하는 噴水

80년 5월, 상무관 옥상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올라가 있었다. 누구보다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분수대의 시민궐기대회를 바라보던 그들. 그때 그들의 염원을 압축하여 당시의 군상을 하나의 반추상 양식 거상으로 표현한다.

거상은 옥상 모서리에 걸터앉아 환하게 웃고 있다. 그는 분수대를 향해 박수를 치며 갈채를 보내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공동체의 환희를 표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관람객의 시선을 분수대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또한 거상의 존재는 광장에서 바라본 상무관의 넓고 허름한 외관을 상쇄시켜 줄 뿐 아니라, 광장으로 진입하는 모든 방문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아이캐치(eyecatch)로서의 역할 또한 기대할 수 있다.

■ ‘#22 환호하는 噴水’ 콘텐츠 개요

구분	옥상 남쪽 모서리 - 메모리얼 홀 외부
주제	오월 광주, 절대공동체의 환희
표현 방식	높이 8m, 철망으로 엮은 거상 1점 + 로봇틱스
전시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쟁 당시 분수대 시민궐기대회를 바라보는 옥상의 시민 군상을 압축 표상한다. - 옥상 모서리에 걸터 앉아 환하게 웃으며 분수대를 향해 갈채를 보내는 포즈. - 분수대로 시선 집중, 분수대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 반추상 양식.
효과	현 상무관 외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광장 전체에 아이캐치 역할.

- ‘#22 환호하는 噴水’ 개념삽화



V. 공간 계획

1. 기본 컨셉

2. 5·18민주광장 조성(안)

V. 공간 계획

1. 기본 컨셉

보존의 형식

보존건물의 공간계획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보존의 범위와 방법이다. 연구 진행과정에서도 건축물의 보존에서 외관과 내부를 모두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고고학적 보존을 지지하는 주장이 일부 관련주체나 시민 여론에서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의 현대 건축과 도시계획에서는 보존의 개념을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고고학적 보존보다는 건물의 외관은 보존하며 필요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건축물의 역사성을 살리고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용도에 따라 내부 구조의 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기념관 역시 사적지로서의 보존건물 원형을 유지하는 건축적 원칙으로 내부는 전시를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22개의 전시콘텐츠를 전시할 전시면적[경찰청본관, 민원실, 도청회의실, 도청본관, 상무관] 총 6792m²[2058평]을 확보하였으며, 내부 리모델링은 강력한 극장성(theatricité)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다.

■ 보존건물의 외관 - ‘정지된 시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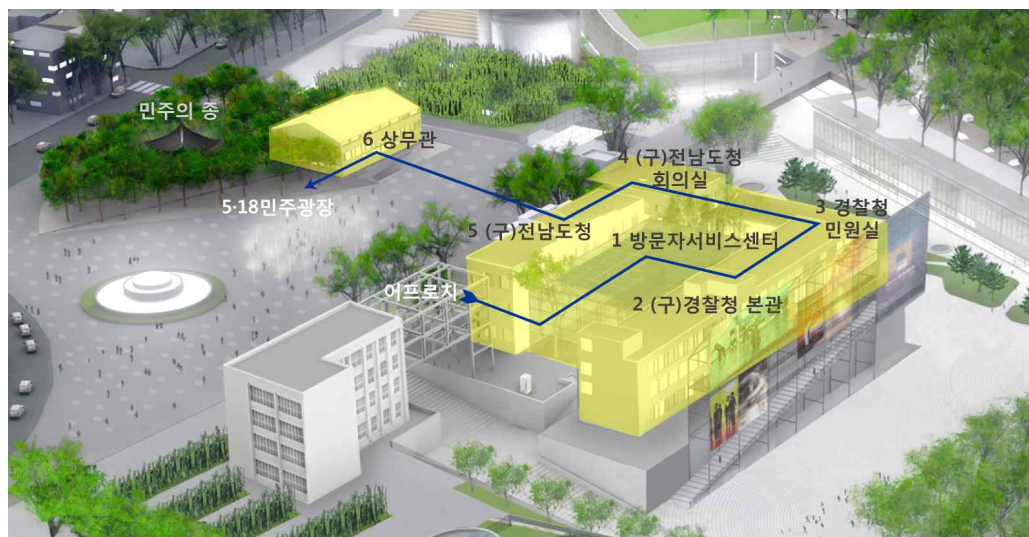
원형적(Archaic) 질감을 전시적 물성으로 전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기존의 흰색 페인트칠을 새로 칠하는 등의 같은 계획을 중단하였다. 보존건물의 외관과 구조가 도시 전체 공간의 한 결(fabric)로 남아있을 때 심미적,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기념관 보존건물의 경우 건물이 겪어온 시간이 외관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



| 그림 47. 도청회의실 벽면. 2013.06

이것을 재도장으로 덮어버리는 계획은 건축과 보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원래 건물의 외관 질감을 살리고, 건축 이후에 건물이 변화한 흔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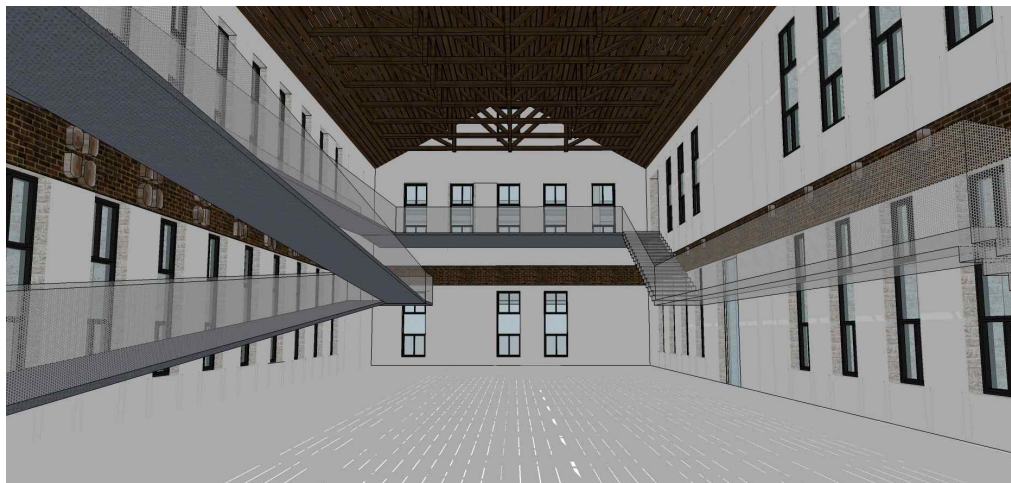
■ 연결통로를 통한 공간 통일성



| 그림 48.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전시 콘텐츠 동선 계획

도청본관, 도청회의실, 경찰청민원실, 경찰청본관을 기념관으로 활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건물의 난립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시 내용에 맞추어 건물간 연결통로를 만들어 ㄷ자형 영역의 공간적 통일성을 부여한다.

- 또한 기존 계획안에 따라 진행된 리노베이션은 문제도 많았지만 리노베이션 과정 중 건물 본연의 건축적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건축미에 현대적 감각(하이퍼모던 센스)을 더한 리노베이션 계획은 경찰청 민원실과 상무관에 반영하였다.



| 그림 49. ‘평화관’ - 경찰청 민원실 컨셉도

공간 측면에서 기념관은 보존건물의 제약도 있지만 역사적 현장의 아우라와 장소성을 지닌다. 이것만으로도 명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전시콘텐츠와 시너지를 일으켜 국내/세계 관광객 방문동기를 유발할 것이다.

■ 공간 구축 방향

■ 경찰청 본관

구 분		내 용
경찰청 본관	문화재 구분	-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
	지역지구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문화자원보존지구, 방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건립연대	1960년대 후반
	건축양식	모더니즘 양식
	주요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용도	업무시설
	건축규모	지상 3층 (건축 높이: 17m)
	건축면적	849.61㎡ (실측면적 기준)
	연면적	2,475.3㎡

1전시관으로 전시를 위한 최적화된 공간 조성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시설물(화장실, EV 등), 시설관리실, 수장고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전시공간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으로 방향이 결정되었다.

1, 2층의 복도는 유지하되 3층은 전체를 한 전시 콘텐츠로 조성될 수 있도록 복도 기둥을 제거하는 것으로 구조정밀안전진단 및 구조설계하도록 진행한다.

■ 경찰청 민원실

구 분		내 용
경찰청 민원실	문화재 구분	-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
	지역지구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문화자원보존지구, 방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건립연대	1944년
	건축양식	철충주의 양식
	주요구조	벽돌 조적조
	건물용도	업무시설
	건축규모	지상 1층 (건축 높이: 12.95m)
	건축면적	414.02㎡ (실측면적 기준)
	연면적	414.02㎡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2차 현장조사 중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발견된 건축적 아름다움을 살려, 기존 리모델링(안)에 2층으로 계획된 공간을 단층으로 오픈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동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외벽 H빔 철골구조 buttress를 유지하고, 지붕은 기와를 걷어내고 목재 트러스구조를 적극 활용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 그림 50. 참고 자료 - 조병수 ‘온그라운드 스튜디오’ 목조주택 개조



| 그림 51. 참고자료 - 최우람 ‘고생대 기계생물체’ 키토크아트

■ 도청회의실

구 분		내 용
도청 회의실	문화재 구분	시도유형문화재 제6호 (지정일 1981.10.20.)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1
	지역지구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문화자원보존지구, 방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건립연대	1932년 5월 15일
	건축양식	모더니즘 양식
	주요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용도	업무시설
	건축규모	지상 2층 (건축 높이: 13.106m)
	건축면적	422.53㎡ (실측면적 기준)
	연면적	1,467.53㎡

지하 1층, 지상 1, 2층으로 구성된 도청회의실은 전시와 러닝센터로 구성되며, 이 기능에 의한 공간계획 후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상 1층은 JMB Jewish Museum Berlin의 사례연구와 시민참여프로그램이 수용 가능한 러닝센터의 기능적이며 운영체계를 포괄하는 공간으로 구축 계획이다. 2층 극장은 보존이 원칙이나 러닝센터 기능에 의해 간단한 콘텐츠 공간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

■ 구도청본관

구 분		내 용
도청 본관	문화재 구분	등록문화재 제15호 (등록일 2002.05.31.)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
	지역지구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문화자원보존지구, 방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건립연대	1930년 12월 5일
	건축양식	절충주의 양식
	주요구조	콘크리트 보강 벽돌조
	건물용도	업무시설
	건축규모	지상 3층 (건축 높이: 17.234m)
	건축면적	440.45㎡ (실측면적 기준)
	연면적	1,427.63㎡

도청본관의 중앙계단은 각층을 양분하여 전시 흐름을 차단하는 문제가 연구초기에 도출되었으나,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전시 콘텐츠 중 하나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0월까지의 연구개발안에서는 1층을 굴착하여 전시콘텐츠에 최적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으나, 여론수렴회의 과정 중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원형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공간 변경은 최소화 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 상무관

구 분		내 용
상무관	문화재 구분	-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2-2
	지역지구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문화자원보존지구, 방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건립연대	1960년대 후반
	건축양식	모더니즘 양식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용도	업무시설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 (건축 높이: 15.7m)
	건축면적	667.03㎡ (실축면적 기준)
	연면적	711.88㎡

보존건물 4개동과 격리되어 있는 상무관은 전시 시나리오의 에필로그인 메모리얼홀로 강제동선을 구축하여 기념관 전시를 완성한다. 전시목적성이 가장 뚜렷한 공간인 상무관은 추모의 공간으로 숭엄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콘텐츠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경건성을 부여하기 위한 전시 콘텐츠 조성 방안으로 천고를 높이고, 광장으로 통하는 출구 바닥은 검은 대리석으로 마감한다. 이를 위해 지면을 굴착하여 천고를 확보하고, 콘크리트 실린더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5·18 민주광장 조성(안)

앞서 해외 사례에서 보았듯 민주인권평화 기념관과 같은 사업에서 건축미는 매우 중요하다. 기념관의 건축을 다룰 때 흔히 각각의 건물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지만, 이 건물들이 자리잡은 공간(space)이 매우 중요하다.

기념관이라는 공간은 질량(mass)을 가진 건축물과 이 건축물 주변의 공간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념관에서 공간이라고 부를만한 곳은 민주관, 인권관, 평화관으로 둘러싸인 중정공간과 민주광장이 있다. 애석하게도 중정에 해당하는 공간은 방문자서비스센터로 채우게 되었고, 건축물의 의미를 더 또렷하게 살려주는 중정의 기능은 상당부분 희석될 수밖에 없다.

남은 공간은 민주광장이다. 따라서 민주광장은 난립한 보존건물들을 시각적, 심리적으로 재배치해주고 기념관 공간의 정체성에 방점을 찍어줄 유일한 요소이다. 광장을 어떻게 조성하는지에 따라 기념관의 건축적인 성패가 갈린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광장 조성은 단순히 빈 공간을 형식적으로 채우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광장 조성 방안을 구상하였다. 그 결과 광장의 주제는 고인돌로 정하였다.

고인돌은 아프리카,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러시아, 동북아 등 전 세계에 6만기 산재해 있는데 그 중 4만기가 한반도에 집중해 있고, 강화, 고창, 화순의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국내 분포를 보면 전남에만 2만기가 있어 세계 고인돌의 30% 가량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분포밀도를 보인다. 고인돌은 한반도 대표 세계문화유산이며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로 자리잡을 여건을 갖추고 있다.

민주광장은 다수의 고인돌 거석모뉴먼트를 배치한 대지예술로 조성할 것이며, 작품명은 ‘영원한 돌’이다. ‘영원한 돌’의 모티브는 BC 5000년경부터 시작된 거석문화로, 이곳은 5·18광장의 상징성을 살린 제의와 축제의 공간이다. 영원한 돌의 표층구조는 대지예술(Earth Art)이 배치된 공간이지만, 심층구조는 추모의 상징(Memorial Symbol)이다.

민주광장의 거석모뉴먼트는 고인돌 자체의 중량감, 고고학적 시간성, 근원적 물성을 내뿜으며 오월정신의 불멸을 상징한다. ‘영원한 돌’을 통해 광주 정신의 불멸과 희생자들의 피의 응고에 대한 추모, 그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잡아당기는 랜드마크(landmark)를 만들 수 있다. 이 곳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시민과 방문자들이 상념에 잠기는 곳이 된다.



| 그림 52. ‘영원한 돌’ 개념 그림

■ 조성 계획

2,700평의 광장에 희생자 수를 상징하는 165개의 거석모뉴먼트를 광장 전체에 배치한다. 지반은 1m 깊이로 자갈, 숯, 소금, 황토를 순서대로 적층하여 롤러로 굳기 마감을 한다. 황토는 전라도의 황토(나주, 무안)를 사용하여 시각효과가 극대화되며 지역적 상징성도 살릴 수 있다.



화순 핑매바위



강태바위 고인돌군



마당바위 고인군



달바위 고인돌군

■ 5·18민주광장 조성 관련 협의 내용 (2013년 11월 현재 진행 중)

■ 고인돌 모뉴먼트 광장조성안 여론 및 업무 협의 현황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호평을 받았으나, 여론 수렴 회의 과정에서 일부 시민에게는 무덤 이미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의견이 나왔다.

5·18민주광장은 광주시청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공동 조성하는 것으로, 광주시청은 여러 번의 조성안을 가지고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재는 박석으로 광장을 조성하는 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5일 광주광역시청 주재 본 콘텐츠 기획안 보고에서 광주광역시 측은 고인돌 모뉴먼트 조성은 추진단의 광장 조성 구역인 상무관 인근 동산으로 부분적인 조성을 제안하였다.

이후 2차로 가진 2013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청 주재 기념관 콘텐츠 기획안 보고회에서 위와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회의가 정리되었으나, 광주광역시 측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광주광역시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운영개요

- 기간 : 2013.11.14-협의완료시까지
 - 구성 : 9명
 - 문화부 : 전담운영협력과장, 황지우 교수, 김호균 전문위원, 전담운영시설과장
 - 광주시 : 문화수도정책관, 인권담당관, 시민협력관, 교통정책과장, 도로과장
 - 협의사항
 - 고인돌 설치, 광장 바닥시공, 민주외종각 이설 등 5·18 민주광장 조성 계획
 - 전시관(경찰청 본관)조성에 필요한 금남로 아스팔트 활용 방안
 - 가칭)민주인권평화 기념관 명칭 선정
 - 금남로 민주 성역화 사업(호남 4.19 혁명단체 총연합회 제안)
-

위 관련 1차 협의체 회의가 2013년 11월 19일 추진단 광주사무실 대회의

의실에서 개최되었다. 5·18민주광장 및 ‘민주의 종’ 조성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을 아문단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금남로 아스팔트 제공) 기념관 전시에 활용 될 수 있도록 도청 및 금남로 주변 아스팔트 제공 협조(광주시 도로과)
⇒(검토의견) 규격, 규모, 시기 등 별도협의 후 추진
- (민주의 종각 이설 및 광장 조성) 민주의 종각은 적정 이설 장소가 없고, 광장은 광주시 설계안대로 시공(광주시)
⇒(검토의견) 황지우 교수 제안 사항으로, 추진 경과가 상당히 진척된 현 상황에서 별도 검토 계획 없음
- (5.18상징타워) 5.18상징타워(5·18m)의 건립 위치 등을 검토하여 용역 안에 반영 요청(광주시)
⇒(검토의견) 전당 내 5.18상징타워 건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 용역안의 과제로 포함할 수 없음
- (도청과 상무관 연결) 구,도청과 상무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지하통로 설계 검토(광주시)
⇒(검토의견) 지하상가 및 배수관로 등 지하 상태를 먼저 검토한 후, 자연스러운 연결 방법을 모색
- (콘텐츠) 12월에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전시콘텐츠 2차 보고를 제안

1차 회의에서 광장 및 ‘민주의 종’ 관련 본 연구 내용이 적극 반영된 안건은 없으나, 후속사업에서 협의체 운영을 계속할 예정이므로 연구팀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해외유사사례 분석

- 루브르 박물관 유리 피라미드 : 1985년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이에오 뎡페이 설계. 이제 신화가 된 에펠탑 철구조물이 지어질 때처럼 심한 찬반 논란에 휩싸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파리의 제2 상징물. 1년 루브르 입장객 850만 명. 유리 피라미드 설치 후 3배 증가.

- 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By Peter Eisenman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뒷편, 19,000m² 면적에 2711개의 콘크리트 스텔레[묘비석]

○ 지반조성과 문제점 대안

- 광장 면적; 2,700평. 지반 인장력 정밀검사 후 고인돌 총 무게 조절
- “경량 강관 및 인강 강화 강선을 이용한 라멘조 구조보강 공법”
- 지반; 전라도 황토[나주, 무안] ← 상징성
- 지반 다지기: 1m 깊이로 자갈, 숯, 소금, 황토 적층 후 롤러로 굳기 마감
→ 시각적 ‘간지’ 최상
- 폭우 시 지반 침해 : 소그린’ 공법으로 해결

• 대안 1 : 고인돌 모티브 대지미술 제작

- 광장 사이트의 명소화 : 방문/재방문 동기유발
- 오브제 경량화로 지반 인장력 문제 해결

• 대안 2 : 광장 고인돌 모뉴먼트 배경으로 야간 實景公演(실경공연)

- 개관기념공연

○ 대응논리

- 광주시청 박석안과 시뮬레이션 후 전문가 비교검토 필요
- 신석기시대-2600년 전 고인돌은 꺼림직한 무덤이 아니라 우리나라 독보적인 세계문화유산 브랜드이다.
- 전남은 단일 면적 내 고인돌 최대 밀집지역[2만기], 브랜드 선점.
- 가장 오래된 예술품은 부장문화. Eg. 이집트 고왕조시대 피라미드
- 루브르박물관 앞 유리 피라미드는 무덤인가?
- 베를린 중심지, 유대인학살기념관의 콘크리트 스텔레[고대그리스 묘비석]는 꺼림직한 무덤인가? 왜 관광객이 쇄도하는가?
- 고정관념에서 오는 거부감 때문에 짓지 못했다면 오늘날 관광객이 몰리는 파리의 랜드마크 에펠탑은 어떻게 되었을까?

VI. 서비스 콘텐츠 - 자원수집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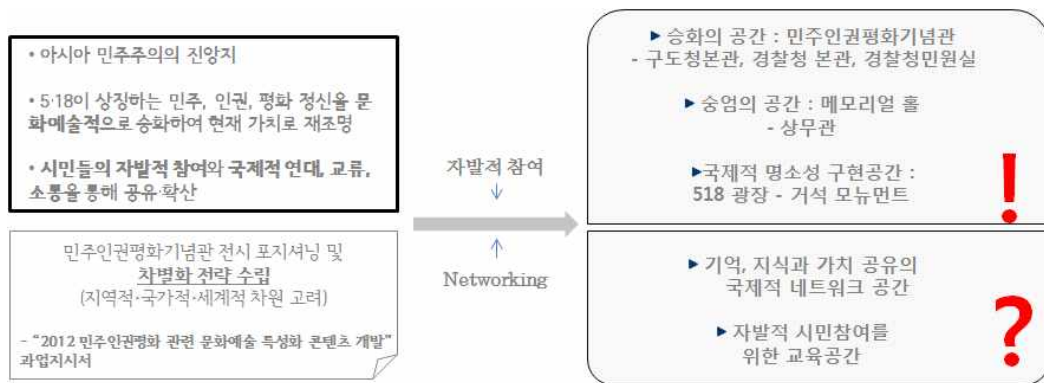
: 러닝센터

1. 개요
2. 사업 내용
3. 실행 계획
4. 기대 효과

VI. 서비스 콘텐츠 - 자원수집 및 활용 : 러닝센터

1.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5·18가치의 일상화와 문화화, 교류와 연대의 거점화, 연계시스템을 통한 운영 효율화와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기념관이 교육과 교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해외 사례에서도 교육기능이 기념관 운영의 중심축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 과업지시에는 자원수집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것을 토대로 교육과 시민 참여가 연계된 러닝센터 계획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다. 단순히 자원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더해 이것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미래세대와 대화하는 것이 기념관의 사명이며, 러닝센터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한다.

기능을 구체적으로 들면 연구, 아카이빙, 교육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DB 구축이다. 이에 더해 시민여론수렴과정에서 5·18의 사실적 재현의 문제, 기존 5·18기념관에서의 주변화 된 여성의 문제, 5·18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일반시민의 교육 및 소통 문제, 5·18의 확장 문제, 광주 전역에 산

재해 있는 5·18 관련 주요 사적지와 기념관의 연계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연구 과정에서 이러한 개별 주제들을 통합적으로 전시하며 전시콘텐츠의 경험을 보강할 수 있는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나. 목적

- ‘2012년 민주·인권·평화관련 문화예술 특성화 콘텐츠 개발 사업’에서 도출된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 러닝센터 구축 계획(안)’에 근거, 공간적·물리적·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기념관 전시 콘텐츠 이해 및 가치 공유를 위한 비러닝(B-Learning) 방식의 멀티미디어 활용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

※ 비러닝(Blended-Learning) : E-Learning(전시 주제 가상 교육)+G-Learning(민주·인권·평화 가치 관련 인터랙티브 게임)+U-Learning(스마트 기술 활용 정보제공) 등이 결합된 통합 멀티미디어 에듀테인먼트 방식

- 국내외 민주·인권·평화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를 연계하여 5·18 당시의 현장성과 현재의 시민생활과 접목한 사실성을 복원·창조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광주-지역-세계와 소통하는 교육·정보제공·체험 (서비스)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함.

다. 기능

본 러닝센터는 기념관의 핵심가치가 전당뿐만 아니라 도시 및 아시아와 순환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 아시아의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소통하고 체험하는 Edu-tainment 콘텐츠를 제작, 전시하고 관련 서비스를 운영한다.
- 기념관과 연계하여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아시아 및 국내에 소통할 수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및 시민 매개 프로그램 개발 공간이다.

라. 주요내용

〈민주인권평화 콘텐츠 아카이빙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 민주인권평화 자료 디지털 라이징
- 멀티미디어화 된 외부 자료 네트워크
-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이동 프로그램 개발

2. 사업 내용

가. 사업추진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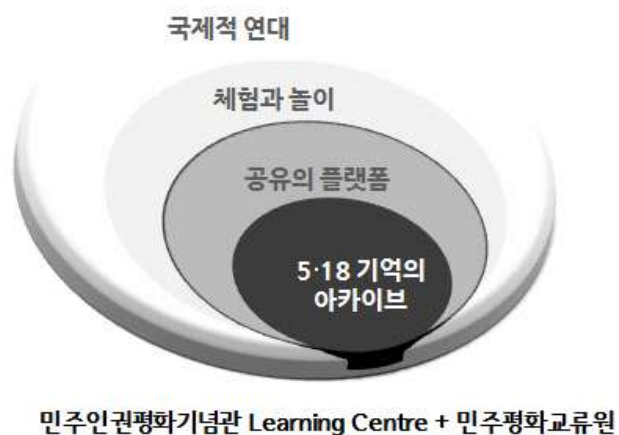
민주평화교류원의 민주인권평화기념관 내 구축될 본 러닝센터는 그 기능의 고유사업과 민주평화교류원의 연계 사업으로 구성된다.

■ 1단계 고유사업: 민주인권평화기념관 러닝센터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러닝센터는 보존건물 기념 공간 콘텐츠를 보충 심화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 2단계 확장협력사업: 민주평화교류원 연계 사업

민주인권평화의 가치 공유 및 소통과 연대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및 각종 국내외 기관과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한다.



나. 사업구성

1)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콘텐츠 디자인
- 공간 디자인
- 시스템 디자인

2) 네트워크 구축

3) 교육프로그램 개발

■ 1단계 러닝센터 고유사업 : 민주인권평화기념관 러닝센터 1)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서비스 시스템 및 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한 목표, 전략, 방법론 연구
- 전당 포탈과 연계 시스템 연구 개발
- 국제적 소통을 위한 Link&Node 시스템 연구 개발
- 온오프라인 연동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 콘텐츠 디자인 (서비스 프로그램) 연구 개발

- 전시연계 프로그램 (B-Learning : E + G + U-Learning)
- 이동 박물관
-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연수, 교육, 치유)

■ 공간 디자인 및 환경 조성

- 도청 회의실 리모델링을 위한 개념설계, 기본 설계, 실시설계

- 문화마루 리모델링을 위한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 환경 조성 사업

■ 시스템 디자인 및 구축

- 5·18 아카이빙을 위한 생성, 관리, 활용, 협업 실행 계획 수립
- 자료 조사 연구 및 아카이빙 구축
 - 5·18관련 자료, 민주인권평화 관련 자료 조사 및 아카이빙
 - 5·18 관련 문화예술 연관 자료 조사 및 아카이빙
- 장비 및 시스템 구축 사업

■ 2단계 민주평화교류원 확장 협력 사업

■ 민주인권평화기념관 2)네트워크 및 국제 협업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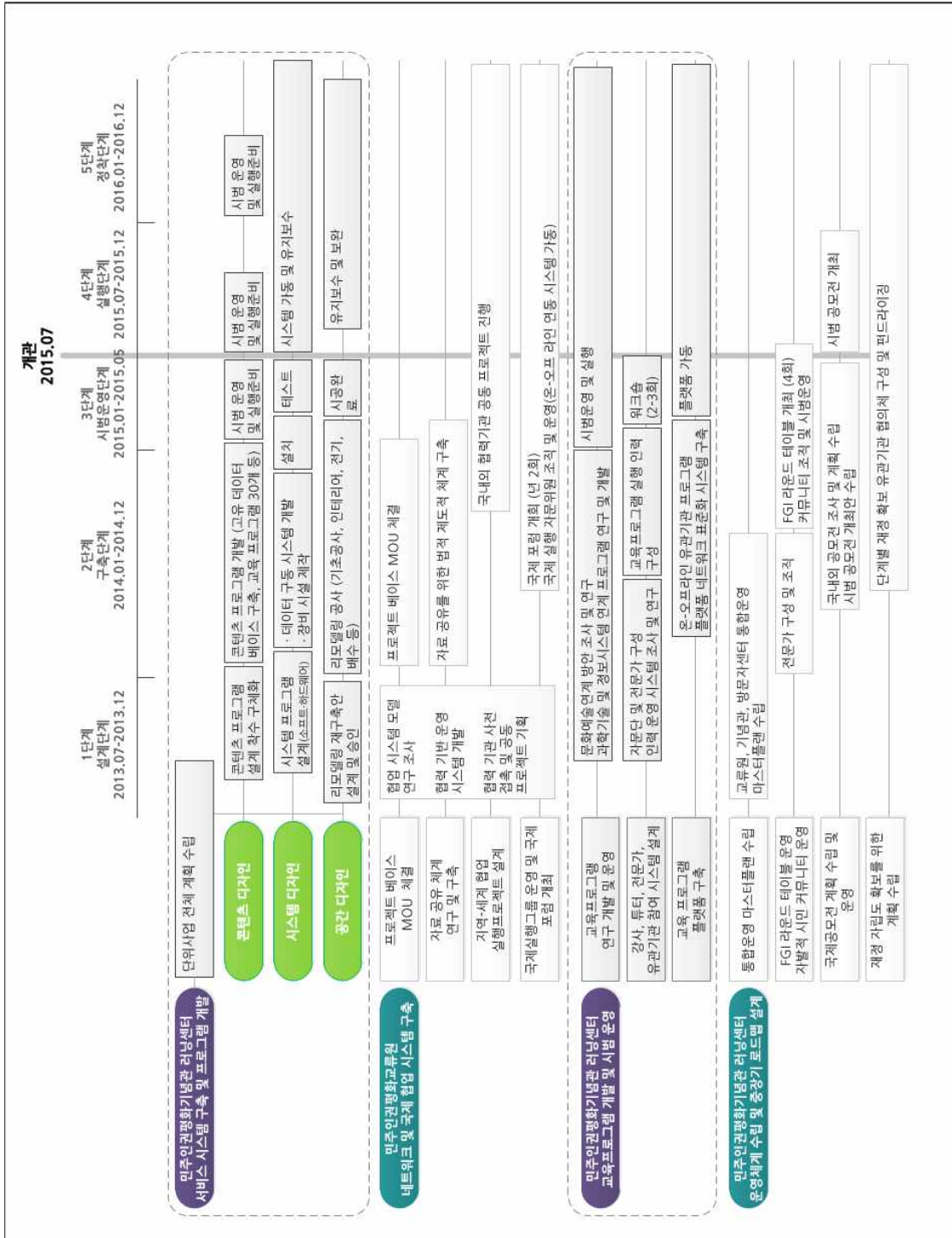
- 국내외 네트워크 사전 조사 및 프로젝트 베이스 MOU 체결
- 자료 공유 체계 연구 및 구축
- 지역-세계 협업 실행 프로젝트 설계 및 운영
- 민주인권평화관련 국제실행그룹 운영 및 국제 포럼 개최

■ 민주인권평화기념관 러닝센터 3)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운영
- 강사, 튜터, 전문가, 유관 기관 참여 시스템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
- 교육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

■ 민주인권평화기념관 러닝센터 운영체계 수립 및 중장기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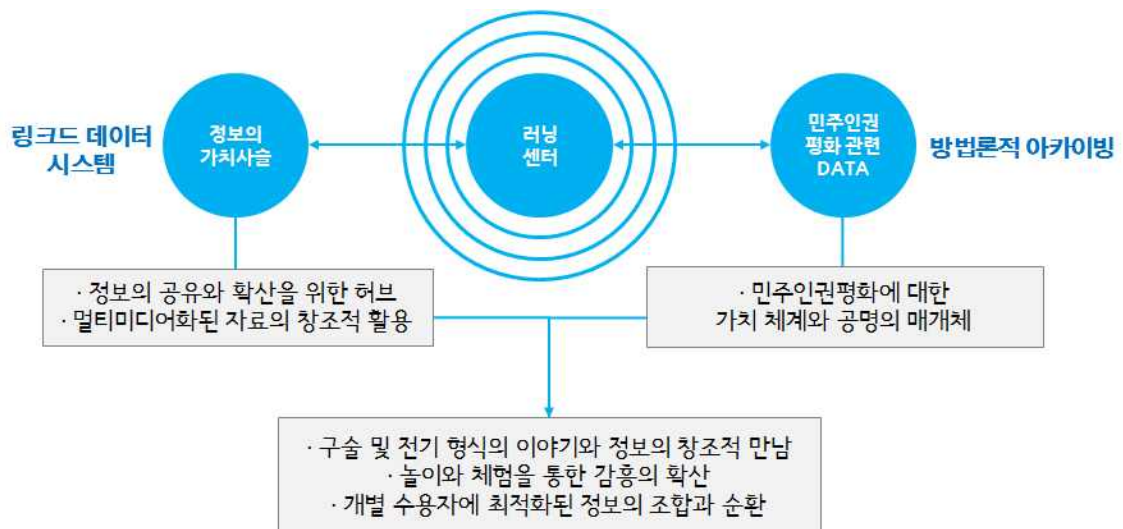
- 통합 운영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
- FGI 그룹 라운드 테이블 운영
- 자발적 시민 커뮤니티 조직 지원 및 운영
- 국제 공모전 계획 수립 및 운영
- 재정 자립도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다. 사업 개념도



라. 시스템 구축 개념도



3. 실행 계획

가.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1) 콘텐츠 수집 및 활용 기획

앞 사업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5·18의 기억과 기념, 민주인권평화의 의미와 가치가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향유되고 순환될 콘텐츠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는 5·18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가 아시아 및 전 세계와 소통되고 연계될 매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인권평화 관련 교육과 연구를 통해 5·18가치를 현재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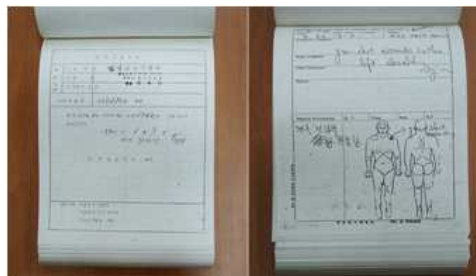
-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인권 도시 모델 구현
-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을 아시아 민주화 운동 진앙지로 부각
- 아시아 및 전 세계 민주인권평화 관련 정보와 담론 선도
- 인문학과 예술적 표현을 통해 치유와 소통의 계기를 제공

■ 콘텐츠 아카이브 기본 분류

- 1차 자료 : 5·18 관련 직접 자료
 - 형식 : 기록된 사진, 음성, 동영상 등

콘텐츠명	관리 기관	형식
5·18현장 사진	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필름, 사진
국가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국가기록원, 광주광역시	문서
군사법 기관 재판 자료, 김대중 사건 자료	육군본부	문서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일기	광주광역시	문서
기자들의 취재수첩	해당 언론사 및 기자	실물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기록	광주광역시	문서
국회의 5·18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회의록	국회도서관	문서, 비디오
피해자 보상자료	광주광역시	문서
미국의 5·18관련 비밀해제 문서	미국 국무성, 국방부	문서

- 1차 자료 예



-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기록



- 5·18에 대한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이 담긴 CD 및 비디오



-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일기



- 5·18 현장 사진

■ 2차 자료 : 1차 자료를 문화 예술로 가공한 자료

- 형식 : 예술작품, 회화, 판화, 조각, 설치미술, 공연, 영화 등

콘텐츠명	수행 기관 및 작가	형식
5·18항쟁 정리를 위한 구술 생애사 연구	5·18기념재단	영상, 음성, 문서
연구지원 논문집	5·18기념재단	논문집
5·18유공자 후유증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5·18기념재단	보고서
5·18피해자 심리학적 부검 및 자살 피해 대책 연구	5·18기념재단	보고서
아시아저널	5·18기념재단	문서
광주민중미술	강연균 미술작가 외	회화
오월의 신부	황지우 시인	희곡
꽃잎	장선우 감독	영화
화려한 휴가	김지훈 감독	영화
26년	강풀 작가	웹툰, 영화

- 2차 자료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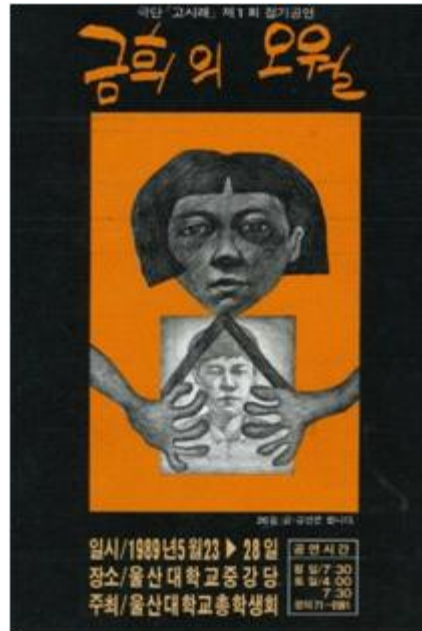
- 5·18기념재단 발간 <주먹밥>, <아시아저널>



- 영화 <26년>



- 웹툰 <26년>



- 연극 <금희의 오월>

- 3차 자료 : 국내외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인 가치를 소재 및 주제로 하는 자료

장르	콘텐츠 명	작가	비고
미술 작품	S.A.C.R.E.D (성스러운)	아이 웨이웨이(Ai Wei Wei)	
	붉은 나의 조국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유실된 집	크리스티앙 볼탄스키(Christian Boltanski)	
	하르부르크 반파시즘 기념비	요헨 게르츠(Jochen Gerz) & 에스더샬레브(Esther Shalev)	참여형 작품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비	마야 린	미국
사운드	지라니 합창단	지라니 문화사업단	케냐
	엘 시스템아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José Antonio Abreu)	베네수엘라

- 3차 자료 예



- 아니쉬 카푸어 <붉은 나의 조국>



- 마야린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비>



- 아이웨이웨이 <S.A.C.R.E.D>



- 기타 자료 : 아시아 및 남미 관련 자료, 생활사 자료

[콘텐츠 2차 자료 특성화 아카이빙 프로젝트 기획 제안안]

- 프로젝트명 : 5·18 최후의 기억, " As Life goes on "

- 5·18 마지막 생존자들의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

- 배경 및 필요성

: 곧 고인이 될 5·18 마지막 생존자들의 당시 현장 상황과 그 후의 삶을 생생한 다큐멘터리로 제작, 아카이빙하여, 민주인권평화 러닝센터의 특성화 콘텐츠로 활용

- 추진방법

- 대상 : 5·18 마지막 생존자들을 나이 순으로 다큐 제작

- 창작 방법 : 지역 및 국내의 젊은 다큐/영화/영상 감독들을 모집하여 제작비 지원 방식으로 진행

- 사업비 : 5편/1년 x 3천만원 x 2년 = 10편 , 3억 (2015년 7월 개관 전)

- 사례 :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다룬 전쟁 다큐멘터리 'SHOAH'

'쇼아'는 히브리어로 '절멸'을 의미한다. 제목이 암시하는 것은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다. 1925년생인 끌로드 란즈만은 **8년간의 촬영과 350시간 분의 인터뷰를 9시간이 넘는 '대작' 장편 다큐멘터리로 완성시켰다.**

이 다큐멘터리는 뉴스 필름이나 당시의 기록 필름을 단 한 컷도 사용하지 않았다. 유대인 학살의 실상은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로만 존재**할 뿐이다.

강제수용소의 생존자들, 나치 협력자들, 그리고 학살 작업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그 들의 과거를 카메라 앞에 드러내는데, 그들 한 명 한 명의 고통스런 체험이 그들이 말속에 들어 있다.

'보는'영화가 아닌, '체험'으로서의 역사.



2) 공간디자인

5·18 및 민주인권평화 정보, 가치의 수렴 및 확산의 공간으로 최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는 수용자 중심 콘텐츠가 집약된 놀이와 체험의 Blended Learning 센터로, 문화예술로 특성화된 민주인권평화기념관 및 메모리얼홀의 전시, 교육 기능을 디지털 미디어 기술로 통합, 교육하는 공간이다.

본 용역사업에서는 러닝센터를 구전남도청 회의실 지상 1, 2층에 조성될 것을 제안하나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완성과 가치 확산을 위한 공간으로는 절대 부족하다고 연구팀은 판단하였다. 아래 비교사례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JMB의 경우 부족한 러닝센터(Rafael Roth Learning Center)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에 AKDEMIE(Eric F. Ross bldg.)를 신축하여 도서관, 아카이브, 교육 공간 등이 베를린 시민에게 서비스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인권평화기념관 러닝센터의 부족한 공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공간, 예를 들어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시아문화마루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 해외비교사례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 전시공간 + Learning Centre + 아카데미]



| 그림 58. 리베스킨트

-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의 경우 2012년 러닝센터 “에릭 로스 아카데미”를 외부에 신축

- 배경:
 - 교육과 연구, 아카이브가 박물관의 정체성과 다른 유사 기관과의 차별화 및 베를린 시민의 삶과 연결되는 매개 공간으로서 기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의해 그 영역과 범주가 점차 확장되었음.
 - 구건축물의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0-12년 리베스킨트의 설계에 의한 "아카데미"를 신축
 - 신축건물에는 도서관, 아카이브, 대강당, 교육 공간, 교육부 사무실 등이 집결
- 연면적: 총 26,712m² = 리베스킨트 + 알트바우 + 아카데미
 - 비교 1 : 전시공간 총면적 5,600 m²
 - 비교 2 : 약 6,178m² = 아카데미 총 면적 5,518 m² + 러닝센터 660 m²
 - 비교 3 : 약 2,586m² = 구전남도청 회의실 1,596m² + 아시아문화마루 약 990m²
- 총 건축비: 약 1억 2천 유로
 - 약 8백만 유로는 독일연방정부가 지원
 - 사업가 에릭 로쓰가 많은 부분 기부
 - 나머지 건축비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기부



| 그림 59. 아카데미
AKADEMIE

구전남도청 회의실 지상 1, 2층에는 인포센터 및 B-Learning 콘텐츠를 중심으로 조성하고, 외부 러닝센터에는 이를 링크한 원격러닝센터 및 교육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도청 회의실 2-3층 복층 공간에는 5개의 주제 정보실을 마련하여 주제별로 심층적 자료를 아카이빙하고 전시한다. 전시실에서는 스크린을 통한 정보제공 뿐 아니라 주제실 벽면과 다양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인포그래픽과 사진 등을 전시하여 전시의 감성체험을 심화하고 보강하며,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흥미를 증폭한다.

▪ 5·18과 역사학

5·18이 한국사에서 갖는 위치를 재조명할 수 있으며, 5·18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어 학생과 시민을 위한 역사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 5·18과 아시아적 지평

5·18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며, 지난 수십 년 간 세계의 민주화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5·18이 세계적으로, 특히 다른 아시아 민주화 움직임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또한 다른 나라의 민주화에 대한 정보를 살펴 보면서 각국의 현대사,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5·18과 한국문학예술

5·18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과 5·18의 영향을 받은 작품, 또한 5·18 정신을 공유하는 작품들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단순한 연람에서 그치지 않고 작품의 계보도, 관계도,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사실과 상식을 알려준다.

▪ 5·18과 여성

평화관의 '밥과 피'에서 5·18의 핵에 여성이 자리한다는 메시지를 예술적으로 표현했다면 이 공간에서는 평화관 전시의 원자료와 학문적 가공자료, 데이터와 시청각 자료를 제공한다. 당시 주먹밥을 만들어 나르고, 부상자를 간호하고, 가두방송을 하고, 현장에 나간 가족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구술자료, 이후에 간행된 관련 자료는 물론 기념과 차원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다.

■ 5·18과 언론

5·18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5·18은 당시의 언론 통제로 인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오랫동안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해 잘못된 평가를 받아왔다. 5·18이 광주에 잠입한 독일 외신기자를 통해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세계에 알려지는 상황에서 국내 언론은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같은 해 가을에는 같은 외신기자가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수년이 지난 후에야 5·18을 다룬 출판물이 비밀리에 출간되었고, 국내 언론은 역시 침묵하였다.

이 섹션에서는 당시의 신문 방송이 5·18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배제하였는지, 외신은 어떻게 5·18을 보도했는지, 그리고 이후의 언론은 5·18과 관련하여 어떤 행보를 거쳤는지를 다룰 것이다. 실제 신문과 영상 원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은 물론 큐레이션을 통해 전달효과를 극대화하고, 언론자료를 이용한 설치 미디어아트도 사용할 계획이다.

■ 구전남도청 회의실 1, 2층

■ 기존 리모델링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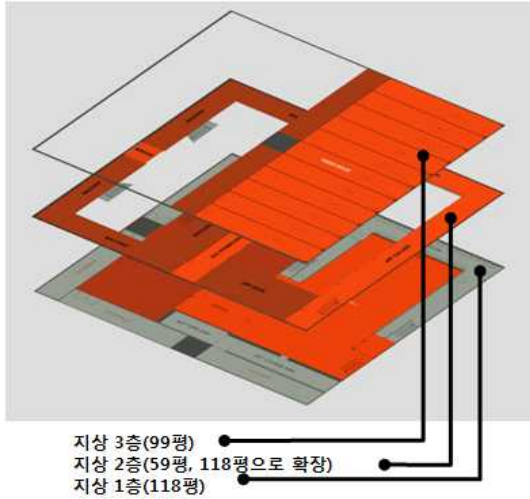


■ 재 구축안

공간	서비스 영역	주요 기능	예상 면적
지상 1층 (100평)	인포센터 (가상 인포센터)	민평기념관 전체 및 러닝센터 안내	10 평
	E&G-러닝 센터	정보, 지식, 체험 영역	80 평
	국내/국외와의 연계	국내/국외기관 정보검색 영역	10 평
지상 2층 (100평)	극장 (블랙박스)	강연 및 콘텐츠 쇼케이스 / 홀로그램 상영관	50 평
	U-러닝	프로그램 플랫폼	50 평
공용 공간 (60평)	화장실, 계단, 로비, 공조시설 등		60 평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 - 아시아문화마루

■ 현황



■ 재 구축안

공간	서비스 영역	주요 기능	예상 면적
1층 (118평)	인포센터 (가상)	기념관 전체 및 이러닝센터 / 콘텐츠 안내 및 교육	50 평
	커뮤니티 공간	민주인권평화 관련 콘텐츠 삼 / 일반인 북 카페	30 평
	발표 공간	시민프로그램 및 제작 콘텐츠 전시	20 평
	운영지원 공간	방문자-참여자 편의 지원	18 평
2층 (118평)	체험프로 그램 1	민주인권평화 워크숍 (2실)	40 평
	체험프로 그램 2	지역연계 교육, 연수	60 평
	사무실	기획/운영/연구/ 지원	18 평
3층 (99평)	휴게 공간	참여자 커뮤니티 룸	9평
	스튜디오 5실	민주인권평화 관련 콘텐츠 제작	90 평
중정 (90평)	행사 및 페스티벌	공연/낭독회/주먹 밥 축제	90 평

■ 움직이는 박물관 예



| 그림 60. 로얄 온타리오 이동식 박물관 초기



■ 다른 형식의 이동식 박물관 : MM

Mobile Museum by Fabbrica

- 파브리카의 모바일 뮤지엄은 디자이너 딘 브라운과 필립 본에 의해 만들어짐

- 자동차가 포맷이 아닌 미리 제작된 전시 설치 프레임을 매개로 하고, 전시 내용 구성은 전세계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로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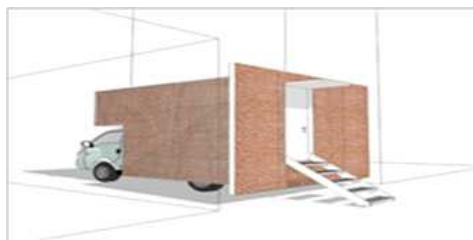
- 밀라노, 런던, 브뤼셀, 헬싱키, 룩셈부르크, 베이징, 홍콩 등지에서 전시



| 그림 62. MM 베이징



| 그림 63. MM V&A 뮤지엄. 런던



| 그림 64. 서도호의 '틈새호텔'

■ 인터페이스 장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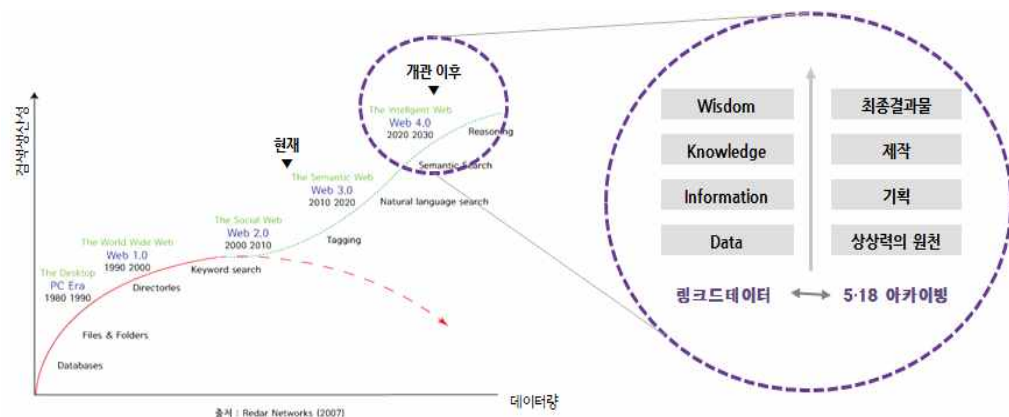


3) 시스템 디자인

■ 시스템 디자인 방향 : 5·18 콘텐츠 아카이브 + 링크드 데이터 시스템

“개관 이후 web 4.0(intelligent web)시대를 대비한 인문학적 인식의 체화 공간”

- 방법론 아카이브 : 아카이빙 시점부터 특화된 5·18 콘텐츠의 창작 과정/결과물/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아카이브 방식
- 링크드 데이터 시스템 : 메타데이터화 된 자료 사용자가 기대치 못한 지식의 연쇄를 가능케 하는 차세대 정보 기술 시스템



■ 민주인권평화 콘텐츠의 방법론적 아카이브 전략 : 아카이빙 정보는 목적이 아닌 창작과 향유의 도구

- 콘텐츠 기획, 창작, 공진화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아카이빙
- 창의적 분류틀로 자연스럽게 융복합이 발생할 수 있는 아카이빙
- 활용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아카이빙



■ 방법론적 아카이브의 예



| 그림 65. 게티이미지



| 그림 66. TED

<정적인 웹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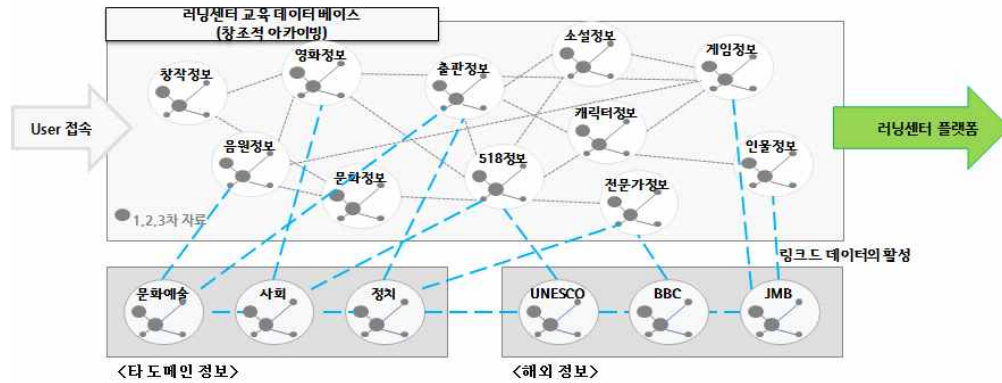


<동적인 웹페이지>



■ 링크드 데이터 활성 개념도

링크드 데이터 - 단순히 문서만 연결시키는 웹이 아니라 데이터를 웹에 발행하는 기술 : 수집된 자료를 단순 링크시키는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원했지만 예상치 못한 관련된 문화예술, 정치사회, 과학기술 정보를 발견하는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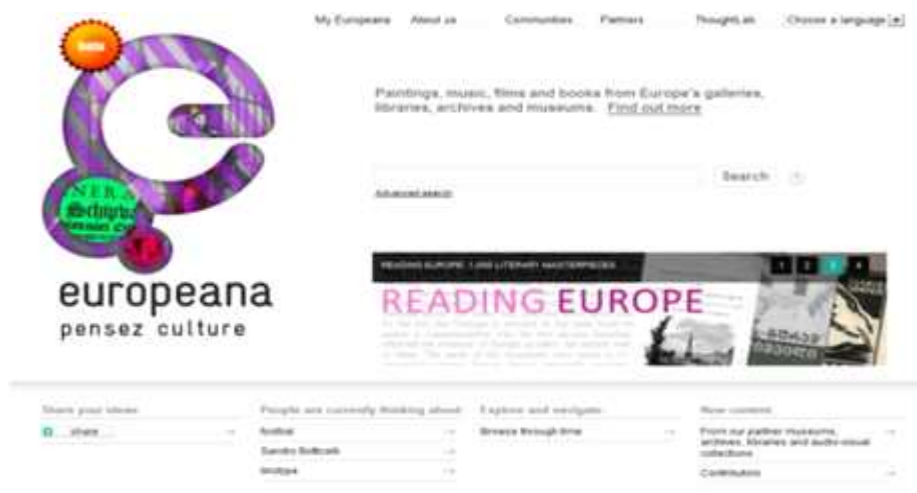


| 그림 67. 링크드데이터 구조도

- 링크드 데이터 예 : 기존의 정보 연결 및 검색을 넘어서, 사용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맥락으로 연결 시켜주는 미래형 정보 검색 시스템



| 그림 68.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라이브러리 ‘디브리’



| 그림 69. 유로피아나

■ UX/인터페이스 장치 도입 방향

Blended Learning을 지향(E-Learning + G-Learning + U-Learning + M-Learning)

“모든 서비스 프로그램 공간의 인터페이스 장치는 참여자의 몰입과 흥미를 고양시키기 위한 UX 기반의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장치들을 조합하여 구성”

- 놀이와 체험에 최적화된 최첨단 IT 기반 디바이스 구축
 - 참여자의 재미와 지속적 참여를 위한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장치로 교육 효과의 극대화
- 미디어의 간섭을 최소화한 유비쿼터스 환경 플랫폼 구축
 - 교육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위해 미디어 조작의 저항을 최소화한 유비쿼터스 교육 환경 조성
- 공간의 물리적 한계 극복을 위한 모바일 네트워킹 기술의 도입
 - 러닝센터 공간 내외부에서 참여하는 개인들의 스마트환경에 최적화된 적정 모바일 기술의 도입으로 지속적 참여와 프로그램 확산 기반 구축

■ UX/인터페이스 장치 사례

■ Multi-Touch Display

- 검색 기능
- 교육프로그램 신청 및 시설 이용 안내 가이드 키오스크
- 스탠드 형식, 테이블 형식
- 개인 스마트 단말기와 연동되는 앱 App 정보 및 제공



| 그림 70. 디스트릭트 Station Café : Café 공간을 (Virtual Goods인) music과 e-book을 통해 Lifestyle을 즐길 수 있는 digilog 감성 공간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공간형 가상재화 플랫폼”

■ Multi-Touch Display

- 활용 예 : Station Café - E-Library - feature
- 활용 방안 : 민주인권평화기념관 데이터 검색 및 E-, U-, S-Learning 콘텐츠를 제공을 위한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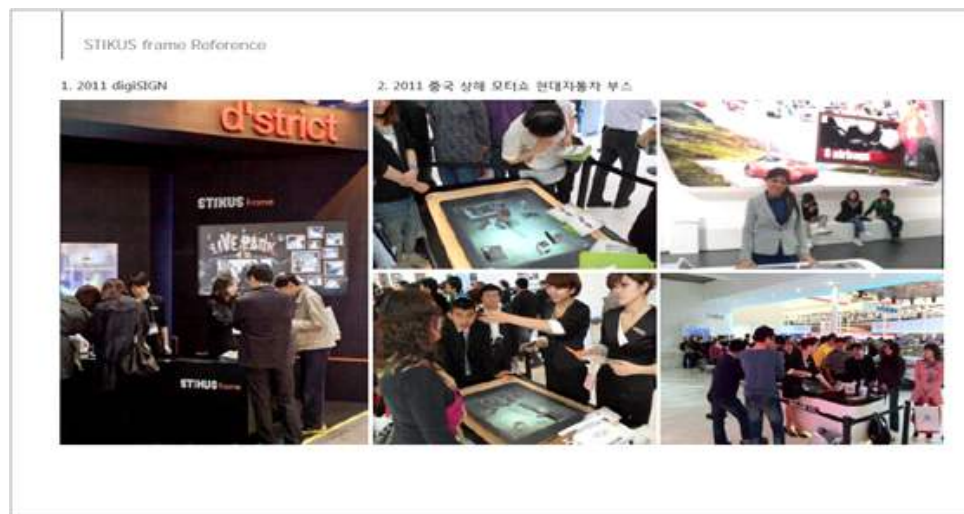
| 그림 71. Station Café - E-Library - feature

- Media Table + Wall screen 미디어 테이블 + 월 스크린
 - 일대일 미디어 테이블
 - 구성장비 : Print, Email, SMS cube, Multi touch table + Wall screen
 - 미디어 출력장치와 연결 가능한 시스템



| 그림 72. 디스트릭트 Stikus Frame : STIKUS frame은 무선 연동 시스템으로 wall screen과 multi touch table로 구성. 고객과 일대일로 마주하며,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된 다양한 요소를 통해 브랜드 샵, 모터쇼 전시회, 공연장 등에서 고객이 브랜드 이미지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일대일 미디어 플랫폼

- Media Table + Wall screen 미디어 테이블 + 월 스크린
 - 활용 예 : Stikers Frame
 - 월스크린과 멀티터치 테이블을 연동해 고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일대일 마케팅을 위한 기술
 - 사진, SMS, 프린트로 바로 전송
 - 활용방안 : 디지털 방명록



| 그림 73. 디스트릭트 Stikus Frame

■ Projection Wall 프로젝션 월

- 구성장비 : Projection display + Built-in HD camera for self-photo taking + Photo cloud UCC photo by visitors + 82" multi touch screen accessible for multiple users at the same time
- 대형 영상 미디어 월
- 이용자의 개인 단말기 및 동작 인터랙티브 가능
- 정보 제공 :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러닝센터 프로그램 및 전시 프로그램



| 그림 74. 디스트릭트 STIKUS Wall : 제품사양 Projection wall 10m_82". STIKUS wall은 가로 10m, 높이 3m의 초대형 500인치 screen 전면을 이용한 광고를 게시하여, 먼 거리에서도 조망 가능. 또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 공간을 활기치게 만들어주는 미디어 플랫폼.

- Projection Wall 프로젝션 월
 - 활용방안 : Mix Wall
 - 동작 인식 센서가 내장된 208인치 초대형 멀티터치 스크린 이용해 원하는 모델의 모습이 되어 볼 수 있다.
 - 우리의 이용 방법 : 시민군 되어 보기



- Cube Wall 큐브 월
 - 360 ° Multi-Media cube
 - 구성장비 : Photo cloud UCC photo by visitor + Built-in HD Camera for Selt-photo taking + 70" multi touch screen accessible for multiple Users at the same time
 - 기둥형태로 사면에서 조망 가능
 - 양쪽에 설치된 HD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고 multu touch screen 상단의 디스플레이와 인터랙션



| 그림 76. 디스트릭트 Stikus Cube : STIKUS cube는 기동형태로 사면에서 조망 가능. 양쪽에 설치된 HD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고 multi touch screen 상단의 디스플레이로 사진을 던지면, 360도 Photo cloud에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효율적인 미디어 플랫폼.

■ 홀로그램 장치

- 홀로그램 스크린 + 파사드 스크린 장비 : 홀로그램 전용 스크린, 틀깃, 바닥반사 스크린, 다채널 영상 시스템, 5.1CH 공연 음향 시스템, 무대 조명 시스템, 홀로그램, 프로젝터, 스피커, 관객 조명, operating CCTV, 콘트롤러
- 4D 퍼포먼스 장치는 관객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
- 영상, 미디어 파사드, 실제와 가상의 퍼포먼스,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결합되어 다양한 연출과 표현 가능



| 그림 77. 디스트릭트 Live Holo

■ 모바일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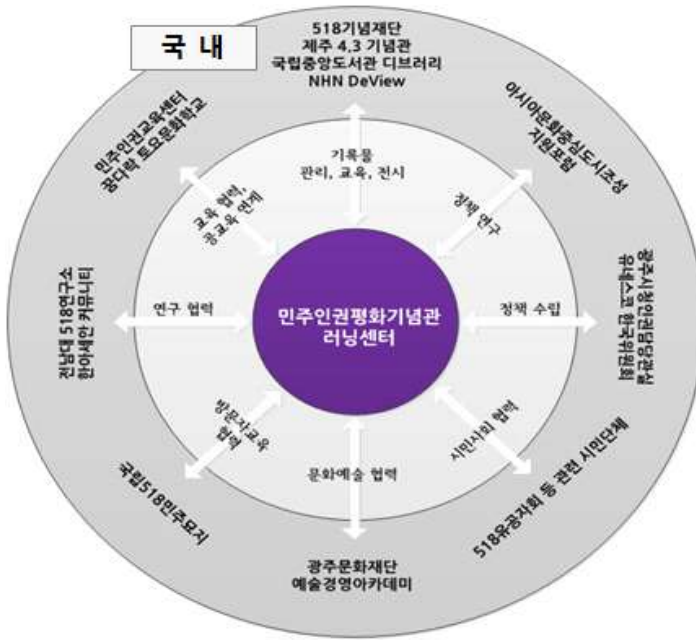
- 3D, 일반동영상, App 등 타 디지털 기기와의 연동 프로그램 가능
- 증강현실 콘텐츠 체험
- 이용자 시설이용 안내 가이드



나. 네트워크 구축

- 민주인권평화를 바탕으로한 문화예술 기관을 매개로,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기관 등 동시대 지식과 가치를 생산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 비제도권의 시민단체, NGO등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시민 친화적 네트워크 구축
- 단순한 협력기관이 아닌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실효적 MOU 체결
- 단일 허브 중심의 네트워크 방식(수직적 정보 독점)이 아닌 멀티 허브 네트워크 구축(수평적 정보 공유)을 상호 호혜적 정보 공유망 구축
- 전당 5개원 사업의 특장점(창조, 교육, 연구, 향유, 교류의 복합공간)을 고려한 향유자 중심의 네트워크
- 창작자와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공공영역의 저작권 공유 등에 대한 민주적 네트워크 구축

■ 협력 추진도



· 국외 연계기관

-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 국제 앰네스티
- 유네스코
- 야드바셈
- 호주민주박물관
- 워싱턴홀로코스트박물관
- Americaspeaks
- 관용의 박물관
- 게토 전사의 집
-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 프랑스강전쟁기념관
- 아트센터나 5월 어머니회

■ 5·18관련 기관

기관명	주요 프로그램	내용
국립5·18민주묘지	5·18 두근두근 나라사랑 체험 (2012)	5·18에 대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5·18 민주정신 현장 및 역사 체험 탐방 (2012)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광주트라우마센터	가족/개인/집단	상담을 통한 심리적 정서 안정 및 대인관계 기능 회복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채널	민주·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민주·인권동아리 100여개 육성 및 전시 및 자료제작 활동
	광주 청소년 독립 페스티벌	청소년 교육에서 인권에 대해 말하는 프로그램
	청소년 인문학 교실	교과서 위주가 아닌 철학과 인문학에 대해 학습하는 강좌
5·18기념재단	오월길순례단 (2012)	5·18사적지와 광주의 생활, 문화, 예술 자연을 연계한 다양한 코스로 구성
	찾아가는 5·18교육문화프로그램 - 오월이 왔다 (2010)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의의, 상황일지를 교육자료와 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프로그램
	레드페스타 (대한민국 10대 청소년 시민포럼, 5·18희망버스, 일어서는 사람들 마당극, 대한민국 1020희망 콘서트 등	청소년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 행사
	시민강좌: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 것인가?	우리사회의 큰 화두인 복지를 주제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강좌
	전국고등학생 토론 대회 (2002-현)	민주발전, 국가발전 그리고 민주 시민교육에 대해서 토론하는 대회
5·18기념행사위원회	정신계승프로그램	5월 역사기행, 전국 대학생 5·18 광주 역사 기행, 상무대 영창, 법정체험 등등
	나눔프로그램 - 주먹밥 나눔	5·18 나눔 정신을 생각하며 각 구마다 시민들에게 주먹밥 나눔 행사
	우리동네 5·18 어린이 교육	어린이들이 직접 동네를 돌아다니며 체험하고 경험하는 5·18

■ 5·18 관련 기관 활동

■ 청소년들이 함께 만드는 레드 페스타



■ 5·18 나눔정신 “주먹밥 나눔행사”



■ 국내 관련 기관

기관명	주요 프로그램	내용
4·3평화기념관	4·3역사문화아카데미 강좌 (2012)	
	청소년 4·3 역사 문화 교실 (2011)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랑 평화랑 놀자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와 평화를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국 청소년 논술 토론 대회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논술토론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전쟁박물관	인천상륙작전 4D 체험	6.25전쟁을 반전시킨 인천상륙작전을 생생하게 4D로 체험
	전쟁기념관 전국 학생 글짓기 공모 (2013 제18회 개최)	매년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 공모를 함
	이야기 전쟁사	박물관에 찾는 학생들을 위해 전쟁을 직접 경험한 할아버지에게 듣는 생생하고 실감나는 5.25전쟁 이야기
평화박물관	평화교육 - 현대사강좌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현대사 강좌
	찾아가는 평화 박물관	홍순관의 '춤추는 평화', 한홍구, 서해성의 '세상이야기'
	평화군축박람회	'평화책 읽는 모기장 도서관운영' '임종진 사진작가 초대전' '몸쓸 나쁜 비싼무기전'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시민 제안전'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납니다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민주주의 역사지도 민주로드길	국회와 민주주의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

■ 국내 관련 기관 활동

-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전쟁사



- 부산민중항쟁 : 민주랑 평화랑 놀자



■ 해외 관련 기관

기관명	주요 프로그램	내용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독일)	라파엘 로스 교육관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의 전시 프로그램을 컴퓨터 스크린으로 확장시켜 놓는 역할로 독일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줌. 산산비의 공원을 아바타를 통해 걸어 볼 수 있음
오кина와 평화 기념관 (일본)	어린이 전시실 (세계의 어린이들 / 오늘날의 세계 / 어린이 놀이터)	각국의 놀이와 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함
홀로코스트기념관 (미국)	고나 교육센터 / 웨스너 학습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연계 프로그램 및 단체, 개인, 가족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 홀로코스트 역사와 예술강좌, 현안 이슈 관련 강연 및 토론회, 홀로코스트 관련 공연 및 음악회 등 개최
안네프랑크하우스 (네덜란드)	Teacher's Guide - The Sevrete Annex Online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관용박물관 (미국)	Multimedia Learning Center	31대의 컴퓨터를 배치하여 50,000장의 사진, 14시간이 넘는 다큐멘터리, 3,000장의 지도, 5,000건이 넘는 문서를 포함하여 약 5,000개의 주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짐.
타이페이 2·28기념관	교류프로그램	제주 43연구소 등 해외 유관기관들과 학술대회 공동 개최 등 지속적인 교류 협력

다. 교육프로그램

5·18의 의미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 목적

- 5·18 역사와 의미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
- 5·18 전과 후 광주시민의 삶에 대한 이해
- 미래를 지향하는 5·18 역사의 현대화
-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아시아와 국내에 소통

■ 방법

-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Edu-tainment
- 체험을 통한 성찰
- 자발적 참여와 창의적 활동

■ 교육프로그램 구성

- 전시연계 프로그램 (B-Learning)
 - E-Learning: 상설전시의 12개 주제 설명 포맷
 - G-Learning: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 관련 인터랙티브 게임
 - U-Learning: RFID, QR코드,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하여 전시 및

이벤트 요소와 역사적 현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App앱

- 이동 박물관
 - 온오프 교육(예술, 역사, 생활사 등) 프로그램 운영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 커뮤니티 러닝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기조직화 운동)
 - 주먹밥 나누기
 - 자발적 시민주도형 페스티벌
- 교육 프로그램
 - 워크숍: 5·18 전과 후 광주의 역사와 광주 시민의 삶 (대상: 중고 등학생)
 - 연수: 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진앙지로서의 광주 (대상: 교사)
 - 치유: 음악, 미술, 사진, 문학 등 예술적 창작활동과 놀이를 통한 힐링프로젝트 (대상: 5·18 유공자 및 가족)
- 국내외 연계 프로그램
 - 국내: 민주인권교육센터와 함께 5,18 이후 국내 민주화 과정 관련 자료집/교재 개발
 - 국외: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과 함께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프로젝트 진행
- 인권활동가 및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 사례: 시민과 레지던스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민주인권평화의 가치에 대한 창작극

■ 교육프로그램 구성 사례 :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아카데미

■ 교육프로그램

- 전시투어 (예: “유대인의 삶, 유대인의 전통” , “중세기 유대인의 세계” , “아이와 직업: 17세기 여성의 삶” , “농촌의 유대인의 삶” , “모세스 멘델스존 또는 현자인 나탄?)
- E-Learning (가상전시, 유명한 또는 평범한 유대인의 삶, 유대인 음식문화에 대한 평범한 유대인들의 인터뷰, 유대인 종교와 문화에 대한 어린이를 위한 2D 게임)
- 국내/국외 유사 기관과의 인터넷 링크
- 워크숍 (예: 망명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극, 1945년 이후 유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장기, 히브리어 교육, 역사적 증인과의 만남, 19세기 후반부터 1933까지)
- 연수 (예: 반유대인 해결법)
- 이동 박물관 on.tour

■ 연구프로그램

- 유대인 역사와 문화, 이주와 다양성에 관한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Fellowship (2년)

■ 교육부서 운영체계

- 총 16명

- 13명 정도 상근직,
- 다양한 종류의 인턴과 자원봉사자
- 프로젝트별 용역

4. 기대효과

-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전당의 차별화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아시아 및 세계 민주·인권·평화 관련 담론을 선도하는 콘텐츠 개발·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 전당에서 생산하는 비러닝(B-Learning) 서비스 콘텐츠를 통해 세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는 새로운 미래 문화사회 모델을 창조한다.

VII. 시민여론수렴

1. 개요

2. 추진 과정

VII. 시민여론수렴

1. 개요

■ 목적

본 과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 언론인, 관련단체, 광주시, 문화예술인, 일반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여 기념관의 역사적 특수성 및 문화 예술적 보편성을 확보하고, 실효성과 적합성을 검토하며, 일반 시민의 관심 유도를 통해 소수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기념관이 아닌 시민 모두의 기념관을 지향한다.

■ 과정

회차	일시	장소	대상	참석인원
1	2013. 10. 17 (목)	무등빌딩 12층 회의실	자문위원	14
2	2013. 10. 24 (목)	무등빌딩 12층 회의실	자문위원	13
3	2013. 10. 31 (목)	송하회관	지역 언론인	7
4	2013. 11. 1 (금)	무등빌딩 12층 회의실	문화예술활동가	22
5	2013. 11. 4 (월)	광주광역시 시의회 대회의실	광주시의회 의원	
6	2013. 11. 7 (목)	텔리하우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 위원	20
7	2013. 11. 12 (화)	광주시청 회의실	광주시	25
8	2013. 11. 14 (목)	아시아문화마루	5·18 관련 단체	4·3
9	2013. 11. 19 (화)	아시아문화마루	시민	

표 17. 설명회 추진 일정

■ 쟁점별 결과 요약

■ 명칭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좀 더 부르기 쉽게 ‘5·18 기념관’으로 바꾸자는 본 연구의 제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 전시콘텐츠

재현이 아닌 예술적 승화를 원칙으로 만들어진 전시콘텐츠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다만 일부 재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전시콘텐츠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이는 실제 실시·실행 단계에서 작가들이 하는 작업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 5·18 광장

거석 모뉴먼트로 계획된 5·18 광장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오갔다. 현실적으로 시의 안과 아문단의 안, 본 연구의 안 가운데 절충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성

‘주먹밥’으로 상징되는 5·18 속 여성의 이미지에 대해 반발하는 여성단체 관련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80년 5월 광주와 절대공동체 한 가운데 존재했던 여성의 인류 보편적 모성성과 여성성은 차후 콘텐츠와 러닝 센터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될 것이다.

■ 복원

철거됐던 수위실과 정문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 이는 복원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정문은 전시콘텐츠 중 하나로 만들어져 더 큰 울림과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2. 추진과정

가. 1차 설명회 [전문가 자문위원단]

■ 1차 설명회 개요 - 전문가 자문회의

- 일시: 2013년 10월 17일 목요일 15:00~18:00
- 장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사무소 회의실(무등빌딩12층)
- 대상: 자문위원
- 참석자
 - 추진단: 김종을 추진단장, 김동안 전담운영협력과장, 김호균 전문위원
 - 책임연구원: 황지우 교수(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아시아문화개발원: 이경운 사무국장, 함진숙 교류원사업팀장, 이기형
 - 자문위원: 12명
 - 안병욱(카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 오수성(심리건강연구소장)
 - 오재일(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겸 5·18기념재단 이사장)
 - 윤만식(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장)
 - 정춘식(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 현중순(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사무처장)
 - 류재한(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문화전담운영지원분과위원장)
 - 박영희(광주여성단체협의회회장)
 - 이종범(조선대학교 사학과 교수)

- 임낙평(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이윤정(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5월여성제추진위원장)
- 이기훈(광주문화도시협의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 대참인: 박경인(광주시 문화수도정책실), 고정미(광주시 인권담당실)

■ 주요내용요약

■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 전시 콘텐츠 관련

- 전시 콘텐츠 안에 공간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반영하였고, 인문학적 · 철학적 해석을 통해 기념관을 5·18의 상징공간으로서 재해석한 기획이 감동적임
- 이번 전시콘텐츠 내용을 통해 기념관이 전당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대표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함
- 기념관 콘텐츠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인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밝은 이미지로 표현되었으면 하는 바람

■ 전시공간의 확장

- 전당의 대표 상징공간으로서 보존건물에 한정하지 않고 상무관과 분수대 주변 광장까지 상징화함으로써 지평을 넓힌 기획안이 돋보임
- 도청별관도 전시공간으로 포함하여 전시기획 및 활용방안 제시 바람
- 향후 전시콘텐츠의 변화나 추가 기획전 등에 대비, 별관을 특별 전시관 등 가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연구 바람

- 기타
 - 도청광장 주변 공간 활용과 관련 광주시와 문화부간의 협조적 논의 다각화 바람
 - 주먹밥으로 상징되는 5월정신에서의 여성의 역할, 모성의 역할을 잊지 않고 반영해 주길 바람
 - 5·18과 관련된 영상물을 상영 및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음
 - 기념관의 리모델링이 보존건물에 대한 훼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적극노력해 주길 바람

나. 2차 설명회

■ 2차 설명회 개요 - 전문가 자문회의

- 일시: 2013년 10월 24일 목요일 15:00~17:00
- 장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사무소 회의실(무등빌딩12층)
- 대상: 자문위원
- 참석자
 - 추진단: 김종율 추진단장, 김동안 전담운영협력과장, 김호균 전문위원
 - 책임연구원: 황지우 교수(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아시아문화개발원: 이경윤 사무국장, 함진숙 교류원사업팀장
 - 자문위원: 10명
 - 안병욱(카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 오수성(심리건강연구소장)
- 현중순(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사무처장)
- 김영정(광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송영은(광주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 박영희(광주여성단체협의회회장)
- 이종범(조선대학교 사학과 교수)
- 임낙평(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이윤정(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5월여성제추진위원장)
- 이기훈(광주문화도시협의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 대참인: 박선, 박경인(광주시 문화수도정책실), 고경미(광주시 인권담당실)
- 문서로 참석 대체: 윤만식(민예총 광주지부 회장)

■ 주요내용요약

■ 콘텐츠 표현 방식

- 전당 전체의 톤을 고려했을 때, 본 용역의 기념관 색채는 적절하다고 여겨짐
- 실현되고 난 이후(조명이나 색감 등)에는 어둡지 않을 수 있음
- 5·18은 근본적으로 비극이며, 영화나 연극의 비극계열은 많은 사람들이 찾음. 출장 중 방문한 유럽의 홀로코스트기념관들에서 본 관람객들은 그 공간 안에서 진지하며 고민하는 표정이었음. 희극이나 오락적인 느낌, 또는 사실재현은 안됨. 표현력의 차원, 상상력의 차원으로 비극을 더 감동스럽게 하도록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극 앞에서도 동시에 새로운 움직임이 있음. 따라서 장면 이면

이면이 형상화 될 것

- 결과적으로 5월은 빛이고, 색은 빛의 모방이므로 색깔을 다양하게 쓸 수 있음. 그 전에 기념관 전시콘텐츠에 구성된 매체를 조선적인, 한국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잘 배열해야 함. 일상의 다양한 오브제(소리, 빛, 꽃, 달, 별 등) 표현 제시
- 시대가 흘러가는 것처럼, 조금은 밝은 것을 가미해야 함

■ 5·18 민주광장 조성

- 돌멘(Dolmen) 오브제를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지반의 인장력을 고려했을 때 안전성을 위한 일이기도 하나, 광장 사이트의 명소화를 위한 대지미술로서의 구현 방안임
- 광장은 놀이터와도 같은 곳. 고인돌에는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도록 조성하여 공간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함. 예술작품으로 구현한다는 것에 자칫 막힌 공간이 될까 염려
- 계획에 분수대 주변을 다 비워둬,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 가능
- 지구상의 명품도시에는 중요한 광장이 있음. 광주에는 5·18광장이 있음. 80년대 광장이 아니라 21세기 광장으로, 아시아 광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념관의 22개의 콘텐츠와 광장이 조화롭게 조성되어야 함
- 원형이 주는 의미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
- 원형으로 모두 조성하는 것은 최초의 아이디어. 그러나 시청과 관계된 일들이 많아 복잡함
- 현재 시에서 광장 조성은 용역 발주하여 진행 중임. 작년 잔디광장에 이어 박석으로 바닥마감을 하는 안이 발표됨
- 5·18민주광장은 (현장성으로) 중요하고 금남로와도 연결되어있음. 이 광장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며, 황토 위 고인돌 160개가 어떻게 (금남로와) 조화롭게 구현될지 의문

- 3D로 구현해내는 작업을 좀 더 하여, 내용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자문위원들이 시청 관계자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 필요
- 시민의 입장으로는 현재 안과 광주시의 시안을 경쟁을 시키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이 떠오름.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시민들이 쉽게 접근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광장에 부여된 의미를 시민들이 볼 때도 쉽게 설명해줄 수 있었으면 함. 그렇게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이 시민들의 참여로 해소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봄
- 광장은 시(市)의 문제, 프로젝트 담당자의 문제, 추진단의 문제이나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구체적이고 자연적인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상세히 작성할 필요가 있음. 그것으로 a, b, c안을 내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관계자나 시민들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돌멘이 담고 있는 혼이나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는 고도의 설득력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면이나 그 외의 것들을 잘 엮어내어 시민과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 몇 세기가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가우디건축과 같은 예술적인 것이 떠오름

■ 5·18과 여성

- 제1차 자문회의 후 5·18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 자문단의 각 여성단체들과의 회의한 내용: 현존하고 있는 5·18기념관에는 여성의 역할이 주변화 되어 있음. 본 기념관에서는 젠더적 관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시설물, 프로그램, 콘텐츠 안에 여성을 젠더적 관점으로 녹여내는 것과 함께 가족 친화적 관점 내포 필요. 5·18 여성 주력부대들의 이미지화 제안
- 5·18의 본질을 절대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는데, 그 절대공동체 한 중심에는 여성을 넘어선 모성이 존재함. 광주 서사의 전체에는 여성성이 흐르고 있는데, 이 기념관 전체 흐름에서 여성만 분리하여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젠더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님. 여성 문제의 중요성은 전시기법으로 형상화할 것임

- 비본질적인 것이거나 주변적인 일에만 여성을 드러내서는 안 됨
 - 여성성을 넘어 모성성 이상의 인류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여성의 정의, 여성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예술성으로 승화시켜주길 바람
- 협의체(추진단, 개발원, 프로젝트 담당자, 자문위원단)의 과제
- 민주의 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이 추진단이나 광주시에 전달되지 않고 있음. 명칭, 도청별관 활용문제 등은 계속 거론되어왔던 문제들이었으나, 지역사회에서는 추진단이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최소한 '민주의 종'은 다른 곳으로 보내든지 해야 함
 - 20,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마련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광장에 대해서는 통일된 안이 나오도록 자문 내용을 반영하고 보완하겠음
 - 자문위원들이 오늘 논의된 내용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 필요한 문서를 만들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장을 비롯한 시청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는 프로그램이 필요
 - 행정이 중심이 되는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탁회의와 같은 여러 그룹에서 논의되고 평가하는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회의 필요
- 기타
- 기념관 명칭에 5·18이 들어갔으면 함
 - 한국의 청년과 외국의 청년이 느낄 5·18은 다름. 미래지향적인 메시지 고려
 - 주 대상은 20대 후반 30대
 - 지하통로는 충분한 안전성 검토 요구

- 기념관의 건축안은 전당과 전체적으로 함께 봤을 때 더 좋다고 생각함
- 아시아에 현재 진행 중인 5·18 정신을 소통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여백이 필요
- 아시아의 확산은 전당의 핵심이며, 기념관의 특별전, 기획전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도청별관의 내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

다. 3차 설명회

■ 3차 설명회 개요 - 지역 언론 편집·보도국장 대상

- 일시: 2013년 10월 31일 목요일 12:00~14:00
- 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송하회관
- 대상: 지역 언론 편집·보도국장
- 참석자
 - 추진단: 김종율 추진단장, 김동안 전당운영협력과장, 윤종호 개발과장, 김호균 전문위원, 전동근 전문위원
 - 책임연구원: 황지우 교수(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아시아문화개발원: 함진숙 교류원사업팀장, 이기형(교류원사업팀)
 - 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 김종석(무등일보 편집국장)
 - 이두현(전남매일 편집국장)

- 김성익(간사/남도일보 편집국장)
- 이경수(광주매일 편집국장)
- 김삼헌(CBS광주방송 보도·제작국장)
- 신건호(KBC광주방송 보도국장)

■ 주요내용요약

■ 기념관 전시 콘텐츠 관련

- 본 기념관 콘텐츠 구상의 기본은 광주 오월. 따라서 재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차원을 높여 문화예술의 감성적인 매력을 통해서 오월 정신을 표상화해야 하는 것이 용역의 목표
- 그러나 콘텐츠 중 ‘타임라인’ 이나 러닝센터에서 다뤄질 내용은 아카이브적인 성격이 강함
- 방문자 유인 요소 비교를 위한 사례 발표: 프랑스의 파리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독일의 베를린유대박물관
- 건축적 자성이 훌륭함. 우리 보존건물도 이와 같이 특성화된 요소가 필요
- 5·18보존건물의 5개동은 지어진 시대가 다르며, 행정 사무실로 사용되며 증축되어 양식이 각각 다름. 통일성을 부여할 건축적 또는 시각적 요소 구상 중
- 기념관 콘텐츠의 차별성: 극장성
- 광주 오월 서사는 누군가 마치 써 놓은 것처럼 완벽한 플롯으로 구성. 따라서 우리 콘텐츠의 차별된 점은 걸어 다니는 극장으로 어프로치부터 마지막 광장까지 하나의 서사구조로 구성됨
- 차량시위는 전남대학교 앞에서 최초로 학생과 계엄군이 맞닥뜨리는 사건이 구성에 없음

- 현재 안은 시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으나, 검토해 보겠음

■ 콘텐츠 표현 방식 및 건축적 요소

- 이번 달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내용 중 전반적으로 어둡다라는 것이었으나, 전시 표현 요소(조명, 자연광, 디지털 미디어 등)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시언어로 작성될 추진계획과 향후 3D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수렴될 예정
- 오월 서사 중 클라이맥스는 도청본관에 구현되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구조안전정밀진단과 전시설계가 후속사업에서 진행되고 있음

■ 5·18의 의미

- 본 콘텐츠 기획안은 피해자 중심, 즉 광주시민의 시점으로 보임. 그러나 거기엔 가해자도 있었고,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있음.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는 계엄군으로 그들은 시민과 같은 신체적인 상처와 함께 심리적인 상처까지 가지고 있음. 이분들을 위한 공간도 있으면 함
-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았으나, 5·18 정신, 그 자체에 대한 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5·18 참여자, 광주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시민군들은 돈 몇 푼(보상)보다 중요한건 그 정신을 담는 것
- 5·18이 우리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을 러닝센터에 역사학, 아시아적 지평, 여성, 언론, 한국문학예술과 같은 카테고리(안)로 오월 광주와 그 이후에 확장되고 축적된 의미를 주제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절대공동체, 모성애는 광주 오월 정신의 가장 큰 특징임. 우리 용역에서 집중하는 것은 술어였던 시민을 주어로 등장시키는 점. 그리고 도청 건물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광주 전체에서 일어난 점을 집중하고 있음

- 5·18 관계자 의견수렴 관련
 - 5·18구속부상자회에서 협의체 구성 요청이 있는 후, 사전 회의를 진행하고자 지난 7월 경 5·18기념재단에서 5·18관련 단체들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함. 정식으로 공문요청을 하여 참여를 도모했으나 5·18구속부상자회의 대표들은 참석하지 않아 협의가 무산됨.
 - 밀랍인형과 같은 사실적인 재현은 관람객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임. 5·18정신을 전국적, 세계적으로 하기엔 너무 제한적임. 망월묘지 전시관 등 기존 5·18전시에서 하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됨. 제한하면 다시 광주에 머물게 됨
 - 5·18을 일반시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라. 4차 설명회 [지역대표 청년문화예술활동가]

- 4차 설명회 개요 - 지역대표 청년문화예술활동가 대상
 - 일시: 2013년 11월 1일 금요일 14:00~17:00
 - 장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사무소 회의실(무등빌딩12층)
 - 대상: 지역대표 청년문화예술활동가
 - 참석자
 - 추진단: 김동안 전담운영협력과장, 김호균 전문위원, 전동근 전문위원
 - 책임연구원: 황지우 교수(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개발원: 함진숙 교류원사업팀장, 모상근, 오현화, 이송아
 - 청년활동가 : 22명
 - 객상희(광주MBC작가) - 김도아(청년문화기획)

- 김혜일(문화예술교육)
- 이조흠(청년예술가)
- 정민기(청년문화기획)
- 최지만(문화예술교육)
- 박강배(광주문화재단 팀장)
- 박정운(극단토박이 대표)
- 이당금(연극배우)
- 이승남(사회단체 활동가)
- 허달용(전광주민예총회장)
- 김주형(민중의소리 기자)
- 김주형(민중의소리 기자)
- 윤현석(마이빔 대표)
- 이한호(투스컴퍼니 대표)
- 천윤희(광주비엔날레)
- 김태훈(우리문화예술원장)
- 박시중(사회단체 활동가)
- 백희정(여성민우회장)
- 이상현(광주in 기자)
- 하정호(광주시 교육청)
- 안형수(NGO활동가)
- ※대참 : 위애림(광주시청소년 자원봉사센터)

■ 주요내용요약

- 도청 주변 도로 및 소음 문제
 - 전시동선 상 상무관 밖의 차량 소음 심각, 관람객의 감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 고려
 - 문화전당 주변이 차도로 둘러싸여 시민들의 전당 접근 불편 문제 해소 방안 검토
- 방문자센터(도청본관과 경찰청 사이) 공간 활용 문제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방문자센터 공간 살리는 방법 고려해야 함
- 전시 콘텐츠 관련

- 오감을 이용한 전시콘텐츠 활용 제안, 예를 들어 전차가 움직일 때의 진동 같은 피부로 느껴지는 효과 적용하면 몸이 느끼는 효과 통해 긴장감 등 감정의 밀도 상승효과 배가
 - 은유와 상징이 좋으나, 너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러한 방법으로 가는 것은 관람객이 이해 어려울 수도 있음
 - 극적이고 은유와 상징을 통한 작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의외로 실제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가 있음
- 5·18 민주광장 조성
 - 외부광장에 황토를 깔고 고인돌을 세우는 계획과 관련해서, 황토는 좋으나 고인돌이 놓이면 눌러지는 느낌이 있음. 고인돌이 무덤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은 염려스러움
- 기타
 - 동선 관리, 공간의 여백 등 안정적인 공간 구성을 위한 고민도 진행 되어야함
 - 전체 전시공간의 동선을 5·18m로 조정해서 브랜딩 하는 것 제안
 - 건물 옥상 활용 방안도 검토
 - 기념관 명칭에 5·18이 포함되는 것 검토
 - 아시아인이 왔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언어와 메시지 고민 필요

마. 5차 설명회

- 5차 설명회 개요 - 광주광역시의회 제80회 정책토론회

- 일시: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16:00
- 장소: 광주광역시 시의회 대회의실(4층)
- 대상: 광주시의회 의원
- 참석자
 - 좌장: 정현애 의원(광주시의회 의원)
 - 발제: 황지우(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나간채(전남대 교수)
 - 토론: 김호균(전문위원), 김공휴(5·18구속부상자회), 이경률(광주시 인권담당관), 강행옥(변호사), 안진(전남대 교수), 황정아(여성단체연합)

바. 6차 설명회

■ 6차 설명회 개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 일시: 2013년 11월 7일 목요일 11:00~14:00
- 장소: 텔리하우스
- 대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 참석자
 - 추진단: 김동안 전당운영협력과장, 김호균 전문위원
 - 책임연구원: 황지우 교수(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개발원: 함진숙 교류원사업팀장, 모상근, 오현화, 이송아
 - 조성지원포럼 위원: 정동채 회장 외 20명

사. 7차 설명회

■ 7차 설명회 개요 - 5·18역사왜곡대책위 대상

- 일시: 2013년 11월 12일 화요일 17:30
- 장소: 광주시청 회의실(행복창조실)
- 대상: 광주시장 및 5·18영사왜곡대책위
- 참석자
 - 책임연구원: 황지우 교수(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개발원: 함진숙 교류원사업팀장, 모상근, 오현화, 이송아
 - 광주시: 강운태 광주시장, 5·18역사왜곡대책위원(12명), 정동채 포럼위원장, 김성 문화재단사무처장, 김상호 문화관광정책실장, 임영일 문화수도정책관, 이경률인권담당관, 김동안 문화부과장

■ 주요내용요약

- 명칭
 - 5·18 기념관이라는 명칭이 제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전국 공모를 해서 단답식 아닌 아이디어들을 받고 그 중에 고르는 것이 좋음
- 도청 별관
 - 도청 별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 5·18 광장

- 광장은 많은 시민들의 기쁨과 한이 서린 공간인데,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고인돌과 5·18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의문임. 빛의 광장이 어떻게 하는 제안
- 5·18을 상징하는 건물이 없음. 5·18 타워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는 생각
- 시청 안은 광장을 화강석으로 까는 것. 앞으로 시청의 광장안, 아문단의 동산안을 가지고 다시 실무회의를 거쳐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보완하겠음

■ 전시 콘텐츠 관련

- 충기를 회수해서 받았던 민원실은 5·18이 평화로 승화된 곳임.
- 너무 추상적. 중학생도 이해 가능해야 함
- 5·18에는 역사 속에서 이어져온 의병 정신이 깃들어 있음. 따라서 4·19가 광주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콘텐츠에 반드시 넣어야 함
- 추상적이다, 5·18 내용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유족들 외에 시민들이 더 많음
- 설명보다 조형물이나 콘텐츠에 사실성을 강조해서 사실적으로 보고 느끼게 한다는 것은 찬성하면서도 공감을 함. 5·18 정신의 승화가 가장 중요함
- 현 계획은 5·18을 예술작품으로 승화를 시킨다는 것인데 원형 보존 역시 필요함. 밀랍인형이나 미니어처라든지로 표현하자라는 의견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함
- 아시아문화전당이므로 그 안의 5·18 기념관이 아시아 문화와 접목이 되어야 함. 아시아 문화 운동 사례 등을 다룰 필요가 있음

- 관람객들이 처참했다는 것만을 느끼면 안 됨.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다는 자부심과 동시에 이 5·18을 통해 아시아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세계 냉전을 깨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함. 5·18의 나비효과를 부각해야 함
- 고립된 광주에서 방화, 약탈, 파괴, 매전, 매석 등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평화의 메시지가 부각되어야 함
- 기본적으로 사적지나 전시관이냐의 문제는 굳이 저울을 단다면 사적으로 무게를 뒤야 할 것. 리모델링을 잘 해봐야 날림건물임이 분명하므로 거의 원형대로 보존해야 함

아. 8차 설명회

■ 8차 설명회 개요 - 5·18관련 단체 대상

- 일시: 2013년 11월 14일 목요일 14:30~16:50
- 장소: 아시아문화마루
- 대상: 5·18 관련 단체
- 참석자
 - 추진단: 김동안 전당운영협력과장, 김호균 전문위원, 전동근 (이상 전당운영협력과)
 - 개발원: 황지우(책임연구원), 이영진(선임연구원), 함진숙 팀장, 이기형(이상 교류원 사업팀), 문지혁(연구원)
 - 외부참석자: 5·18구속부상자회(20명 내외), 5·18민주유공자유족회(10명 내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10명 내외), 5·18기념재단(3명)

■ 주요내용요약

■ 전시콘텐츠 관련

- 5·18은 허구가 아니고 사실. 역사성과 사실성이 중요.
- 예술적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성이 중요. 보존건물 유지와 복원이 필요하고 훼손에 대한 책임 역시 따라야 함
- 문화예술전문인 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느낄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함
- 실제 5·18은 광주 뿐 아니라 전라도 전체에서 일어난 사건임. 따라서 고창, 정읍, 남원, 전주 등 전라도 각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재현해서 둘러볼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함
- 되도록이면 원형을 보존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 더 이상 콘텐츠나 전시공간을 활용하기위해 원형을 훼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함.

자. 9차 설명회

■ 제9차 설명회 개요 - 시민설명회

- 일시: 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14:00~17:00
- 장소: 아시아문화마루
- 대상: 광주 시민
- 참석자
- 추진단: 김종율 추진단장, 김동안 전담운영협력과장, 윤종호 개발과

장, 김호균 전문위원, 전동근 전문위원

- 책임연구원: 황지우 교수(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아시아문화개발원: 함진숙 교류원사업팀장, 이기형, 모상근, 오현화, 이송아
- 토론패널
 - 안병욱 자문위원
 - 5·18구속부상자회 김공휴 부회장
 - 전남대 정외과 조정관 교수
 -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이기훈 상임이사
 - 5월여성제 이윤정추진위원장
 - 5·18기록관 추진기획단장 홍세현

■ 주요내용요약

■ 5·18 광장

적어도 내년도에는 적어도 광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 이 광장은 5·18광장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5·18기념관하고 연계되는 방향으로 광장 콘셉트와 광장의 개념, 광장 활용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음

■ 전시 콘텐츠 관련

- 아시아 문화전당이라고 하는 것은 5·18을 내세워서 너희들 와서 5·18을 보고가라는 곳이라기보다는 아시아 사람들이 함께 와서 5·18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아시아와 5·18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연대의 공간임. 현재 지금 전시콘텐츠 구현되어 있는 5·18의 완결적인 구조는 좋지만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5·18과 관

런 있는 것을 어떻게 조금 더 보강해서 연결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었으면 함

- 이를 위해 아시아문화전당 전체 전시장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을 기획전시관으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아시아와 5·18이라는 콘셉트로 각 나라의 역사적인 사례들을 돌아가면서 기획 전시를 6개월이나 3개월 간격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
- 사적지인 만큼 당시 상황 그대로의 현장 보존이 중요함. 개인적으로 난징기념관처럼 현장이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되어 있는 것이 가장 보는 사람 가슴에 깊게 파고드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움. 어찌됐든 수위실만큼이라도 복원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위안이 됨
- 상무관도 현 계획에서는 지하를 파고 지붕을 열고 이렇게 돌로서관을 형상화하는 쪽으로 콘텐츠를 말씀해주셨는데 그 보다 당시의 모습을 재현을 하는 것을 원함. 관을 만들어서 태극기를 덮고 오열하는 어머니, 가족들의 모습을 형상화를 했을 때 그 모습이 교육적인 효과는 훨씬 더 나을 것임
- 콘텐츠 측면에서 직접적,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문화 예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공감을 함. 다만 콘텐츠 내에 5. 18은 뭐다, 라고 하는 정답을 계속주려고 하는 아쉬움이 있음. 굳이 기념관 내에서 5·18의 정답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념관을 나와서 5·18이 뭐지? 5. 18이 어떨지? 이런 여운만 남겨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함

■ 5·18과 여성

- 광주항쟁에서 여성의 활동은 대단히 주체적이고 핵심적이었음. 그러나 그동안 여성들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어머니들의 입장에서 주먹밥으로만 상징되어 왔음. 물론 상징적으로 주먹밥을 싸고 물을 주고 시민군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은 중요하지만 원초적 모성, 원초적 본능 이상의 잔인한 계엄군에 맞서서 투쟁을 했던 인류보편적인 광주시민을 살려내야 함. 광주의 우리 아들, 딸들을 그 폭력으로

부터 구해내야 되겠다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에 모성여성성현신에 이 표현이 되어졌으면 좋겠음. 예를 들어 광주도청을 마지막까지 새벽을 지키고자 결의했던 곳에 한 중심에 여성이 있었고 또한 투사회보라든가 시민들 모금하고 시체염을 하고 방송을 하고 헌혈을 하고 그리고 도청 앞 광장에 시민 쫓기대를 주도했던 한 중심에 70년대부터 조직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여성들이 있었고 문화운동을 했던 광대 여성들이 있었고 또한 조금 더 민주화에 대한 의식을 가졌던 간호사라든가 교사라든가 일반 시민여성들이 많은 참여를 했음.

-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간과되어 오면서 마치 광주 항쟁 속에서 여성의 활동은 주먹밥이나 주고 물이나 주는 식으로 대변되어 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함. 여성들의 활동은 충을 들지 않았지만 충을 들게 만들었고 광주를 추동해내는 인류 보편적인 정의감 그리고 공동체 광주를 하나로 만들었던 절대공동체의 한 중심에 광주 여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재해석해 이 기념관 안에서 그 부분이 녹아들어갔으면 함.

■ 기념관

- 오늘 발표에서 다른 나라의 기념관과 비교해서 현재 기념관을 가지고 있는 건축적 외관의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도 있음. 비록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축적 외관에 임팩트는 약하더라도 5. 18사적지를 보존을 했었고 구도청 별관을 보존하는 과정에 다양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포장하면 오히려 다른 나라의 기념관이 지닌 건축적 외관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함.
- 또 하나는 오늘 기념관에 대한 콘텐츠만을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지 기념관은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당과 함께 하는 기념관이므로, 건축적 외관의 임팩트는 약하더라도 전당 속에 녹아 스며드는 건축적 외관이라고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임

■ 러닝센터

기념관의 핵심적인 목적은 감성적 공명이지만 이것이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함. 가장 바람직한 것 중 하나는 미국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처럼 당시 현장을 겪었던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 5·18 관련단체의 당사자들이 상시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분들과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차원에서 별관 공간 혹은 적어도 회의실 공간에서 5·18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되길 바람

■ 기타

민주평화교류원의 콘셉트와 목표는 아시아문화교류의 협력과 네트워크구축인데 이 기념관이 민주평화교류원의 콘셉트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너무 기념관만 부각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있음. 앞으로 민주평화교류원과의 콘셉트와 기념관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할 할 것인가를 알려주셨으면 함

VIII. 향후 추진 계획

1. 중장기 로드맵
2. 총 소요예산

VIII. 향후 추진 계획

1. 중장기 로드맵

구분	계획·준비단계 (2013년)	개발·제작단계 (2014, 10월 준공)	설치·시운전단계 (2015, 3개월)
1. 운영	▶ 기념관 통합운영 실행계획 수립	▶ 기념관 실행계획 단계적 실행 추진	▶ 기념관 시운전 및 운영
2. 개관 콘텐츠	2-1. 기념관 개관 콘텐츠 구축 실행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콘텐츠 연출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콘텐츠 표현장치 연구·개발 - 참여 작가 선정 및 사전 제작 지원 	2-1. 기념관 개관 콘텐츠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콘텐츠 자체 제작 - 콘텐츠 표현장치 제작 발주 - 참여작가 선정 및 사전 제작 지원(계속) 	2-1. 기념관 개관 콘텐츠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콘텐츠 운송 및 설치 - 시범운전
	2-2. 옥내외 전시 공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설계 - 위 2-1과 아래 3 구조보강설계와 함께 진행 	2-2. 인테리어·익스테리어나 디자인 및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설치를 위한 설계 보충 가능 	
	2-3. 전시 콘텐츠 자원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2-3. 전시 콘텐츠 자원 연계 서비스 콘텐츠 개발	2-3. 전시 콘텐츠 자원 연계 서비스 콘텐츠 설치 및 시운전
	2-4.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전략 수립	2-4. 공동 프로젝트 추진 기획 및 실행	2-4. 공동 프로젝트 추진 기획 및 실행(계속)

	2-5. 시민여론수렴	2-5. 시민여론수렴 및 홍보사업	2-5. 국내외 홍보 사업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3. 보존건물/ 시공	▶ 보존 건물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설계 - 구조정밀진단 및 보강 설계 - 건축인허가용 기본/실시설계 - 건축 인허가 및 현상변경 - 공사용 실시설계-시공 병행 1차 (fast-track, 구조 공사)	▶ 보존건물 리모델링 공사 - 공사용 실시설계-시공 병행 2차 (인테리어, 엑스테리어 공사)	▶ 전시장 인테리어 최종 마감 ▶ 전시장 사전 운영 (장비 시운전)

